



KINGDOM OF SPAIN 

스페인 개황

2019. 10

스페인 국기



- 1785년 카를로스 3세가 현재의 국기를 제작하고 이를 왕령으로 공포
- 국기의 황금색은 국토를, 적색은 국토를 지킨 피를 상징하며, 비율은 2:3
- 국장의 상징적 의미
 - 4등분된 방패 문양 속의 왼쪽 위에 있는 성채(城砦)는 카스티야 왕국을, 오른쪽 위 사자는 레온 왕국을, 왼쪽 아래 네 개의 적색 세로줄은 아라곤 왕국을, 오른쪽 아래 황금색 쇠줄은 나바라 왕국을 각각 나타냄.
 - 석류꽃은 그라나다를, 중앙의 나리꽃 세 개는 현재의 왕실인 부르봉 가문을 뜻하며, 방패 문양 위의 왕관은 왕실의 관으로 왼쪽 기둥 위에도 있으며, 오른쪽 기둥 위의 왕관은 황제의 관을 나타냄.
 - 양쪽에 있는 기둥은 소위 헤라클레스의 기둥으로 지브롤터와 세우타를 뜻하며, 기둥에 감겨 있는 두루마리에는 “보다 먼 세계로”라는 뜻의 “PLUS ULTRA”라는 표어가 쓰여 있음.
 - 중세 시대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지브롤터를 넘어 더 이상의 땅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으로 “NON PLUS ULTRA”라고 적어 놓았으나, 신대륙 발견 후 카를로스 1세 황제가 지금의 표어로 변경

스페인 지도



스페인 개관

가. 일반

국 명	스페인 왕국(Reino de España, Kingdom of Spain)
수 도	마드리드 (인구 318만 명, 서울 인구의 약 32.5%)
면 적	505,990km ² (한반도의 약 2.3배)
기 후	동남부는 지중해성, 북서부는 온대성 기후
지 형	산악 지형 다수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산지이며, 평균 고도가 해발 600m 이상으로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고지형)
인 구	4,693만 명 (2019.1월)
인구밀도	92명/km ² (우리나라의 약 17.5%)
민 족	라틴족(포르투갈·이탈리아·프랑스·루마니아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3대 민족인 게르만족·라틴족·슬라브족 중 라틴족으로 구성)
언 어	스페인어(카스티야 지방어가 표준어, 기타 카탈란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가 해당 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
종 교	인구의 66%가 가톨릭 신자
의무교육	10년 (초등 6년, 중등 4년)
우리나라와의 시차	우리나라보다 8시간 느림 (일광절약시간제 실시 시 7시간 느림)

나. 정치

국가 형태	입헌군주국 (국왕 : 펠리페 6세)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펠리페 6세 (Felipe VI)
총 리	페드로 산체스 페레스-카스테혼 (Pedro Sánchez Pérez-Castejón) 임시총리 (2018.6월~, 사회노동당)
외교장관	조셉 보렐 폰텔스 (Josep Borrell Fontelles)
의 회	양원제 (하원 : 350석, 임기 4년 / 상원 : 265석, 임기 4년)
하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Meritxell Batet Lamaña)
상원의장	마누엘 크루스 로드리게스 (Manuel Cruz Rodríguez)
외교 기조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인권 존중에 기반하여 유연한 등 국제법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유럽,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다자주의를 촉진
국제기구 가입	FAO(1951.4월), WHO(1951.5월), UNESCO(1953.1월), UN(1955.12월), ILO(1956.5월), IMF(1958.9월), IFC(1960.3월), IDA(1960.10월), OECD(1961.9월), GATT(1963.8월), NATO(1982.5월), EC(1986.1월), WTO(1995.1월)
국 경 일	10월 12일 (1492년 10월 12일 콜럼버스의 미주대륙 도착일)
군 사 력	총 병력 11만 6천 명 (2018)

다. 경제

국내총생산(GDP)	1조 4,258억 달러 (세계 14위)
1인당 GDP	30,697달러 (구매력 기준 : 40,138달러)
교역 규모	7,133억 달러 (수출 : 3,367억 달러, 수입 : 3,766억 달러, 스페인 경제부)
관광 수입	900억 유로 (약 1,000억 달러) (세계 2위, 스페인 통계청)
외국인 관광객 수	8,270만 명 (세계 2위, 스페인 통계청)
실업률	15.3%
산업구조	서비스업 64.8%, 제조업 16.0%, 건설업 5.9%, 농수산업 2.6%
화폐 단위	유로

출처 : 2018, IMF

라. 우리나라와의 관계

한-스페인 수교 일자	1950년 3월 17일
한-스페인 교역 (2018)	55.3억 달러 (수출 : 30.2억 달러, 수입 : 25.0 억 달러, KITA)

CONTENTS

PART 1	지리	12
PART 2	약사	
	1. 고대	14
	2. 중세	14
	3. 근대	16
	4. 현대	17
PART 3	정치	
	1. 군주	24
	2. 행정부	24
	3. 입법부	25
	4. 내각과 의회의 관계	29
	5. 정당	30
	6. 사법부	33
	7. 헌법재판소	37
	8. 검찰 및 경찰 제도	38
	9. 지방자치제도	40
PART 4	최근 정치 정세	
	1.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민당 정부의 두 차례 집권(2004~2018)	44
	2. 라호이 총리 불신임안 통과로 사회노동당 정부 출범(2018.6월)	46
	3. 조기총선(2019.4.28) 이후 정부 구성 동향	48
	4. 기존 양당 체제에서 5당 체제로 변화	50
	5.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	52

PART 5

대외 관계

- 1. 개요 56
- 2. 대외정책 기본 방향 57
- 3. 對EU 관계 58
- 4. 주요 국가별 관계 61

PART 6

국방

- 1. 국방 정책 76
- 2. 국방 조직 77
- 3. 군사력 현황(2018) 79
- 4. 국방 예산 80

PART 7

경제

- 1. 경제 개요 84
- 2. 주요 산업 86
- 3. 교역 및 해외투자 91
- 4. 최근 경제 동향 94

PART 8

사회·문화

- 1. 주요 지표 및 특징 100
- 2. 각종 사회정책 기초 102
- 3. 언론 개관 106

PART 9

우리나라와의 관계

- 1. 외교 관계 110
- 2. 통상·경제협력 119
- 3. 동포 현황 126
- 4. 명예영사 현황 128
- 5. 친한단체 129
- 6. 인적·문화교류 현황 130
- 7. 주요 인사 교류 130

PART 10

북한과의 관계

- 1. 주요 관계 일지 140
- 2. 통상 관계 141
- 3. 친북단체 현황 141
- 4. 주요 인사 교류 144

PART 11

부 록

- 1. 외교부 기구표 146
- 2. 정부 각료 명단 148
- 3. 주요 인사 약력 149
- 4. 카나리아 제도 현황 153
- 5. 역대 주스페인대사 명단 158
- 6. 역대 주한스페인대사 명단 159
- 7. 스페인 주요 유적 및 관광 안내 160

PART 1

지 리



지리

- 스페인의 영토는 본토(이베리아 반도의 85%), 지중해의 발레아레스 제도, 아프리카 북서쪽의 카나리아 제도 및 북아프리카의 세우타(18.5km², 8만 5천 명)와 멜리야(12.3km², 8만 6천 명)로 구성(17개 광역자치주, 50개 도 및 2개 특별자치시(세우타 및 멜리야))
- 스페인은 전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산지이며, 평균고도는 해발 600m 이상으로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고지형
- 북부에는 피레네 산맥이, 대서양 연안에는 칸타브리아 산맥이, 남부에는 모레나 산맥과 네바다 산맥이 있으며, 중앙에는 해발고도 500~1,000m, 면적 21만km²의 메세타 고원이 위치
- 피레네 산맥과 칸타브리아 산맥을 중심으로 한 북부 지방과 리아스식 해안을 가진 서해안의 갈리시아 지방, 광물자원이 풍부한 칸타브리아 지방과 바스크 지방(빌바오의 철광석 등) 및 피레네 산지로 구분
- 중앙 고원 지대는 초원 지대로 카스티야 라 만차 지방과 카스티야 이 레온 지방으로 나뉘며, 스페인 문화의 발상지로서 목축이 성행
- 지중해안에는 발렌시아, 카탈루냐, 무르시아 등 여러 지방이 있으며, 이들 지방에는 농업 및 경공업 등이 발달
- 남부의 과달키비르 강 유역의 안달루시아 지방은 비옥하여 포도·오렌지·올리브 재배가 성행하며, 과거에 이슬람 세력이 미쳤던 곳으로서 아랍 색채가 농후
- 기온 및 강우량은 지역에 따라 상이
 - 북쪽의 해안 지방은 연중 서늘한 기후(연평균 기온 13.9℃)
 - 중앙 고원 지대는 계절별 기온 차이가 뚜렷(마드리드의 경우, 평균 기온이 겨울 5.9℃, 여름 30℃ 정도)
 - 지중해와 접해 있는 남부 및 동부는 여름철에 때로 40℃를 넘기도 하나, 습도가 낮고 대체로 온화한 편

PART 2

약사

1. 고대
2. 중세
3. 근대
4. 현대



1 고대

- B.C. 25,000~15,000 알타미라 동굴벽화
※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최초의 종족은 바스크족
- B.C. 8~7세기 페니키아인·그리스인이 스페인 지중해안 지역에 식민지 건설
- B.C. 7세기 유럽 중부의 켈트족 일부, 피레네 산맥을 넘어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
※ 스페인 역사의 주인공은 이들 켈트족과 함께 북아프리카로부터 건너와 켈트족보다 먼저 스페인에 정착한 이베로족으로서, 이들은 600년간의 로마 지배 하에서 완전히 라틴화(라틴어·기독교 수용 등)
- B.C. 3세기 카르타고,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정복
- B.C. 264~146 로마, 카르타고 격파, 지중해 제패(포에니 전쟁)
- B.C.2세기~A.D.5세기 초 로마의 지배

2 중세

- 5세기 게르만족의 일파인 반달족(Vándalos)과 서고트족(Visigodos)이 이베리아 반도로 이동, 정복왕국 건설(게르만족의 대이동)
- 711년 서고트 왕국이 무어족(이슬람)에게 정복된 이후 이베리아 반도 전역이 이슬람화
- 732년 프랑크 왕국의 칼 마르텔이 피레네 산맥을 넘으려는 이슬람 세력을 푸와티에(Poitiers)에서 격파, 기독교 세계 보호

- 13세기 중엽 기독교 세력, 1212년 라스나바스 데 톨로사(Las Navas de Tolosa) 승리 이후 이슬람 세력을 연파, 13세기 중엽에 와서는 남부 일부(그라나다)를 제외한 모든 지역 회복(1492년 레콩키스타(La Reconquista) 완성)
- 1492년 카스티야(이사벨 여왕)와 아라곤(페르난도 왕) 연합군은 그라나다를 탈환(1492.1월), 영토 회복 완수(1496년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 결혼)
 - 로마 교황,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 두 사람에게 가톨릭 양왕(Los Reyes Católicos) 칭호 하사
 - 콜럼버스, 이사벨 여왕의 후원 하에 美대륙 발견(이사벨 여왕, 그라나다 탈환 직후 콜럼버스의 항해 계획 지원 계약서에 서명)
- 1494년 포르투갈과 세계 양분 (토르데시야스(Tratado de Tordesillas) 조약)
 - ※ 탐험 지역들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력 확장 범위를 정한 조약
- 1498년 포르투갈인 바스코 다 가마, 인도 항로 발견
- 1512년 현 스페인의 영토 형성
- 1516년 페르난도와 이사벨의 외손자인 카를로스 데 보르본(Carlos de Borbón, 부계는 합스부르크 왕가)이 카를로스 1세로 즉위 (스페인 통일왕국 최초의 왕)
- 1516년 프란시스코 피사로, 잉카 정복
- 1519~1522년 포르투갈인 마젤란, 스페인 왕의 후원 하에 세계일주 항해 시작 (1519), 필리핀에서 마젤란 사망(1521) 이후 스페인인 엘카노(Elcano)가 남은 항해를 완료하여 세계일주 성공(1522)
- 1535년 튀니지 정복
- 1556년 펠리페 2세 즉위
- 1561년 펠리페 2세, 마드리드로 천도
- 1571년 펠리페 2세,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터키 격파, 지중해 제패
- 1580년 포르투갈 병합 (1580~1640)
- 1588년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 영국에 패배

- 1605년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발표
- 1618~1648년 ‘30년 전쟁’ 패배 후 식민지인 네덜란드 독립 인정
- 1668년 포르투갈 독립 인정(리스본 조약)
- 1700년 펠리페 5세부터 부르봉 왕가에서 왕위 계승
- 1701~1714년 왕위계승 전쟁 패배로 영국과 프랑스에 세계 패권 이양

3 근대

- 1808~1814년 나폴레옹 지배 (나폴레옹의 형 조제프 보나파르트(Joseph Bonaparte)가 스페인 왕으로 즉위)
- 19세기 초반 중남미 식민지 대부분 독립
- 1873~1874년 제1공화국 탄생
- 1898년 미·스페인 전쟁 패배 (쿠바, 필리핀 및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에 할양)
- 1902년 마지막 왕 알폰소 8세 즉위

4 현대

- 1923년 프리모 데 리베라(Primo de Rivera) 장군, 알폰소 8세의 영도 하에 군사독재정권 수립
- 1931년 선거에서 공화파 승리(알폰소 8세 폐위, 제2공화국 출범)
- 1936년 7월 18일 공화정의 인민전선 정부에 대항한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 등 우익 군부의 봉기로 스페인 내란 발발
- 1936년 10월 1일 프랑코 장군 총통 취임
- 1937년 4월 독일 공군, 프랑코측 지원을 위해 스페인 북부의 공화파 도시 게르니카(Guernica) 맹폭
- 1939년 4월 프랑코측 내전 승리(독일·이탈리아가 프랑코군을 적극 지원한 반면, 영국·프랑스·소련 등은 인민전선 지원에 소극적)
- 2차 세계대전 프랑코 총통은 내란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에서는 중립 유지
- 1945~1953년 체제의 독재적 성격, 2차 세계대전 중립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1946년 1월 제1차 UN 총회에서 규탄 결의안 채택, 마셜플랜 제외)
- 1953년 9월 미국과 방위협정 및 로마교황청과 화해조약 체결
- 1955년 UN 가입
- 1960년대 눈부신 경제 발전 이룩(스페인의 기적 : milagro español)
- 1969년 7월 프랑코 총통, 후계자로 후안 카를로스 왕세자(마지막 왕 알폰소 8세의 손자) 지명
- 1973년 6월 프랑코 총통, 총리직에 부총리 카레로 블랑코(Carrero Blanco) 해군제독 임명
- 1973년 12월 ETA(과격 바스크 분리주의자 단체), 블랑코 총리 암살
- 1974년 2월 아리아스 나바로 신임 총리, 정치단체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소위 '자유화 정책(La Apertura)' 선언, 이후 프랑코 총통 사후 대비 작업 본격화

- 1975년 11월 프랑코 총통 사망(11.20)
후안 카를로스 왕세자, 국왕 즉위(11.22)
- 1976년 7월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은 국민들의 조속한 개혁 요구에 부응하여 아리아스 총리를 해임하고 아돌포 수아레스(Adolfo Suárez) 전 국민운동장관을 총리로 임명
※ 수아레스 총리는 의회의 민주적 개편, 정당 자유화, 노조 결성 허용, 정치범 사면, 지방자치 실시, 사찰기관 폐지 등 민주화 작업 추진
- 1977년 6월 41년 만의 총선 실시, 수아레스 총리가 이끄는 민주중도연합(UCD) 승리, 수아레스가 민주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
- 1978년 12월 서구식 의회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신헌법이 국민투표에서 통과(1974년 이래 민주화 작업 완료)
- 1979년 3월 신헌법에 따른 총선 실시, 수아레스 총리가 이끄는 민주중도연합(UCD) 재집권
- 1981년 1월 바스크 과격분자들의 테러 활동으로 인한 정국 혼란 및 경기 침체로 수아레스 총리 사임
- 1981년 2월 레오폴도 칼보 소텔로(Leopoldo Calvo Sotelo)를 차기 총리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보안부대가 의회를 습격하는 쿠데타 시도, 카를로스 국왕의 강력한 반대로 군부쿠데타를 무혈 진압하고 민주주의 수호
- 1982년 5월 NATO 가입
- 1982년 10월 조기총선 실시, 민주중도연합(UCD) 참패 및 사회노동당(PSOE)이 다수 의석 확보, 펠리페 곤살레스 총리 1기 정부 출범
- 1986년 1월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y) 가입
- 1986년 6월 총선에서 사회노동당(PSOE) 재집권, 펠리페 곤살레스 총리 2기 정부 출범
- 1989년 1월 국민당(PP) 창당 (당시 제10당 국민동맹(AP)이 범중도우익세력 규합)
- 1989년 10월 총선에서 사회노동당(PSOE) 승리, 펠리페 곤살레스 총리 3기 정부 출범
- 1993년 6월 총선에서 사회노동당(PSOE) 승리, 카탈루냐당 지원 하에 4기 집권

- 1996년 3월 조기총선에서 사회노동당(PSOE)이 실권하고 국민당(PP) 승리,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José María Aznar) 총리 1기 정부 출범
- 2000년 3월 총선에서 국민당(PP) 승리,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총리 2기 정부 출범
- 2004년 3월 마드리드 열차 테러 사건 직후 치러진 총선에서 사회노동당(PSOE) 승리, 사파테로 총리 정부 출범
- 2004년 12월 바스크 주정부가 제출한 ‘이바레체 구상(국민 스스로 주민투표를 통해 주의 미래에 대한 자결권을 갖는다는 제안)’이 주의회에서 통과 되었으나 스페인 정부는 헌법 위배를 이유로 이를 거부
- 2005년 4월 바스크 지방선거에서 집권 바스크민족주의당(PNV)이 승리했으나 독립 지지 표 확보는 실패
- 2006년 3월 ETA, 분리독립 투쟁 영구 휴전 선언
- 2006년 6월 스페인 정부, ETA와의 평화협상 개시 공식 선언
- 2006년 6월 카탈루냐주가 자치권을 확대하는 자치헌법 개정안을 주민 투표에 부쳐 73.9%의 지지율로 통과
- 2008년 3월 총선에서 사회노동당 재집권, 사파테로 총리 2기 정권 출범
- 2010년 1월 스페인 4번째 EU 의장국 수임(리스본 체제 발족 후 최초 의장국)
- 2010년 6월 카탈루냐를 국가(Estado)로 선언한 서문 등 카탈루냐 자치 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결
- 2010년 11월 정부 긴축정책, 헌재 판결에 대한 불만 등으로 카탈루냐 지방 선거에서 사회노동당 패배, 카탈루냐통합당(CiU) 승리
- 2011년 5월 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당(PP)이 37%를 득표, 27%를 득표한 사회노동당(PSOE)을 누르고 압승
- 2011년 10월 ETA, 무장투쟁 영구 종식 선언
- 2011년 11월 지방선거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카탈루냐통합당이 압승을 거두며, 마스(Mas) 카탈루냐 주지사를 중심으로 분리 독립 추진 가속화
- 2011년 12월 조기총선(11월)에서 집권 사회노동당이 참패하고 제1야당인 국민당이 압승, 마리아노 라호이(Mariano Rajoy) 총리 정부 출범

- 2012년 4월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의 아프리카 호화 사냥 여행으로 왕실 이미지 손상 및 대국민 사과
- 2012년 7월 실업수당 축소, 공무원 급여 삭감 및 부가가치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추가 긴축법안 의회 통과, 이로 인해 여야 간 대립 및 국민 시위 확대
- 2012년 11월 헌법재판소 동성결혼 합헌 판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 허용
- 2012년 11월 카탈루냐 주의회 조기선거 실시, 카탈루냐통합당(CiU) 승리 및 급진독립 성향의 카탈루냐공화당(ERC) 약진
- 2013년 1~3월 카탈루냐 주의회는 카탈루냐 주민을 정치·사법적 주권 주체로 선언하는 주권 선언문 승인, 국무회의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제기
- 2013년 9월 카탈루냐주 기념일 계기 최대 규모의 분리독립 지지 인간사슬 캠페인 실시, 카탈루냐주의 분리독립을 위한 ‘2014년 주민 투표 실시’ 강력 요구
- 2014년 2월 크리스티나 공주 및 배우자 우르단가린(Urdangarin) 공, 조세 포탈 및 자금세탁 혐의로 법원 출두
- 2014년 3월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 위헌 판결
-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집권 국민당 참패 및 신생 포데모스당(Podemos) 부상
- 2014년 6월 19일 펠리페 6세(47세) 신임 국왕 즉위
- 2014년 11월 카탈루냐 주정부, 분리독립 여론조사 실시
- 유권자의 3분의 1 참여, 이 중 80%가 카탈루냐 독립에 찬성
- 2015년 5월 스페인 지방선거에서 집권 국민당에 대한 심판론 및 신생 정당인 부상으로 여당 패배
- 2015년 9월 카탈루냐 주의회 선거 실시, 분리주의 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
- 2015년 12월 총선 실시, 국민당의 신승에도 불구하고 과반 의석 미달로 정부 구성을 위한 정당 간 협상에 돌입했으나 정당 간 대립으로 정부 구성 실패

- 2016년 1월 분리주의 정당의 지지를 확보한 ‘찬성을 위해 함께(Junts pel Si)’ 당의 푸지데몬 후보가 카탈루냐 주지사로 선출

 - 카탈루냐 신정부는 마스 전 주지사의 분리독립 로드맵을 계승, 향후 18개월 이내 카탈루냐 임시헌법 제정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계획 발표
- 2016년 6월 2차 총선에서도 국민당은 제1당을 유지했으나 다시 과반 의석 확보 실패
- 2016년 10월 시민당 등과의 연대 및 사회노동당 내부 분열로 라호이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 국민당 라호이 2기 정부 출범
- 2018년 5월 스페인 바스크 무장단체 ETA 해산
- 2018년 6월 국민당 관계자가 연루된 여러 부정부패 사건 등을 계기로 산체스 사회노동당 대표가 라호이 총리에 대해 제출한 불신임안 하원에서 통과, 7년 만에 사회노동당 정부 출범

 - 산체스 신임 총리 취임
- 2019년 2월 카탈루냐 분리독립 정치범에 대한 재판 개시
- 2019년 2월 산체스 정부의 2019년 예산안 의회 부결 (총 350표 중 찬성 158표, 반대 191표)
- 2019년 4월 사회노동당은 소수정당(350석 중 84석)의 한계 속에서 거둬들인 예산안 의회 승인 실패, 카탈루냐 세력과의 대화 관련 논란 등으로 정국 운영을 위한 동력을 상실하여 조기총선 실시

 - 총선 결과 집권 사회노동당이 제1당으로 등극했으나 단독 정부 구성을 위한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
- 2019년 5월 지방선거에서 선거가 치러진 광역자치주 12곳 중 10곳(아라곤, 아스투리아스, 발레아레스 제도, 카나리아 제도, 칸타브리아, 카스티야 라만차, 카스티야 레온, 엑스트레마두라, 마드리드, 무르시아, 나바라, 라리오하)에서 사회노동당 승리

 - 다만, 마드리드·무르시아 등 일부 광역자치주에서는 사회노동당이 1당이 되었음에도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 여타 정당이 집권
 -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사회노동당은 지난 2014년 유럽의회 선거 대비 6석을 추가로 확보하여 제 1당으로 등극

• 2019년 7월

산체스 후보 총리 선출안이 1차 및 2차 임명동의안 투표에서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

- 장관직 배분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당 간 연정 구성 전망 불투명(2019.9월 현재)

PART 3

정 치

1. 군 주
2. 행정부
3. 입법부
4. 내각과 의회의 관계
5. 정 당
6. 사법부
7. 헌법재판소
8. 검찰 및 경찰 제도
9. 지방자치제도



1 군주

- 국가원수로서 불가침이며 책임을 묻지 못함.
- 공식 칭호는 ‘스페인 왕(Rey de España)’으로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음.
 - 국가대표권
 - 군주의 행위는 총리 및 관계 각료에 의해 부서되어야 하며, 부서가 없는 행위는 헌법상 무효
 - 법률 폐지 및 공포권
 - 의회 소집 및 해산권(총리는 각료회의 심의를 거친 후 양원 또는 각원 해산을 국왕에 건의)
 - 총리 및 각료 임명권
 - 군통수권
 - 선전포고 및 강화권
 - 외교사절 파견 및 접수권 등

2 행정부

가. 총리

- 스페인어 직함은 Presidente del Gobierno으로, 정부 활동을 총괄하며 부처 간 업무 조정이 주요 임무
- 선출 절차
 - 하원이 새로 구성되거나 헌법이 따로 정하는 경우, 국왕은 원내 주요 정당 대표들과 협의 후 총리 후보자 1명을 하원의장에게 추천
 - 하원은 추천받은 후보로부터 정치강령을 제출받고 신임 투표
 - 하원으로부터 재적 과반수의 신임을 받으면 국왕에 의해 총리로 임명
 -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48시간 내에 2차 투표 실시,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2차 투표에서도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새 후보를 지명하며, 최초의 신임 투표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임 총리를 선출치 못할 경우, 국왕은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 재실시

나. 각료

-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
※ 부록 '정부 각료 명단' 참고

3 입법부

가. 개요

구 분	하 원(Congreso de los Diputados)	상 원(Senado)
권 한	스페인 국민대표, 입법권, 예산의결권, 행정부 활동 감독권 등	
선 출	정당명부제	직접선거
의원 수	현재 350인 (선거구인 도(provincia)의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 결정)	265인(5석 공석) (지역 대표, 도당 4명)
임 기	4년	
회기(정기)	1차 : 9~12월, 2차 : 2~6월	
양원 합동회의	중요 문제 토의 시 하원의장 주재	
겸 직	상·하원 의원 겸직 불가	
의장 (2019.4월 총선, 제13대 의회)	메리첼 바텃 라마냐 (Meritxell Batet Lamaña) (사회노동당)	마누엘 크루스 로드리게스 (Manuel Cruz Rodríguez) (카탈루냐사회당)

구 분	하 원(Congreso de los Diputados)	상 원(Senado)
제1 부의장	마리아 글로리아 엘리소 세라노 (María Gloria Elizo Serrano) (포데모스)	크리스티나 나르보나 루이스 (Cristina Narbona Ruiz) (사회노동당)
제2 부의장	알폰소 로드리게스 고메즈 데 셀리스 (Alfonso Rodríguez Gómez de Celis) (사회노동당)	피오 가르시아 에스쿠데로 마르케스 (Pío García-Escudero Márquez) (국민당)
제3 부의장	아나 파스토르 훌리안 (Ana Pastor Julián) (국민당)	-
제4 부의장	호세 이그나시오 프렌데스 프렌데스 (José Ignacio Prendes Prendes) (시민당)	-

※ 스페인은 완전한 의원내각제가 아니며, 의원이 아닌 인사도 총리나 각료가 될 수 있어 부분적 의원내각제 유지
- 연정을 구성하지 않고 소수 정부로도 집권 가능

※ 의장단은 하원(Mesa del Congreso)의 경우 의장, 부의장 4명, 간사 4명, 상원(Mesa del Senado)의 경우 의장, 부의장 2명, 간사 4명으로 구성

나. 권한

- 입법권
- 국정조사권
- 조약동의권
- 대정부 회계감사권 등

다. 상·하원 관계

- 하원 우월주의
- 내각 불신임권, 정부 임시조치 입법 승인권 등은 하원의 전속 권한

라. 정당별 의석 분포 (2019.4월 총선 결과)

(단위 : 석)

하원(350)	의석	상원(265, 공석 5)	의석
사회노동당(PSOE)	123	사회노동당(PSOE)	138
국민당(PP)	66	국민당(PP)	69
시민당(Ciudadanos)	57	카탈루냐공화당(ERC)- 바스크 정치연합(EH Bildu)	14
포데모스연합(Unidos PODEMOS)	42	시민당(Ciudadanos)	13
VOX당	24	바스크민족주의당(PNV)	9
카탈루냐공화당(ERC)	15	카탈루냐와 함께당(JxCat)-까나리아연합(CC)	6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	7	좌익연합(IC)	6
바스크민족주의당(PNV)	6	VOX당	1
기타	10	기타	4

마. 선거제도

1) 상원의원 선거(총 265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

- 직접선거 선출 의원(208명)
 - 이베리아 반도의 47개 도(Provincia) 선거구에서 각 4명 선출(보통선거)
 - 단, 도서지역 선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숫자로 의원 선출 : 그란 카나리아(3), 마요르카(3), 테네리페(3), 이비자-포르멘테라(1), 메노르카(1), 푸에르테벤투라(1), 고메라(1), 이에로(1), 란사로테(1), 라 팔마(1), 세우타 및 멜리야는 각 2명 선출
- 각 광역자치주 의회가 임명하는 의원(57명)
 - 광역자치주(Comunidad Autónoma)는 각 1명의 상원의원을 지명하고, 인구 100만 명당 1명씩 다시 추가 지명
- 직선제 상원의원 선출 방법
 - 도 선거구 : 유권자가 최대 3명의 후보자에게 투표
 - 도서지방(그란 카나리아, 마요르카, 테네리페) 및 세우타, 멜리야 선거구 : 최대 2명의 후보자에게 투표

- 여타 도서지방(이비자-포르멘테라, 메노르카, 푸에르테벤투라, 고메라, 이에로, 란사로테, 라 팔마)
선거구 : 1명에게만 투표
- 직선제로 선출된 상원의원의 사망, 직무수행 불능, 사임 시에는 후보자 명단의 제 1순위자가 의석 승계

2) 하원의원 선거

- 하원은 총 350명의 하원의원으로 구성
 - 의석 분포
 - 각 도(Provincia)는 최소 2석, 세우타 및 멜리야는 각 1석 보유
 - 잔여 248석은 각 도의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
 - 선출 방식
 - 각 정당은 후보자 명단(서열순 명기) 제시
 - 유권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
 - 선거구 총 유효투표 수의 3/100 이상 득표치 못한 정당은 제외
 - 기타 정당들의 득표수를 다수 득표 순으로 기록
 - 각 정당별 득표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출 의석수와 같아질 때까지 1, 2, 3... 숫자로 나누어서 다수 득표 순으로 정당들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동트(d'Hondt)식 비례대표제
- ※ (예) 유효투표수 2,580표인 선거구에서 4개 정당이 8개 의석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경우, A당 1,000표, B당 700표, C당 600표, D당 280표 득표를 가정하면 A당 당선자는 3명, B당 당선자는 2명, C당 당선자는 2명, D당 당선자는 1명

정당명	A	B	C	D
득표수	1,000	700	600	280
1로 나눈 경우 몫	1,000 ①	700 ②	600 ③	280 ④
2로 나눈 경우 몫	500 ④	350 ⑤	300 ⑦	140
3로 나눈 경우 몫	333.3 ⑥	233.3	200	93.3
4로 나눈 경우 몫	250	175	150	70
당선자	3명	2명	2명	1명

4 내각과 의회의 관계

※ 하원은 내각불신임을 의결하고, 총리는 의회 해산을 제안할 수 있음.

가. 내각불신임

- 내각이 스스로 신임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
 - 총리는 각료회의를 거쳐 정치강령 또는 일반 정책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원에 요구 가능
 - 출석의원 과반수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내각 사퇴
- 하원에서 불신임을 의결하는 경우
 - 하원의원 10분의 1 이상에 의하여 발의(차기 총리 후보 명시)
 -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불신임되면 국왕은 불신임안의 차기 총리 후보를 차기 총리에 임명)

나. 의회 해산

- 국왕의 지명을 받은 총리후보자가 하원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
 - 국왕은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자가 신임을 못 얻는 경우, 계속 다른 후보를 지명
 - 최초의 신임 투표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임 총리를 선출하지 못할 경우, 국왕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 재 실시
- 총리가 의회 해산을 제안하는 경우
 - 총리는 각료회의와의 형식적 협의를 거쳐 양원 또는 개별적 해산을 제안
 - 국왕은 선거일 공고와 함께 의회를 해산
 - 해산일로부터 1년 내 재차 해산 불가
- 헌법 개정의 경우
 - 헌법의 전문 개정 또는 총강, 기본권, 왕권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상원 및 하원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는 경우, 즉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의회를 구성

5 정당

가. 개요

- 프랑코 총통 취임 직후인 1937년 「정치단체 통합법」 제정, 모든 정치단체가 ‘국민운동(Movimiento Nacional)’으로 통합
- 1974년 2월 아리아스(Arias) 총리(1974.1월 취임)가 소위 ‘자유화 정책(La Apertura)’을 선언하고, 첫 개혁 조치로 1974년 12월 정치결사를 허용하는 「정치결사법」이 제정(1975.1월 발효)되자, 정치결사단체들이 태동
- 1976년 6월 「신정치결사법」 제정과 형법상 정당 활동 금지 규정(형법 제172조는 20인 이상의 집회, 가두시위, 정치 선전 및 정당 결성을 범죄로 규정)의 개정 및 1977년 2월 정치단체 등록제 실시 등으로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1977.4월 ‘국민운동 해체’)
- 2017년 기준 내무부에 등록된 정당은 약 4,700개(지역정당 및 특수정당 포함)

나. 주요 정당 현황

1) 사회노동당(PSOE : 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 2018.6월부터 집권)

- 성 향 : 중도좌파
- 창 당 : 1879년(프랑코 치하인 1937~1977년간은 활동 금지)
- 지도자
 - 당수 : 크리스티나 나르보나 루이스(Cristina Narbona Ruiz)
 - 사무총장 : 페드로 산체스 페레스(Pedro Sánchez Pérez) (현 총리)
 - ※ 사회노동당에서는 사무총장(secretario general)이 당의 실질적인 대표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수(presidente)는 전당대회 주재 등 상징적인 대표 역할만 수행
- 정당 정책
 - 정 치 : 사회민주주의 추구, 테러 방지 및 군통수권 강화
 - 경제·사회 : 기업의 자율적 사회화, 교육 혜택 불균형 시정, 시민 자유 신장, 사회적 소수 계층 권익 보호(동성결혼 및 낙태 허용 등)
 - 외 교 : EU와의 관계 강화, 대등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지브롤터 주권 회복, 유럽 지역 균형 지지

2) 국민당(PP : Partido Popular)

- 성 향 : 중도우파
- 창 당 : 1989년 (전신인 AP는 1976년 창당)
- 당 수 : 파블로 카사도(Pablo Casado)
 - 정 치 : 군주제 강화, 정치안정
 - 경제·사회 : 기업 자유 활동 인정, 고용 극대화, 사회보장제 확립, 공공지출 통제
 - 외 교 : 민족적 통일성과 국가 이익을 보장하는 명예로운 국제사회 참여, 세계 중심 국가와의 관계 강화, 중남미 지역과의 협력 관계 강화, 국제기구에서의 능동적 활동

3) 시민당(Ciudadanos)

- 성 향 : 중도우파(중도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중도우파 성향)
※ 카탈루냐 지방당으로 창당되었으나, 2014년 이후 스페인 전역으로 세력 확장
- 창 당 : 2006년
- 당 수 : 알베르 리베라(Albert Rivera)
- 정당 정책
 - 정 치 : 국가 통합, 지역 간 권리·의무 평등화
 - 경제·사회 : 국민복지 확대, 기간제 고용 축소를 위한 단일고용계약제 도입, 세금 인하, 교육기관의 자율성 확대
 - 외 교 : EU 통합, 중남미와의 전략적 동반자 지위 강화, 스페인의 국제적 위상 제고

4) 포데모스(Podemos)

- 성 향 : 좌파
- 창 당 : 2014년
- 당 수 : 파블로 이글레시아스(Pablo Iglesias)
- 정당 정책
 - 정 치 : 정치특권층 부패 청산, 주정부의 자치권 확대
 - 경제·사회 : 공공의료서비스 등 국민복지 확대, 최하위계층 경제 지원 확대, 부유세·사치세 확대, 최저임금 인상, EU 긴축정책 반대
 - 외 교 : 유럽연합 개혁 조약 폐기, 평화적 대테러 정책 추진

5) 복스당(VOX)

- 성 향 : 극우파
- 창 당 : 2013년 (국민당(PP) 탈당파 주축으로 창당, 2018.12월 지방의회 최초 진출, 2019.4월 원내 진출)
- 당 수 : 산티아고 아바스칼(Santiago Abascal)
- 정당 정책
 - 정치 : 주정부 자치권 축소(중앙집권체제 강화), 카탈루냐 분리독립 반대, 정치특권층 부패 처벌 강화, 포용적 이민정책(이민자, 난유입) 반대
 - 경제·사회 : 소득세·부가세 축소, 공공기관 통폐합, 낙태법·성전환법 강화, 가정폭력 방지법 폐지, 아동 백신 예방접종 의무·무료화, 공공의료서비스 및 교육 중앙통합
 - 외교 : 유럽 내 영향력 확보, 자국 이익에 반하는 국제기구 탈퇴, 투자관리를 위한 중남미 국가와의 국제협력 국가계획 추진

6) 카탈루냐공화당(ERC : Esquerra Republicana de Catalunya)

- 성 향 : 카탈루냐 지방당으로서 궁극적으로 동 지역의 독립과 공화제를 추구하는 좌익 정당
- 창 당 : 1976년
- 당 수 : 오리올 용케라스(Oriol Junqueras)

7)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 : Partit Demòcrata Europeu Català)

- 성 향 : 카탈루냐 지방당으로서 카탈루냐 독립 추구
- 창 당 : 2016년 (1974년 설립 CDC(카탈루냐민주통합당)이 전신)
- 당 수 : 다비드 본베이(David Bonvehí)

8) 바스크민족주의당(PNV : Partido Nacionalista Vasco)

- 성 향 : 바스크 지역의 지방당으로서 궁극적으로 분리독립을 희망하나, ETA의 테러 방식에는 반대
- 창 당 : 1895년
- 당 수 : 안도니 오르투사르(Andoni Ortuzar)

6 사법부

※ 1978년 12월 제정 신헌법에 따라 사법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사적 분야의 재판은 엄격히 군사재판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할권 독립의 원칙이 법원의 조직과 기능의 기초를 이루도록 규정

가. 사법부총평의회 (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

- 사법부의 최고 총괄기관으로서, 1인의 의장과 20인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5년)
 - 의 장 : 헌법상 대법원장이 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사법부총평의회의 제청으로 국왕이 임명
 - 20인의 위원 : 상·하원이 각 10명의 의원을 제청하여 국왕이 임명하며, 각급 판사 및 법관 12명, 15년 이상 법조계에 종사한 변호사 및 법학자 8명으로 구성(상·하원 의석의 5분의 3 이상을 다수결 방식으로 선출)
- 스페인의 최고 사법 의결기구로 대법원장의 제청, 법관의 임명·승진·교육·징계 등 전반적인 사법 행정 기능을 담당하며, 사법자료센터와 사법연수원 등이 산하 기관

나. 대법원(Tribunal Supremo)

1) 기능

- 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상급법원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및 상고 불가능
 - 단, 기본권 침해 경우 헌법재판소에 상고 제기 가능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정부의 청구를 통해 정당의 불법성에 대한 재판 담당
 - 또한 행정부 수반이나 각료, 상·하 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사법총평의회 위원,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및 기타 국가와 광역자치주의 고위인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민·형사 사건을 단심으로 판결

2) 조직

- 대법원장은 사법부총평의회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
 - 대법원장 : 카를로스 레스메스 세라노(Carlos Lesmes Serrano) (2013~)
 - 부대법원장 : 앙헬 후아네스 페세스(Ángel Juanes Peces) (2014~)

- 5개 재판부(민사·형사·행정·노동·군사)로 구성되며, 각 재판부는 재판장과 10~12명의 판사로 구성
- 대법원 행정부(Sala de Gobierno) : 대법원의 적절한 운영과 각 재판부 간 합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대법원의 최고행정기구로 대법원장, 부대법원장, 5개 재판부 재판장 및 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다. 국가고등법원(특수법원, Audiencia Nacional)

- 수도 마드리드 소재
- 형사부, 행정소송부, 노동부로 구성되며 스페인 전역에 대한 관할권 보유
- 특히 형사부는 왕실·정부 조직 대상 범죄와 테러, 마약 밀매, 화폐 위조 등 조직범죄를 담당. 스페인 전국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스페인이 관할권을 소유한 국제범죄를 담당

라. 광역자치주 최고법원(Tribunal Superior de Justicia)

- 광역자치주 내 민사·형사·행정·노동재판을 담당
- 스페인 17개 광역자치주에 소재하며, 세우타와 멜리야 자치시의 경우 안달루시아주에서 관할
 - ※ 광역자치주(법원 소재지) : 안달루시아(Granada), 아라곤(Zaragoza), 아스투리아스(Oviedo), 발레아레스(Palma de Mallorca), 카나리아(Las Palmas de Gran Canaria), 칸타브리아(Santander), 카스티야 이 레온(Burgos), 카스티야 라만차(Albacete), 카탈루냐(Barcelona), 발렌시아(Valencia), 엑스트레마두라(Cáceres), 갈리시아(La Coruña), 리오하(Logroño), 나바라(Pamplona), 바스크(Bilbao), 마드리드(Madrid), 무르시아(Murcia)

1) 민사재판부

- 자체 특별법을 보유하며 자치조례를 통해 이를 규정하고 있는 광역자치주에 한하며, 특별법 위반 관련 민사재판에 대한 파기형 항소 및 재심형 항소 사건 담당
 - ※ 광역자치주 특별법 보유 지역 : 아라곤, 발레아레스, 카탈루냐, 갈리시아, 나바라, 바스크
- 법에 의거한 중재 및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승인 기능
 - 유럽연합의 조약이나 규정에 따라 재판이 다른 법원에 위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 주정부의 수반과 각료, 주의회 의원, 지방법원 법관들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민사사건 단심
- 광역자치주 소재 민사 사법기구에 대한 권한쟁의

2) 형사재판부

- 각 광역자치주의 자치조례에 의거, 광역자치주 최고법원이 관할하는 형사사건
- 광역자치주 소재 법원의 법관·판사·검사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형사 1심
- 지방법원의 형사 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
- 광역자치주 소재 형사 사법기구에 대한 권한쟁의

3) 행정재판부

- 광역자치주 행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행위와 관련된 항소사건
- 광역자치주 의회, 감사기관, 옴부즈맨의 인사, 행정, 자산관리에 관련된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사건
- 광역자치주 및 지방 선거위원회의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사건
- 광역자치주 행정기관 간 합의에 대한 항소사건
- 광역자치주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 광역자치주 소재 행정법원 간 권한쟁의

4) 노동재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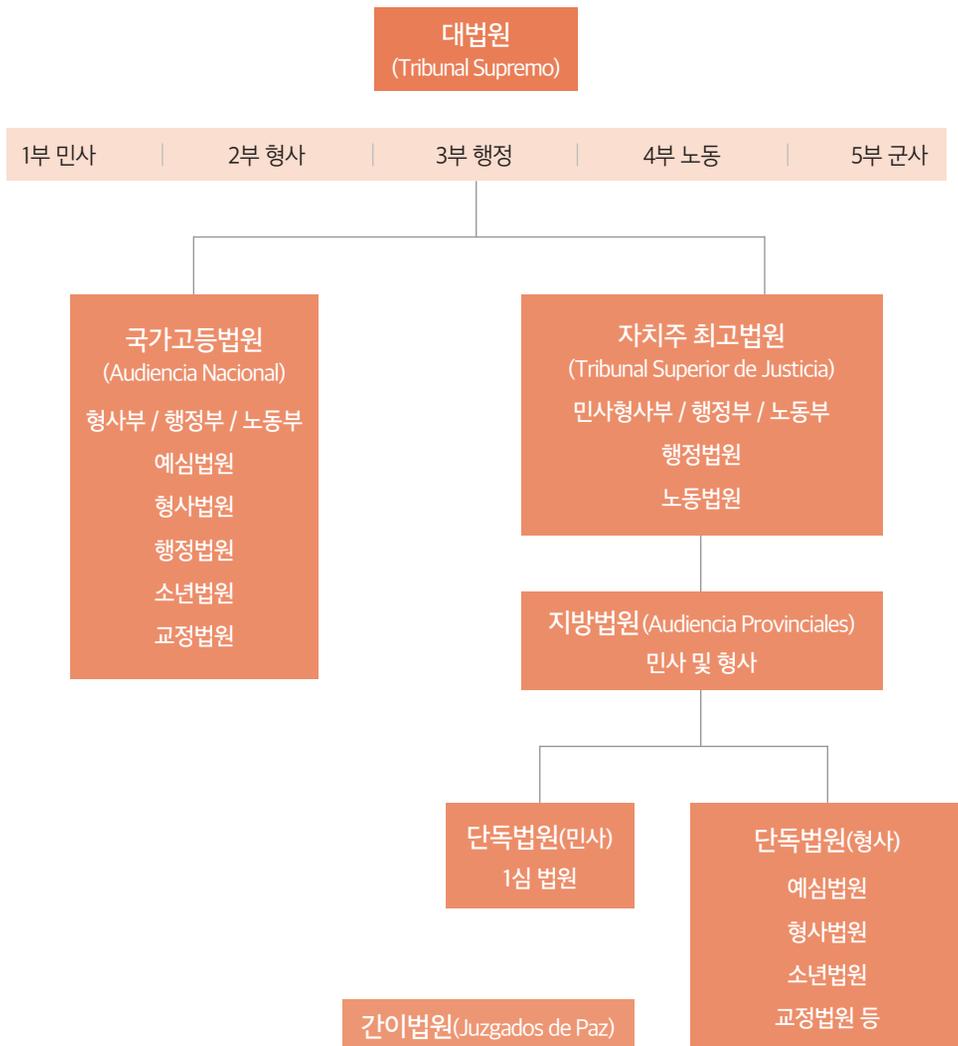
- 광역자치주 노동법원 관할을 벗어나는 노사분쟁사건에 대한 항소사건 단심
- 광역자치주 노동법원 및 노사 관련 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 광역자치주 소재 노동법원 간 권한쟁의

마. 지방법원 (Audiencia Provincial)

- 전국 50개 도에 설치되어 민사 및 형사 재판만을 담당하며, 각 재판부마다 3~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1심 단독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을 다루고, 형사사건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의 1심 및 예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 관할

바. 단독법원(Juzgado)

- 1심 및 예심법원, 상사법원, 여성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노동법원, 교정법원, 소년법원이 있으며, 수도 마드리드에는 중앙법원(예심·형사·행정·소년) 설치
- 단독법원이 없는 시·군의 경우 단독법원 내 간이법원(Juzgado de Paz)을 두고 해당 시·군 지역을 관할



7 헌법재판소

가. 주요 권한

- 국가 동의 전 조약, 발효 전 법률, 명령, 규칙 등의 위헌 여부 심판
-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헌법 조항 해석 및 기본권 보호
-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 간,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간 헌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나 관할권에 대한 쟁의 심판
- 지자체 결정과 조례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기한 이의신청 심판

나. 구성

- 헌법재판소장 및 부소장 : 12명의 헌법재판관이 비밀투표로 선출, 절대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재판관을 국왕에게 임명 제청
- 헌법재판관 : 상원 및 하원에서 각 4명, 내각과 사법부총평의회에서 각 2명씩 제청하고 국왕이 임명

다. 임기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3년, 1회 재임 가능
- 부소장의 임기는 3년
-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 불가, 3년마다 1/3씩 교체

라. 주요 인사

- 헌법재판소장 : 후안 호세 곤살레스 리바스(Juan José González Rivas)
- 헌법재판부소장 : 엔카르나시온 로카 트리아스(Encarnación Roca Trías)

8 검찰 및 경찰 제도

가. 검찰 제도

- 스페인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공채로 선발된 직업검사(Fiscal)로 구성
 - 검찰총장(Fiscal General del Estado)은 정부(법무장관)의 제청과 사법부총평의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의 동의를 얻어 국왕이 임명
- 각급 검찰별 임무에 따라 헌법재판 담당 검찰부, 고등법원 담당 검찰부, 마약사법 담당 검찰부 등이 있으며, 17개 광역자치주에 고등검찰부, 36개 주요 도 정부 소재지에 지청 소재

나. 경찰 제도

1) 스페인 경찰의 자치경찰 도입 배경

- 각 지역별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던 경찰 기구를 헌법 및 경찰조직법에서 재확인하여 자치경찰로 정착
- 스페인 경찰 연혁
 - 1690년 카탈루냐 지방(바르셀로나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문직 경찰기구를 창설, 현재의 카탈루냐주 자치경찰인 모소스 데스콰드라(Mossos D'esquadra) 주경찰의 모태가 됨.
 - 시대 상황에 따라 자치 및 국가경찰 성격의 여러 경찰 조직이 형성되어 오다가 프랑코 총통 시대인 1940년 3월 법률을 제정하고 경찰 개혁을 단행하여 국가경찰로 통합
 - 프랑코 총통 사망 이후 1978년 헌법에 의거한 경찰재조직법에 따라 국가경찰을 재편하고 자치경찰 부활
 - 1986년 3월 새롭게 제정된 경찰조직법(Ley Orgánica de Fuerzas y Cuerpos de Seguridad del Estado)에 근거, 국가경찰·자치경찰로 경찰 조직과 권한을 재정립

2) 스페인 경찰 조직(국가-자치경찰의 관계, 지휘 체계 등)

- 스페인은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며, 국가경찰은 국립경찰(Policía Nacional)과 민경대(군경찰, Guardia Civil)로 구분되며, 자치경찰은 광역 단위 주경찰과 기초 단위 시경찰로 구분

- 국가경찰은 인구 기준 2만 명 이상은 국립경찰이, 그 이하는 치안대가 담당하며 각자 경찰의 기본 기능 수행
 - 기능적으로 국립경찰은 신분증·여권 발급·출입국관리 등에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고, 치안대는 무기·폭발물 관리, 도시 간 교통관리 등에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으나, 범죄수사·정보 활동 등은 양 기관 공히 전국적인 관할권 보유
- 17개 광역자치주 가운데 7개 주가 조례에 주 자치경찰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4개 주(카탈루냐, 바스크, 나바라, 카나리아)에 주경찰이 창설되어 카탈루냐주와 바스크주의 경우 국가경찰을 대체하고, 나바라주의 경우 국가경찰과 이원적인 형태로 주경찰 운영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명령-지휘 체계라기보다 상호 협력 관계이며, 업무 분장 등 갈등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인사와 지방정부 인사가 고루 참여한 위원회를 통해 업무 조정
 - 상호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와 광역자치주 간의 치안 정책을 조율하는 '치안정책심의회'와 그를 기술적·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 운영

9 지방자치제도

가. 개요

- 헌법은 행정구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1983년 이래 스페인은 17개 광역자치주(Comunidad Autónoma)로 구성되어 왔으며, 1995년 아프리카 대륙의 세우타(Ceuta)와 멜리야(Melilla)를 자치시(Ciudad Autónoma) 형태로 추가
 - 15개 주는 이베리아 반도 내에 위치하고, 2개 주는 각각 발레아레스 제도 및 카나리아 제도에 위치
- 지방행정구역(17개 광역자치주+2개 자치시)

행정구역	인구(명)	행정구역	인구(명)
안달루시아	8,384,408	엑스트레마두라	1,079,863
아라곤	1,308,728	갈리시아	2,701,743
아스투리아스	1,028,244	마드리드	6,578,079
발레아레스	1,128,908	무르시아	1,478,509
카나리아스 제도	2,127,685	나바라	647,554
칸타브리아	580,229	바스크	2,199,088
카스티야 이 레온	2,409,164	리오하	315,675
카스티야 라 만차	2,026,807	세우타	85,144
카탈루냐	7,600,065	멜리야	86,384
발렌시아	4,963,703	스페인 전체	46,722,980

출처 : 스페인 통계청(INE, 2018.1월)

나. 구성

- 스페인 헌법 제2조는 각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 및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의 영토 구조에 관한 헌법 제8장은 스페인의 영토 구조를 ①국가 또는 중앙정부, ②자치정부, ③지방정부로 규정

- 스페인의 행정구역은 광역자치주(Comunidad Autónoma), 도(Provincia) 및 시·군(Municipio) 등 3개 형태로 구분
 - 현재 17개 광역자치주와 2개 자치시, 50개 도 및 8,124개의 시·군이 있으며, 각 주에는 주도 소재
 - 지방행정 기본 단위는 시·군(Municipio)이며, 규모에 따라 마드리드·바르셀로나 등 대도시는 몇 개의 구(Districto)로 구분

다. 중앙정부 및 주정부 권한 관련 법령

- 기본적으로 헌법 제148조(주정부가 관할할 수 있는 분야) 및 제149조(중앙정부의 배타적 권한)에 따라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권한 및 관할 분야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동 협의 후 중앙정부는 자치법(Estatuto de Autonomía)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하원에서 승인을 받고, 주정부는 자치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법률화하는 과정을 거침.
- 관할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가능
 -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할하는 영역
 -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나, 광역자치주에 의해 동 법률이 집행되는 영역
 - 국가가 기본 법안을 가결하나, 광역자치주에 의해 입법 개발이 이루어지고 법률이 집행되는 영역
 - 광역자치주가 독점적으로 관할하는 영역

라. 주요 이양 권한

- ▲보건 ▲대학 및 비대학 교육 ▲사회복지 ▲주택 ▲노동·고용·직업훈련에 관한 공공고용서비스(SEPE) 운영 권한은 주정부로 100% 이양
 - ※ 세우타 및 멜리야 자치시에는 주택 부문 권한만 이양
- 사법 관련 권한은 현재까지 12개 광역자치주에만 그 권한이 이양되었으며, 이는 사법권이 아닌 사법행정에 필요한 물질적·인적 자원(재판관 판사 등)을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한
 - ※ 안달루시아, 아라곤, 아스투리아스, 카나리아 제도, 칸타브리아, 카탈루냐, 발렌시아, 갈리시아, 마드리드, 나바라, 바스크, 리오하 총 12개 주

마. 중앙정부-주정부 간 협력

- 국가와 광역자치주 간 권한 교차와 행정업무상 다양한 부문에서의 책임 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분권 시스템의 일관성 보장 ▲업무·기능의 중복 회피 ▲다양한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 보장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 추진
-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은 크게 ▲중앙정부, 17개 광역자치주 및 2개 자치시 간 협력체인 다자회의와 ▲중앙정부 및 각 광역자치주 간의 양자회의로 구분

바. 지방재정

- 스페인 주정부는 국가로부터 이전받은 재원과 주정부에 재분배되는 기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현행 광역자치주의 재원조달 시스템은 ▲일반체제 및 ▲특별체제 두 가지로 구분
- 일반체제(바스크·나바라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주)
 - 중앙정부로부터 주정부로 이전된 재원 : 자산 양도 및 인지세, 상속·증여세, 게임세 및 양도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 주정부가 직접 징수 : 특정탄화수소 소매판매세, 특정교통수단세
 - 국세청(Agencia Estatal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이 징수해 매달 해당 광역자치주에 전달 : 전력세, 개인소득세(50%), 부가가치세(50%), 특별세(58%, 알코올·담배 등) 등
 - 기본공공서비스 보장기금(Fondo de Garantía de Servicios Públicos Fundamentales) : 모든 광역자치주가 기본공공서비스(교육·보건·사회복지) 재원 조달을 위하여 인구 기준에 따라 수령
 - 상기 외에도 다양한 기금 존재
- 특별체제(바스크·나바라) : 경제협정(Concierto Económico) 및 경제협약(Convenio Económico)이라는 시스템에 기반한 자율적 조세·재정 시스템 운영
 - 바스크주와 나바라주는 조세 제도에 관한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수입관세 ▲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에 대한 부과금(일정 금액을 분담금의 형태로 국가에 지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 세금을 직접 징수하고 관리

PART 4

최근 정치 정세

1.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민당 정부의 두 차례 집권(2004~2018)
2. 라호이 총리 불신임안 통과로 사회노동당 정부 출범(2018.6월)
3. 조기총선(2019.4.28) 이후 정부 구성 동향
4. 기존 양당 체제에서 5당 체제로 변화
5.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



1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민당 정부의 두 차례 집권(2004~2018)

- 2004년에 이어 2008년 총선에서도 사회노동당이 승리함에 따라 2008년 4월 사파테로 2기 정권이 출범하였으나,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발생한 스페인 경제위기 속에서 2011년 11월 조기총선을 통해 보수 국민당 정부 탄생

※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제위기 발생, 마이너스 성장 기록(2009년 -3.7%, 2010년 -0.1%)

2011년 11월 조기총선 결과

정 당	의 석 수	
	상원(266석)	하원(350석)
국민당(PP)	166	186
사회노동당(PSOE)	66	110
카탈루냐공화당(ERC-CATSI)	-	3
바스크민족주의당(PNV)	5	5
좌파연합(UP-IU)	-	11
바스크정치연합(EH Bildu)	3	7
카탈루냐통합당(CiU)	13	16
진보민주연맹(UPyD)	5	5
기 타	8	7

- 라호이 정부의 강력한 긴축정책 및 구조조정에 힘입어 2013년 12월 EU 은행권 구제 금융 졸업, 2013년 무역수지 흑자 전환, 2014년 플러스 성장 등 경제회복 국면에 돌입
 - 2014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스페인은 일부 동유럽 국가와 함께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EU 국가로 기록
 - 반면, 강력한 구조조정 및 개혁으로 인해 지지도는 하락

- 2015년 12월 20일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 국민당이 승리하였으나 과반 확보에는 실패, 정당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부 구성에 실패하여 2016년 5월 2일 의회 해산
 - 동 총선 결과 기존 양당(국민당·사회노동당) 체제에서 신생 정당인 급진좌파 포데모스 연합과 중도우파 시민당이 3·4당을 차지하여 4당 구도 체제 수립 및 정치적 세대교체 실현
- 2016년 6월 26일 2차 총선에서도 국민당은 여전히 과반 확보에 실패하였으나 같은 보수세력인 시민당과의 연대 및 3차 총선을 막기 위한 사회노동당 내부 분열 등으로 2016년 10월 29일 의회에서 라호이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 1년 남짓의 정부대행 체제 후 2016년 11월 3일 국민당 2기 소수정부 출범
 - ※ 하원 과반 의석(350석 중 176석)에 못 미치는 국민당(137석)은 매번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국정운영 불가피

2016년 6월 총선 결과

정당	2016년 6월		2015년 12월		증감
	의석	득표율(%)	의석	득표율(%)	
국민당(PP)*	137	32.94	123	28.71	+14
사회노동당(PSOE)	85	22.78	90	22.02	-5
포데모스연합(Unidos Podemos)	71	21.13	71	24.32	
시민당(Ciudadanos)	32	12.96	40	13.93	-8
카탈루냐공화당(ERC)	9	2.63	9	2.39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	8	2.01	8	2.26	
바스크민족주의당(EAJ-PNV)	5	1.25	6	1.21	-1
바스크정치연합(EH Bildu)	2	0.8	2	0.87	
카나리아연합(CCA-PNC)	1	0.28	1	0.32	

* 2015년 12월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당이 다시 제1당을 차지하면서도 과반 의석(176석) 확보는 실패

가.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통과

- 라호이 총리는 3%대 경제성장 달성 및 고용 증가 등 경제위기를 극복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2016년 집권 2기부터 소수정부로서의 한계 ▲‘구르텔 사건’ 등 국민당 소속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부패사건 발생 ▲카탈루냐 분리독립 대응 관련 정치적 부재 등으로 국민들의 지지 하락

※ 구르텔 사건(Caso Gürtel)

- 지난 1999~2005년간 국민당의 총선 및 지방선거 시 기업인들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국민당 중앙지도부, 발렌시아 지도부 및 마드리드 지도부 인사 무더기로 기소
- 국가고등법원은 2018년 5월 루이스 바르세나스 전 국민당 재정담당 징역 33년, 기업인 프란시스코 코레아 징역 51년, 헤수스 세폴베다 전 국민당 선거위원장 징역 14년, 파블로 크레스포 전 갈리시아 국민당 사무총장 징역 37년 등 총 29명에게 유죄 선고

※ 위 사건 외에도 푸니카 사건(국민당 마드리드 지도부 인사들의 공공 계약 특혜 제공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레소 사건(전 마드리드 주지사의 수도공사 자금 유용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마드리드 주지사 및 주의원 학력위조 사건 등 국민당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 사건 발생

- 이에 2018년 5월 말 제1야당 사회노동당의 발의로 하원에서 실시된 라호이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동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한 사회노동당의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대표가 신임 총리로 취임(2018.6.2)

나. 사회노동당 산체스 정부 출범

- 신임 산체스 정부는 정부 조직 개편 및 신임 내각 임명을 통해 ‘안정 지향적’ 메시지를 국내 및 EU에 표명
 - 정당성 비판에 맞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사들을 내각에 포진시켜 안정성 강화에 주력하고, 신임 내각 구성을 통해 보다 중도적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 ‘중도좌파’로서의 기반 재확립
- 양성평등 정부 출범 및 사회적 평등 지향
 - 평등, 사회 통합, 사회 혁신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 스페인 역사상 최초로 여성 장관(11명)이 남성 장관(6명) 수보다 많은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확고한 의지 천명

- 산체스 총리는 평소 유럽주의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천명해 온바, 세 명의 장관을 EU 업무 경력자로 지명함으로써 친EU 및 EU 내 위상 강화 추진
 - 보렐 외교장관 : 유럽의회 의장(2004~2007)
 - ※ 기존 외교협력부 명칭을 외교EU협력부로 변경
 - 칼비뇨 경제장관 : EU 집행위 예산국장(2014~2018)
 - 플라나스 농수산식품장관 : EU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2014~2018)

다. 산체스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및 방향

- **(개혁 추진)** 산체스 총리는 국민당 정부가 통과시킨 노동법(2012) 및 시민안전법(2015) 폐기 등 신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식 미보유로 동 개혁을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면서, 하도급 기업의 노사관계 불안정을 촉진하는 일부 조항 폐기 추진
 - ※ 국민당 정부 노동법 : 근로자의 임금 조정 허용 등 기업의 고용 유연성 확대,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축소, 신규 정규직 고용 계약 촉진, 임시직 고용 확대 억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및 고용안정 촉진을 목적으로 실시
 - ※ 시민안전법 : 사전 허가 없는 집회금지, 상·하원 등 국가기관 주변에서의 집회금지 등이 포함된 법령으로, 표현의 자유와 시위의 자유라는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이라는 비판 존재
- **(연금 및 조세제도)** 산체스 총리는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금 지출 합리화, 조세신용제도 검토, 사회공헌비용 한도 폐지, 새로운 세금 도입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 **(성평등 정책)**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제고, 임금 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약속
- **(난민 위기)** 산체스 총리는 EU가 회원국 간 공동입장을 구축하고 난민 발생국 및 통과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스페인은 국경을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나 난민 유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
 - 난민구조선 아쿠아리우스호의 입항 허가가 난민의 스페인 유입 확대를 부추기는 '유인 효과(efecto llamada)'가 될 것이라는 비판과 관련, 산체스 총리는 동 결정이 'EU 공동 연대에 대한 호출'이 될 것이라고 강조
- **(프랑코 총통 유해 이전)**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이 갖고 있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역사기억법(Ley de Memoria Histórica) 개혁 및 프랑코 총통 유해 이전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 하원에서 통과(2018.9월)
 - ※ 역사기억법 : 스페인 내전 및 프랑코 독재 시기의 과거사 규명을 위해 2007년 사파테로(Zapatero) 전 총리의 사회노동당 정부가 발의하여 통과된 법안으로, 당시 야당인 국민당은 내전의 상처를 들춰내는 법안이라며 반대

- (카탈루냐 분리독립) 산체스 총리는 킴 토라(Quim Torra) 카탈루냐 주지사와 첫 회담을 개최(2018.7.6)하고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을 강조
 - 상기 회담은 스페인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시작으로 평가되나, 카탈루냐 자결권을 놓고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상반된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

3 조기총선(2019.4.28) 이후 정부 구성 동향

- 국민당 라호이 총리 불신임안 통과 시 지원군 역할을 한 카탈루냐 지역 정당들은 산체스 총리 취임 이래 약점으로 작용해 온바, 산체스 정부의 카탈루냐측과의 대화 노력에 대해 국민당 등 우파 정당들은 산체스 총리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카탈루냐 분리독립 세력과 협상하려 한다고 비난
- 산체스 정부의 예산안 통과 문제를 협상의 유리한 카드로 쥐고 있던 카탈루냐 지역 정당들은 산체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예산안 표결(2019.2.13)을 앞두고 예산안 전면수정안(Enmiendas a la totalidad) 제출
- 2019년 2월 하원에서 산체스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의 전면수정안에 대한 표결(산체스 정부 예산의 수용 여부 결정) 결과, 예산안 전면 수정, 즉 정부 예산안에 대한 반대가 총 350표 중 191표를 얻어(찬성 158표, 불참 1표) 예산안 최종 부결
 - ※ 상기 예산안을 반대한 정당으로는 동 예산안에 대해 전면 수정안을 제출한 6개 정당, 즉 국민당, 시민당, 카탈루냐공화당(ERC),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 아스투리아스 포럼당, 카나리아연합당 외에도 UPN당, EH Bildu당도 포함
- 소수당으로서 국민당 라호이 총리에 대한 하원 불신임안 통과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중도좌파 사회노동당(PSOE) 산체스 정부는 라호이 정부보다 더욱 소수 정부라는 한계(총 350석 중 기존 국민당 의석이 134석인 데 비해 사회노동당은 84석), 불신임안 통과를 위한 카탈루냐 지역 정당과의 연대로 인한 정치적 부담, 예산안 하원 통과와 지속적 좌절 등으로 조기총선 실시(4.28)
 - ※ 산체스 총리는 2018년 6월 1일 라호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 시 “사회노동당 정부는 정부 정상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만 임기를 유지할 것”이며, “라호이 전 총리의 잔여 임기 기간인 2020년 6월 이전 조기총선을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입장을 변경함으로써 정치적 비판의 빌미 제공

- 조기총선 결과,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이 하원 총 350석 중 123석을 확보하여 제1당으로 등극하였으나, 의석 절대과반수(176석) 확보에 실패, 산체스 총리 재임을 위해서는 정당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

4.28 조기총선 하원 개표 결과

정 당	2019.4월 의석수	2016.6월 의석수
사회노동당(PSOE)	123	84
국민당(PP)	66	134
시민당(Ciudadanos)	57	32
포데모스연합	42	67
VOX당	24	-
카탈루냐공화당(ERC)	15	9
카탈루냐유럽민주당(PDeCAT)	7	8
바스크민족주의당(PNV)	6	5
바스크정치연합(EH Bildu)	4	2
까나리아연합(CC)	2	1
나바라연합(NA+)	2	2
발렌시아 Compromis당	1	4
칸타브리아 지역정당(PRC)	1	-

- 그러나 1차 투표(7.23) 및 2차 투표(7.25)에서 산체스 총리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 산체스 총리 후보 재선출을 위해서는 같은 좌파 진영인 포데모스연합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양당은 마지막까지 장관직 배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합의 도출에 실패
- 총리 후보 임명 동의안에 대한 2차 투표가 부결됨에 따라 스페인 헌법에 따라 정당 간 조율을 위해 1차 투표일(7.23)로부터 두 달의 기한(9.23)이 주어졌으나, 동 기간에 정부 구성에 실패하여 오는 11월 10일(일) 재총선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스페인 정국의 불안정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

- 사회노동당과 포데모스당은 공히 좌파 진영에 속해 있으나 ▲중도좌파 노선을 통해 지지세를 확대하려는 사회노동당과 최저임금,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등 좀 더 과감한 좌파 정책을 추진하는 포데모스당 간의 이념 성향 차이 ▲카탈루냐 독립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포데모스당은 카탈루냐의 자결권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지지)가 정부 구성 문제를 계기로 부각되면서 양당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4 기존 양당 체제에서 5당 체제로 변화

- 2008년 사회노동당 집권 시 발생한 스페인 경제위기 및 2011년 집권 국민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단행한 긴축정책·구조조정 등에 대한 국민적 불만 확산, 연이은 기성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로 스페인 정치 변화에 대한 열망이 기존의 국민당-사회노동당 양당 체제를 붕괴시킨 배경
 - 기존 약 40년간의 양당 체제 하에서 누적된 진보-보수 진영 간 사회 양분화, 각 진영 내 부조리와 부패 만연에 대항하여 정치적·사회적 이념의 스펙트럼을 확대하고 정치인에 대한 세대교체 촉진
- 포데모스당 창당 및 약진
 - 2014년 1월 파블로 이글레시아스(Pablo Iglesias) 마드리드 국립대 교수를 중심으로 ▲EU의 긴축정책 반대 ▲국민복지 확대 ▲기성 정치권의 부패 청산 등을 내걸고 포데모스(Podemos,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뜻의 스페인어) 신당 창당
 - 창당 4개월 만인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5석(지지율 약 8%)을 확보, 2015년 5월 지방선거에서 5개 주요 도시(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사라고사, 아코루냐, 까디스)에서 승리하는 등 창당 직후 돌풍의 주역으로 부상
 - 2015년 12월 총선에서도 350석 중 69석(약 20% 지지율)을 확보, 원내 3당을 차지함으로써 기존 국민·사회 양당 체제 붕괴
 - 정당 간 정부 구성 협상 실패로 인해 재 실시된 2016년 6월 총선에서도 좌파연합과 연대하여 71석 확보(지지율은 다소 하락 : 24%→21%)
 - 그러나 포데모스당의 다소 급진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정책은 현실 정치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웠는데, 2019년 4월 조기총선에서는 42석 확보에 그치는 등 국민들의 지지세 감소

- 시민당의 성장
 - 카탈루냐 민족주의 반대를 표명하는 지역정당인 '카탈루냐 시민연단'을 전신으로 2006년 창당된 시민당은 당시 만 26세의 나이로 시민당 대표로 선출된 알베르 리베라(Albert Ribera) 현 당수를 주축으로 카탈루냐의 스페인 통합을 위해 활동
 - 시민당은 카탈루냐 분리독립에 대한 대응책이자 스페인의 통합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함으로써 스페인 잔류를 원하는 주민들의 지지를 획득, 2015년 9월 카탈루냐 주의회 선거에서 17.89%(135석 중 25석)의 득표율 기록
 - 이어서 치러진 2015년 12월 총선에서 하원 40석을 획득하고, 2016년 6월 총선에서는 하원 32석을 확보하면서 전국정당으로 발전
 - 또한 카탈루냐 분리독립 움직임 격화에 따라 라호이 정부에서 주정부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헌법 155조를 발동한 후 2017년 12월 치른 카탈루냐 주의회 조기총선에서 135석 중 37석을 획득(27.4%), 카탈루냐 주의회 제1당으로 부상
 - 2019년 4월 총선에서는 57석을 확보하여 당세를 확장하였는바, 이는 기존 집권당인 국민당에 실망한 보수 성향의 표심을 같은 우파 성향의 시민당이 흡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극우 VOX당의 제도권 진출
 - 여타 유럽 국가들과 달리 스페인에서는 그동안 극우 정당의 의회 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8년 12월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극우 VOX당이 12석을 획득, 제도권에 진출
 - 또한 2019년 4월 총선에서 24석을 확보, 첫 원내 진출에 성공
 - 극우 정당인 VOX당의 부상은 카탈루냐 분리독립 갈등 심화 및 난민 유입 증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VOX당의 원내 진출로 인해 5당 체제 구축

5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

가. 배경

-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 카탈루냐는 전체 인구의 15%(750만 명) 및 면적의 6.3%만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경제(자동차·화학산업 등 밀집)에서 2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부유한 지역으로 독립 성향 보유
- **(역사적 갈등과 언어적 차이)** 역사적으로 카탈루냐는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독자적인 자치권을 누려 왔으며, 스페인 내전(1936~1939) 시 카탈루냐의 지도자들이 공화파 및 좌파 세력에 합류하여 프랑코측에 저항하면서 프랑코 총통의 집권 시 자치권 박탈 및 카탈루냐어 사용 금지 등 탄압 정책 실시
- **(경제위기에 따른 정치적 환경 변화)** 2009년 스페인의 경제위기를 계기로, 카탈루냐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정치적 세력의 지지기반 확대

나. 최근 동향

- 카탈루냐 분리독립 움직임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2010년부터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두 차례 실시된 카탈루냐 주의회 선거(2015.9월, 2017.12월)에서 분리주의 성향의 정당들이 승리하여 중앙정부를 상대로 분리독립 지속 추진 중

카탈루냐 주의회 현황 (2017.12월 카탈루냐 주의회 조기총선 결과)

구 분		2017년 선거 결과		2015년 선거 결과
분리주의 성향	카탈루냐와 함께 (Junts per Catalunya)	70석	34석	62석
	카탈루냐공화당(ERC)		32석	
	국민통합당(CUP)		4석	
통합주의 성향	시민당(Ciudadanos)	57석	37석	25석
	카탈루냐사회당(PSC)		17석	
	국민당(PP)		3석	
기 타	카탈루냐 좌파-포데모스연합 (Catalunya en Comú-Podem)	8석		11석

- ※ Junts per Catalunya : 2017년 12월 카탈루냐 자치주 선거를 위해 PDeCAT(카탈루냐유럽민주당, 푸지데몬이 이끌었던 정당)이 창설한 새로운 선거용 명칭
- ※ Catalunya en Comú-Podem : 2017년 12월 카탈루냐 자치주 선거를 위한 '포데모스(Podemos)'와 'Catalunya En Comú(좌파연합)'의 새로운 선거연합.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자체에는 반대하나, 민주적 자결권 보장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에는 찬성하는 입장
- 2015년 9월 실시된 카탈루냐 주의회 선거에서 '찬성을 위해 함께(Junts pel Si)'당 등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추진하는 분리주의 정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총 의석 135석 중 72석 확보, 득표율은 48%)하고, 2016년 1월 '찬성을 위해 함께'당 소속 푸지데몬(Puigdemont)이 카탈루냐 주지사로 선출
 - 푸지데몬 정부는 마스(Mas) 전 카탈루냐 주지사의 분리독립 로드맵을 계승, 18개월 이내 카탈루냐 임시헌법 제정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계획 발표
 - ※ 2016년 7월 카탈루냐 주의회는 「카탈루냐의 일방적 독립을 위한 분리독립 로드맵 결의안」 채택
 - ※ 마스 카탈루냐 주지사는 분리독립 주민투표 실시 계획이 위험이라는 판결(2014.3월)에 따라 2014년 11월 주민투표를 대체하는 '자발적 여론조사' 실시(동 여론조사에는 37%의 카탈루냐 주민이 참여, 81%가 분리독립 찬성에 투표)
- 2017년 9월 카탈루냐 주정부는 '주민투표 실시법'과 '법체제 전환법'을 통과시키고,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 분리독립 찬반 주민투표 실시
 - 동 투표 참여자는 42%로 이 중 90.09%가 분리독립에 찬성했으나, 중앙정부의 투표 저지 과정에서 경찰측과 투표자들 간 무력충돌이 발생, 800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 2017년 10월 27일 카탈루냐 주의회는 '카탈루냐의 독립 선언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식적으로 카탈루냐공화국 창건을 선포하였고, 이에 대해 라호이 총리는 헌법 제155조를 발동, 카탈루냐 자치정부 및 주의회 해산, 카탈루냐 자치주 조기선거 실시 선포
 - 또한 카탈루냐 주·부지사, 주장관, 주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소라야 사엔즈 부총리를 주지사로 지명 및 주장관 권한을 해당 중앙 장관에 위임
- 푸지데몬 前 주지사 및 전직 장관 4명은 벨기에로 도피하였으며, 스페인에 남아 있는 오리올 용케라스(Oriol Junqueras) 카탈루냐 前 부지사 및 前 주장관 등 10명의 카탈루냐 분리독립 추진 인사는 반역, 선동 및 횡령 혐의로 기소
 - 푸지데몬 전 주지사는 스페인 정부가 권력분립에 따른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 보장 시 스페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
- 2017년 12월 실시된 카탈루냐 자치주 조기선거에서 중앙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다시 분리주의 정당들이 과반을 획득하고, 카탈루냐 주의회는 해외에 있는 푸지데몬 전 주지사를 대신하여 분리독립 강경파인 킴 토라(Quim Torra)를 주지사로 선출

- 토라 주지사는 2017년 10월 실시된 카탈루냐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의 유효성을 지속 주장하는 한편, 구속된 분리독립 추진 인사 석방과 함께 분리독립에 대해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것을 지속 주장
- 2018년 6월 출범한 산체스 정부는 법적 조치에 치중한 라호이 총리와 달리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카탈루냐를 둘러싼 스페인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킴 토라 카탈루냐 주지사와 마드리드에서 첫 회담을 개최(2018.7월), 대화의 틀을 마련하였으나 양측 간 첨예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
 - 중앙정부와 카탈루냐 주정부 간 장관급 회의(2018.8월)에서도 기존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합의점 없이 종료
- 2018년 12월에는 산체스 총리와 토라 주지사 간 회담을 개최하고 이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대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양측의 의지 표명
- 산체스 정부는 카탈루냐 투자 확대,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카탈루냐 측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도 카탈루냐 자결권에 대한 주민투표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바,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근본적 입장 차이 존재
- 또한 현재 카탈루냐 정치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카탈루냐-중앙정부 간 갈등이 악화 중인바, 현재로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극적인 해결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
 -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는 다양성 속에서 통합을 추구하여 지자체의 자치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온 스페인 헌정 40년의 주요 도전 과제로 부상

PART 5

대외 관계

1. 개 요
2. 대외정책 기본 방향
3. 對EU 관계
4. 주요 국가별 관계



1 개요

- 스페인 내란 시 추축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중 시종일관 중립 유지 및 2차대전 후 체제의 독재적 성격 등을 이유로 제1차 UN 총회에서 체제 규탄 결의안 채택(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모든 외교단이 스페인에서 철수), 마셜플랜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등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고립
- 스페인의 전략적 위치 및 반공정책 등을 고려, 냉전 시 미국의 주선(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 스페인 방문)으로 서방 진영의 일원이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회복
 - 1953년 9월 26일 미국과 방위협정 체결, 1955년 12월 14일 유엔 가입
- 1960년대 말 동서 긴장완화 분위기에서 로페즈 브라보(López Bravo) 외교장관 주도로 종래의 극우 반공정책에서 탈피, 개방정책 추구 및 사회주의 국가와도 관계 수립
- 세계평화 유지에의 기여, 보편주의에 입각한 세계 모든 국가와의 우호 관계 추구(1986.1월 이스라엘, 1986.9월 알바니아, 2001.2월 북한과 수교)
- 지리적·역사적으로 아랍권과 깊은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마그레브 국가(모로코·모리타니아·알제리·튀니지·리비아 등)와의 관계가 스페인 대외정책에서 중요 부분 차지
- 언어·문화적 동질성을 토대로 중남미에 대한 막강한 소프트파워와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양자뿐만 아니라 이베로아메리카(Iberoamérica) 정상회의를 통해 중남미와의 협력 주도
- 1986년 유럽연합(EU) 가입 이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경험을 배경으로 EU 통합 확대에 적극적이며, 對EU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세계 여타 지역과의 협력 강화 도모

2 대외정책 기본 방향

- EU 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 및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 체제 강화
 - ※ 1989년 상반기, 1995년 하반기, 2002년 상반기 및 2010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임, 2022년 하반기 EU 의장국 수임 예정
- 국제평화, 민주화운동 및 인권문제에 능동적으로 기여
 - 2015~2016년 유엔 비상임이사국이자 1540 비확산위원회, 1737 이란제재위원회, 1718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국제평화에 기여(국제평화 임무에 병력 지원 등)
 - 2018~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 난민 문제 관련 EU 차원의 공동 대응 촉구
- 반테러 국제협력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서구-이슬람권 간의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을 위해 ‘문명 간 연대’, ‘지중해연안국 고위급 회의(Barcelona Process)’ 주도
 - 2015년 마드리드에서 유엔 대테러위원회(CTC) 특별회의를 개최, 외국인 테러전투원 방지를 위한 ‘마드리드 이행 원칙’ 채택
 - EU의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ce Policy) 출범에 적극 참여 및 소말리아 반도 및 서아프리카 지역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군사적 지원 제공
- 지브롤터 주권 회복 추진
- 포르투갈과의 선린우호 관계 강화
- 마그레브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 중남미 국가들과의 기존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중남미-EU 간 연결 역할 추구
-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강화
 - 「2018-2022 스페인의 對아시아 전략적 비전」 발표(2018.4월)
- 스페인 언어와 문화의 해외 확산 노력
 - 경제위기 극복 후 해외 세르반테스 문화원 확대 추진
- 재외 스페인 국민의 이익 보호

3 對EU 관계

가. 유럽공동체(EC) 가입 배경

- 민주정치 회복 이후 그간의 정치적 고립에서 탈피
-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EC의 기금 및 시장 확보

나. 對EU 기본 정책

- 스페인은 1986년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y) 가입과 함께 고속 발전을 이룩한바 기본적으로 親EU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EU 주요국으로서 역할 및 영향력 확대를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선정
- EU와의 통합 강화가 지역 정세 안정 및 경제번영을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EU와의 통합 과정에 적극 참여(셴겐 조약, 니스 조약, 유로화 화폐 단일화, EU 헌법 승인 등)
 - 2001년 니스 조약에서 스페인은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과 함께 다수의 투표권을 보유한 EU 내 주도 국가로 부상
 - EU의 동구권 확대를 적극 지지한다는 대외정책 목표 견지
- 2012년 6월 스페인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위기로 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한 은행권 구제금융을 유로그룹에 공식 신청, 413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긴축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2013년 12월 EU 구제금융 졸업
-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라호이 국민당 정부는 브렉시트 이후 EU에서의 영향력 회복 및 위상 제고를 주요 대외정책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알폰소 다스티스(Alfonso Dastis) 주EU 대사를 외교장관으로 임명(2016.11월)
 - EU 주도국인 프랑스·독일·이탈리아와 함께 2017년 3월 개최된 유럽 4개국 정상 회담에 초대되어 참여
- 산체스(Sánchez) 사회노동당 정부는 2018년 6월 출범 시 유럽주의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천명하고, 주요 장관(외교장관·경제장관·농수산식품장관)을 EU 업무 경력자로 지명 하였으며, 독일·프랑스 등 EU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의 개최, EU 공동예산, 유로존 개혁, 난민 문제 공동 대응 등 출범 초기부터 유럽통합 및 親EU 정책 전개
 - 특히 유럽 난민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난민 인권 강화 및 EU 공동 대응을 적극 주장

- 2019년 7월 EU 집행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산체스 총리는 메르켈 독일 총리 및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였으며, 보렐 외교장관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로 임명되면서 EU 내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EU의 대외정책 관련 스페인은 역사·문화적으로 강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및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EU 간 협력의 구심적 역할 담당

스페인 정부의 난민 정책

■ 스페인 내 난민 현황

- 스페인은 이탈리아의 對난민 강경책 및 스페인 산체스 신정부의 난민 인권 보호 강화 조치 등으로 인해 2018년 들어 급격히 난민 유입이 증가
-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2018년간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은 65,325명으로 유럽 전체 수치(144,166명)의 45%에 달하고 그리스(50,215명), 이탈리아(23,370명)를 앞질러 유럽 내 최고 수준
 - 2018년 중 유럽으로 유입된 총 난민 수(144,166명)는 2017년(186,768명)에 비해 23% 정도 감소하였으나, 스페인에서의 유입은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28,707명→65,325명)

■ 난민 문제 관련 EU 공동 대응 강조

- 스페인 정부는 더블린 조약(1997)에 따라 난민이 처음 도착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떠맡게 되는 기존의 난민 망명 처리 원칙이 현 상황에는 맞지 않으므로, EU 차원의 공정한 난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
 - 오스트리아·덴마크·헝가리 등 난민 쿼터제에 반대하는 EU 회원국에 자발적 난민 수용을 촉구
- 2018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 EU 공동 난민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럽 외부 국경 통제 ▲유럽 난민 수용 제도 개혁 ▲유럽 지역 내 난민심사센터 설립 추진 등 합의 도출을 적극 지원
- 또한 난민 본국의 성장 및 이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한 본국에서의 기회 창출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 EU의 아프리카 신탁기금 지원(5억 유로)을 통한 아프리카 지역의 사회경제적 개혁 적극 환영

■ 정부 조직 개편,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난민 관련 우호적 정책 기조

- 산체스 신정부 구성 시 기존의 고용사회보장부를 노동이민사회보장부로 개편, 난민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 및 해결 의지 표명
- 보편적 공공의료제도 재정립을 통해 스페인 국민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자들에게 공공의료를 보장하는 입법 추진

■ 난민 유입 시 안전과 인권 문제 존중

- 난민과 불법이민자를 확실히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
- 2018년 6월 스페인은 이탈리아와 몰타가 입항을 거부한 629명 탑승 난민구조선 아쿠아리우스호를 발렌시아 항을 통해 입항 허가
 - 2018년 7월 스페인 구호단체 오픈암스의 구조선이 리비아 연안에서 구조된 지중해 난민 100여 명을 싣고 바르셀로나 항을 통해 입항한 바 있으며, 2019년 8월에도 이탈리아가 입항 거부한 동 구조선의 입항을 허가하는 등 인도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

다. 브렉시트 (Brexit)

- 영국의 EU 탈퇴 후 독일·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EU 내 주요국으로 부상하는 등 스페인의 위상 및 역할 제고와 함께 브렉시트 후 EU 통합이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는 입장
- 영국의 EU 탈퇴 협정과 EU-영국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 선언을 EU 특별정상회의에서 승인하였으며(2018.11월), 브렉시트가 스페인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상기 협정에 스페인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EU 간 시민들의 통행권, 농업 등 EU 펀드 수혜자들에 대한 영국의 지급 약속 이행, 형사·사법 분야 협력 등을 포함하여 스페인의 제조업·관광업 등 주요 산업과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 또한 EU-영국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선언에 EU 자치권 존중, EU 단일시장 보호, 긴밀한 경제 관계 지속 등이 포함되어 스페인의 지속적인 이익 유지에 긍정적이라고 인식

4 주요 국가별 관계

가. 對미국 관계

- 동맹 국가로서 공통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
 - 걸프전 중 스페인은 미군 전투기 및 전폭기의 급유는 물론 인원 및 군수물자 수송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제한적 기지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동맹 관계 강화
-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 유지
 - 스페인 로타(Rota) 해군기지 및 모론(Morón) 공군기지 내 미군 주둔 및 카디즈(Cádiz)에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설치 허용 등
- 스페인은 트럼프 정부 출범 시 오바마 정부와 유지해 온 긴밀한 양자 관계를 트럼프 신정부와도 이어갈 것임을 천명
 - 유럽·중남미·중동 지역에 양국이 미치는 지역적 영향력과 공동의 가치에 기반하여 긴밀한 국방과 안보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미국은 스페인의 EU 역외 최대 수출국이자 對스페인 최대 투자국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및 스페인산 올리브 수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시작된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에 대해 우려
- 스페인-미국 외교 역사
 - 1953년 외교 관계 재개
 - 1953년 9월 방위 및 경제원조협정 체결
(동 협정에 의거 미국은 스페인 내 4개의 군사기지 설치, 동 협정 1988년 완료에 따라 1988년 12월 신방위협정 체결, 2002년 4월 동 협정 개정 의정서 서명)
 - 1976년 1월 우호협력조약(1982.7월 갱신)
 - 1982년 5월 NATO 가입으로 미국과의 우호협력조약은 공동방위적 성격보다는 기지 사용적 측면에 중점
 - 1986년 3월 12일 국민투표에서 NATO 잔류 결정
 - 1988년 12월 스페인 주둔 미 공군 기지 부분 철수를 골자로 하는 신방위협정 체결
 - 1995년 12월 클린턴(Clinton) 미국 대통령과 펠리페 곤살레스(Felipe González) 총리(1995년 하반기 EU 의장국 총리) 및 자크 상테르(Jacques Santer) EU 집행위원장 간 미·EU 정상회담 개최, 새로운 대서양 선언(Transatlantic Declaration)에 서명, 보스니아 평화 정착 문제, 중동 평화 추진 문제 등 공동 관심 사항 협의

- 국민당의 아스나르 총리는 EU 주도국인 독일·프랑스와의 관계 훼손을 무릅쓰고 미국과의 유대 강화 추구
 - 미국의 이라크전 개전 당시 2003년 3월 16일 미·영·스페인 3국 정상회담의 일원으로 이라크전을 적극 지지, 이라크에 병력 1,300명 즉시 파견
 - 국제사회에서 스페인의 위상 제고 및 EU 내 독일·프랑스 주도 견제 목적
- 2004년 5월 이라크 파병 스페인군의 조기 철군
 - 이라크 철군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반면, 독일·프랑스와는 관계 강화
 - 이에 미국은 스페인과의 정상회담 거부
- 2009년 10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 개선으로 백악관에서 미-스페인 정상회담 개최
- 2010년 5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부통령 스페인 방문
- 2011년 10월 스페인 카디즈(Cádiz)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설치 허용
- 2014년 1월 라호이 정부 출범 2년 후 백악관에서 미-스페인 정상회담 개최
- 2015년 9월 펠리페 6세 국왕 내외 미국 방문
- 2015년 9월 모론 공군기지 내 미국 위기대응군 주둔 관련 제3차 미-스페인 방위협정 발효
 - ※ 방위협정 주요 내용
 - 기존 스페인 주둔 미군을 일부 철수, 양 기지 내에 미군 주둔 병력을 4,750명으로 제한(유사시 2,285명의 미군 추가 배치 가능)
 - 미국의 스페인 내 모론 공군기지 및 로타 해군기지의 공동 사용 등
- 2016년 7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스페인 방문
- 2017년 9월 라호이 총리 방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미-스페인 정상회담 개최 (동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카탈루냐 분리독립 문제 관련 스페인의 통합 지지)
 - ※ 라호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축하 전화통화 시(2017.2월) 미국 신정부와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스페인의 의지를 강조하고, 유럽·중남미·북아프리카·중동에서 미국의 대변인 역할 자처
- 2018년 6월 펠리페 6세(Felipe VI) 국왕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뉴올리언스와 샌안토니오 건설 300주년 미국 방문 및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나. 對영국 관계(지브롤터 문제)

- 과거 무적함대, 스페인 왕위계승 문제 등 역사적으로 라이벌 관계였으나, 현대 들어 EU·NATO·UN 등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우호 관계 유지
- 특히 영국은 스페인의 전체 대외 수출의 7.5% 정도를 차지, 스페인의 5대 수출시장 중 하나이며, 스페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1위 국가로 스페인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0% 이상 차지
- 다만, 지브롤터 문제는 양국 간 지속적인 현안으로 남아 있는 상황

1) 분쟁 연혁

- 1704년 8월 4일 스페인 왕위계승전쟁(1701~1714) 중 영국·네덜란드 합대가 스페인령 지브롤터 강제 점령
 -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은 합스부르크가의 스페인 왕인 카를로스 2세가 후세 없이 사망하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자신의 조카를 스페인 왕(펠리페 5세)으로 선포한 데 대해 오스트리아·영국·네덜란드가 프랑스 및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여 발발
- 1713년 7월 13일 위트레흐트 조약(Treaty of Utrecht) 체결
 - 펠리페 5세(Felipe V, 루이 14세 조카)를 스페인 국왕으로 인정하는 대신 스페인 영토인 지브롤터 및 메노르카(1802.3월 반환)를 영국에 할양
- 1830년 3월 영국, 지브롤터를 영국령 식민지(Crown Colony)로 편입
- 지브롤터 지위 관련 1967년 및 2002년 실시한 주민투표(referendum) 결과, 압도적 다수의 지브롤터 주민이 영국 주권 하에 존속키로 결정
- 1969년 4월 스페인 프랑코 총통, 지브롤터 국경 봉쇄 조치(1983년 해제)
- 1980년 4월 10일 리스본에서 영국-스페인 간 최초의 지브롤터 문제 협상 개시
- 1984년 11월 브뤼셀 선언(양국 외교부 간 브뤼셀 프로세스 개시 및 1997년까지 연례 개최)
- 2001년 5월 영국-스페인 간 지브롤터 주권 관련 협상 재개 시도, 지브롤터 주민의 반발로 협상 실패
- 2002년 2월 영국, 지브롤터의 지위를 영국령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y)로 변경
- 2002년 11월 2차 지브롤터 주민투표(referendum) 실시, 98.97%의 투표자가 지브롤터에 대한 영국-스페인의 공동주권에 반대
- 2006년 11월 지브롤터 개정 헌법 발표
 - ※ 최초 헌법은 1967년 제정
- 2012년 5월 지브롤터 당국이 환경보호법을 근거로 인근 해역에서의 스페인 어선의 조업을 금지함에 따라 스페인 당국은 쉥겐 조약에 따른 국경 통제 강화 등 대응책 마련
 - ※ 지브롤터 인근 수역의 관할권 관련, 영국은 지브롤터 반도의 왼쪽 1.5마일, 오른쪽 3마일을 관할 해역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스페인은 위트레흐트 조약상 지브롤터 인근 해역의 관할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지브롤터 항구 내 수역만 관할 해역으로 인정해 오다가 1999년 지브롤터 당국에 의한 스페인 어선의 나포 사건 관련, 지브롤터 인근 0.5마일까지의 조업을 허용하기로 양측 합의

- 2013년 8월 지브롤터 국경선 통제에 따른 영국-스페인 정부 간 외교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영국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표명한 반면, 영국 정부는 지브롤터 주민의 자결권을 중시하기 위해 입장 변경은 없음을 표명
- 2016년 10월 스페인측은 유엔 탈식민지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브롤터에 대한 스페인과 영국의 공동주권(co-sovereignty)을 공식 제안
 - 공동주권 주요 내용 : ▲지브롤터 주민에게 이중국적 제공(영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스페인 국적 취득 가능) ▲국방·외교·이민·망명 정책에 관한 스페인-영국 공동 관할 ▲자치정부 유지 및 광범위한 자치권 부여 ▲EU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특별조세 혜택 유지 ▲지브롤터 국경 통제 해제 등



2) 분쟁의 주요 내용

- 위트레흐트 조약(Treaty of Utrecht)
 - 국제법 측면에서 지브롤터는 영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이며 1713년 7월 체결된 위트레흐트 조약 제10조는 “영국이 지브롤터에 대한 완전한 주권 및 소유권을 갖는다”고 명기
 - 다만 동 조약 제10조 단서 조항(10조 C항)은 지브롤터가 매매 등 기타 사유로 그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스페인이 우선 소유권을 갖는다고 규정

- UN 헌장 및 관련 총회 결의
 - 영국은 지브롤터의 지위 관련 식민지(Crown Colony, 1830년 선포) 영토 지위에서 2차 세계대전 직후(UN 창설 이전) 영국령 해외영토(Overseas Territory)로 지위 변경
 - 스페인은 영국측이 당시 UN의 '식민지 해방 선언' 관련 UN 24 위원회가 지브롤터를 식민지 해방 대상 지역으로 포함시킬 것을 우려한 조치라고 비난
 - UN 총회 결의 2429호(1968.12.18)는 “지브롤터의 식민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UN 헌장 및 UN 총회 결의 1514호(1960.12.24) 위반”이라고 선언
 - UN 총회는 1970년 이래 매년 “지브롤터 문제는 영국-스페인 간 협상을 통해 해결”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 채택

3) 양국 간 쟁점 사항

■ 스페인

- 지브롤터는 영국의 식민지로서 UN 헌장 및 상기 UN 총회 결의에 의거한 식민지 해방 대상 지역으로서 스페인에 반환할 것을 주장(1946년 영국의 동 지역 영국령 편입의 부당성)
- 위트레흐트 조약 관련 제10조 단서 조항(C)에 의거하는 경우에도 지브롤터의 법적 지위가 이미 변경(지브롤터는 영국의 직접통치 형태가 아닌 광범한 자치권 행사)되었으므로 스페인이 우선 소유권을 보유한다고 주장
- 기타 지브롤터 지역의 군사 요새화(영국 핵잠수함 출입 등)로 스페인 안전에 위협

■ 영국

- 국제법적으로 지브롤터는 영국 영토라는 기본 원칙(영-스페인 간 주권 협상 반대)
- 지브롤터 지위에 대한 협상 시 동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양국 간 협상 의제 설정 반대(브뤼셀 협상에서 영국측은 양국 정부 이외에 지브롤터 대표자의 협상 참여를 주장)
- 지브롤터의 최종 지위는 현지 주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문제이므로 양국은 지브롤터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희망(영국 및 지브롤터 주민)하며 현지 주민의 동의 없는 주권 협상에 반대한다는 입장

■ 브뤼셀 프로세스(Brussels Process)

- 1980년 4월 10일 리스본에서 영국·스페인 양국 외교부 간 최초로 지브롤터 문제 관련 협상 개시 이래 1984년 11월 양국 간 브뤼셀 선언 결실
- 동 브뤼셀 선언은 지브롤터 주권 문제 관련 양국 간 견해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호혜의 기초 하에 동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천명
- 브뤼셀 선언에 의거, 1984년 11월 이래 양국은 매년 정례적으로 지브롤터 지위 관련 양국 외교부 간 회담을 개최해 왔으며, 이를 '브뤼셀 프로세스'라고 명명

- 동 프로세스는 1984~1997년간 개최된 후 3년간 중단되었으며, 2001년 5월 런던에서 재개
- 상기 브뤼셀 프로세스 관련 양국은 2002년 7월 12일 지브롤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기본 원칙으로 '2국 3자회담(Two Flags, Three Voices)' 원칙에 합의
- 2011년 12월 국민당 라호이 정부 출범 후 스페인은 스페인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2국 4자회담' 개최 제의

지브롤터 개요

면적	6.5km ²
인구	34,571명
종교	가톨릭(75%), 이슬람교(8%), 성공회(8%)
법적 지위	영국의 자치령
통치 기구	총독(군사령관 겸임), 내각(5~9명의 각료로 구성, 공보장관이 수석장관), 의회(의장, 선출 의원 15명, 당연직 의원 2명으로 구성, 임기 4년)

다. 對러시아 관계

- 주요 연혁
 - 1972년 9월 무역협정 체결, 통상대표부 설치
 - 1974년 7월 영사 관계 수립
 - 1976년 5월 항공협정 체결
 - 1977년 2월 외교 관계 수립
 - 2006년 2월 푸틴 대통령 스페인 공식 방문
 - 2008년 6월 후안 카를로스 국왕 러시아 방문
 - 2009년 3월 메드베데프 대통령 스페인 국빈방문
 - 2010년 10월 스페인 주재 러시아 외교관 2명 추방(스파이 혐의)
 - 2010년 12월 러시아 주재 스페인 외교관 2명 추방(상기 조치에 대한 대응)
 - 2014년 3월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 스페인 방문, 양국 외교장관회담 개최

- 2018년 3월 스페인 주재 러시아 외교관 2명 추방
- 2018.11월 러시아 라브로프 외교장관 스페인 방문, 양국 외교장관회담 개최
- 과거 스페인은 통상·투자, 에너지, 건설,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희망하면서 양국 간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 등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략 이후 EU와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최근 러시아의 카탈루냐 독립 관련 개입 의혹도 대두
 - 특히, 스페인이 영국 내 전 러시아 스파이 암살 및 화학작용제 사용을 집단안보와 국제인권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스페인 주재 러시아 외교관 2명을 추방(2018.3월)함에 따라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
- 2018년 11월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이 스페인을 방문, 조셉 보렐(Joseph Borrell) 외교장관과 회담 개최
 - ▲정무 및 경제 분야 논의를 위한 양자 정책협의회 및 ▲인터넷상 허위 정보를 조사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그룹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여 양국 간 관계를 어느 정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

라. 對아시아 관계

- 스페인은 아시아와의 협력 증진 필요성을 인식, 2000년 7월 아스나르(Aznar) 총리가 對아태 지역 관계 강화 정책(Action Plan 2000-2004)을 발표하였으며,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을 위해 ‘카사 아시아(Casa Asia)’(바르셀로나 소재)를 설립
- 경제위기 극복 후, 세계경제 중심인 아시아에서 스페인의 위상이 여타 EU 국가들보다 떨어진다는 인식 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한국·중국·일본·인도 등 주요 국가들과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ASEM 등 다자간 회의체 참여를 통해 동 지역과의 관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
 - 경제·과학기술·교육·혁신·관광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 확대 희망

■ 2018~2022 스페인의 對아시아 전략적 비전(2018.4월 발표)

- 스페인은 아시아가 인구·경제적 측면 등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지만 자국이 여타 EU 국가들에 비해 대아시아 협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양자적 측면뿐만 아니라 ▲중남미와의 연대 ▲EU 회원국의 지위 ▲아시아 지역 분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중간국의 장점 이용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전략 및 방안을 통해서 아시아 내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

- EU 내에서는 스페인이 강점을 가진 분야(대테러, 해상안보, 이민관리, 도시개발, 인프라 등) 및 아시아 국가들과 FTA 협정 체결 추진 등에서 적극 노력하고,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및 對스페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예정
- 對아시아 협력 중점 분야로 도시화 및 도시개발, 무역, 관광, 과학기술, 안보, 대테러, 재난관리, 대체에너지, 인권, 스페인어 등을 설정하고 있으며, 신실크로드 참여에도 관심 표명
 - 이를 위해서는 민관협력, 아시아 전문가 양성 및 정보 구축, 고위인사 교류 확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의 아시아 담당 부서 강화 및 공관 신설, 아시아 교류 협력 재단 및 EU 메커니즘 활용 추진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국제사회 및 스페인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한반도 정세 문제 ▲일본·중국·인도 등과 함께 과학기술·혁신 분야 및 교육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협력 강화 필요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객 급증 ▲한-EU FTA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언급
- 분야별 상세 내용
 - **(안보)** 아시아에서 지속되고 있는 갈등(북한 핵문제, 남중국해 분쟁 등)과 긴장은 스페인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스페인은 아시아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며, 이를 아시아에서 스페인 방위산업 입지 확대 기회로 인식
 - **(인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권에 비교적 취약한 아시아 지역의 인권 향상을 위해 동 지역과 협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 외교의 중요한 요소이며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적극 권장 예정
 - **(경제협력)** 아시아는 세계 경제 성장의 동력이자 중산층 확대의 중심 지역으로, 재화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물류·관광 부문에서도 성장 잠재력을 인식
 - **(대륙 간 연결성 강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신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주목하고 참여 추진
 - **(통상·투자)** 미국의 TPP 탈퇴는 EU에 FTA 협상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교역 관계 강화 및 투자유치 확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인식, 현재 ▲한-EU FTA 기체결 ▲3개국(싱가포르·베트남·일본)과 FTA 협상 완료 후 2018~2019년 중 발효 예정 ▲5개국(인도·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필리핀)과 협상중 ▲2개국(호주·뉴질랜드)과 협상 개시 추진 ▲2개국(중국·미얀마)과 투자 협상 진행에 주목
 - **(관광)** 아시아 중산층 확대로 스페인 관광 부문 성장을 기대하며, 다양한 직항노선 신설, 비자 발급 간소화 등 관광 진흥 정책은 스페인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과학기술·혁신)** 아시아는 세계 R&D 지출 및 과학기술 분야 생산의 약 40%를 차지하며, 교육 및 인재 유치 노력으로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 중으로 스페인은 경제산업경쟁력부를 중심으로 한국·일본·중국 등 동 분야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
- (민간협력) 스페인-아시아 간 민간 네트워크 부족은 스페인의 대아시아 전략에 있어 취약점으로 아시아 전문가도 많지 않은 실정으로, 정부는 양 지역 간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시아 지역 경험이 많은 다국적 기업, 싱크탱크를 활용, 현지 전략을 분석하고 기회 창출
 - (교육) 스페인은 대아시아 교육협력 관련, 스페인어, 비즈니스 스쿨, 건축·엔지니어링, 스포츠, 디자인, 요리 분야 교육에서 경쟁력이 있으므로 교육기관의 명성을 중요시하는 아시아 특성상 스페인 대학교의 랭킹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

마. 對중국 관계

- 1973년 3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외교 관계 수립
 - 대만에는 통상사무소 유지(스페인상공회의소 사무소 형식이며, 영사담당 직원이 비자 발급 업무 수행)
- 스페인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활발한 고위인사 상호 방문을 통한 정치적 유대 강화와 對중국 통상·투자 확대 노력
- 스페인의 주요 관심사는 거대한 중국 시장 진출과 양국 간의 심각한 무역 역조 개선(스페인이 5배의 무역적자 기록)에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등 힘겨루기에서 유럽 주요국의 하나인 스페인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
-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 11월 스페인을 공식 방문하여 「전면적 전략 관계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이후 라호이 총리는 2014, 2015, 2017년 중국을 세 차례 방문하는 등 양국 정상 간 활발한 교류 관계 구축
- 시진핑 주석은 2018년 G20 정상회의(11.30~12.1, 아르헨티나) 참석 전 11.27~29 스페인을 국빈방문,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 ▲기후변화 ▲불법이민자 문제 ▲핵무기 확산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서 전면적 전략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2개의 협정(①이중과세방지협정, ②중국 내 스페인어 교육 증진 협정) 체결 ▲3개의 MOU(①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 ②고용 및 사회보장, ③과학기술혁신) 등 서명
 - ※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 ▲양국 간 전면적 전략 관계 강화 ▲규범에 근거한 다자주의 강화(보호주의와 일방주의 배격 및 시장 개방 증진) ▲글로벌 문제 협력(기후변화 파리협약, 불법이민, 핵 비확산 등)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 심화 및 확대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교육·문화·스포츠·관광 분야 협력 확대 등

- 또한 2018 ASEM 정상회의(10.18~19, 브뤼셀)에서 채택된 유럽-아시아 연결 전략을 바탕으로 EU-중국 간 관계 증진에 대해 논의

- 스페인-중국 간 통상·투자 관계 현황

- 2017년 양국 교역은 319억 유로로 스페인의 대중국 수출은 62억 유로, 수입은 256억 유로로 스페인이 5배의 적자 기록
- 200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대스페인 투자는 40억 유로에 달하나 다른 유럽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
- 2018년 스페인 방문 중국 관광객은 6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스페인이 중국인의 주요 관광 대상국은 아닌 상황
- 해외 수주액 2위의 건설강국인 스페인은 인프라 건설 참여 가능성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동 이니셔티브 참여에 대한 EU 회원국들 간 입장차가 있어 중국측이 희망하는 일대일로 협력 MOU에는 서명하지 않은 상황
 - ※ 스페인은 A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고, 2017년 5월 라호이 총리는 중국 개최 일대일로 정상회의에 참석
 - ※ 2014년 11월 스페인 마드리드~중국 이우(Yiwu) 간 화물철도 노선 개통(스페인~프랑스~독일~폴란드~벨라루스~러시아~카자흐스탄~중국)

바. 對포르투갈 관계

- 양국에 민주 체제가 들어선 후 프랑코(Franco)와 살라자르(Salazar) 간에 1939년 체결된 소위 '이베리아 조약'을 폐기하고 1977년 11월 스페인·포르투갈 우호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선진우호 관계를 새로이 정립
 - ※ 포르투갈은 1580년부터 1640년까지 60년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으며, 경제적으로도 스페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스페인에 대해 경쟁 의식을 갖고 있는 관계
- 양국에 사회노동당계 정권 등장(스페인 1982.12월, 포르투갈 1983.6월)을 계기로 연례 정상회담 및 고위협력위원회를 상설 개최해 오면서 스페인 내 포르투갈인의 법적 지위 부여, 영사협정 체결, 리스본 내 스페인 문화센터 설치 등에 합의하고 양국 간 수로 개설, 리스본~마드리드 간 철도 시설 및 주요 도로 시설 건설 추진 등 실질협력 관계 긴밀화
- 1989년 5월 스페인 카를로스 1세 국왕의 포르투갈 방문은 양국 간의 오랜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상징적 의미
- 1996년 5월 삼파이우(Sampaio) 포르투갈 대통령이 스페인 신정부 출범(5.6) 이후 외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스페인을 방문하여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의 양국 간의 내면적 갈등·불신 완화, 국경 하천 수력자원의 공동이용 문제 및 EU 내 협력 등을 논의, 양국 간 협력 분위기 제고를 위한 초석 마련

- 현재 스페인·포르투갈 양국은 공히 EU 회원국으로서 쉥겐 조약 가입, 유로 사용 및 국경지대 공동 문제 대응 등에서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 스페인은 포르투갈의 최대 수출국
- 라호이 정부 당시 이베리아 반도 전력산업 통합을 위해 2017년 ‘이베리아 천연가스 공동시장’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포르투갈 간의 에너지 연결성 향상을 위한 천연가스 및 전력 파이프라인 확충 및 프랑스까지 에너지망 확대 연결을 추진
- 2018년 6월 사회노동당 소속의 산체스 총리는 취임 이후 역시 사회노동당 소속인 코스타(Costa) 포르투갈 총리와 유사한 정치적 비전을 공유하며, EU 회의주의가 부상하는 현 상황에서 유럽 통합을 위해 협력 중

사. 對중남미 관계

- 스페인의 대외경제협력 예산의 3분의 2 이상을 중남미 국가들에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중남미 지역 중주국으로서의 역할을 지속 수행
- 중남미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1985년 7월 이베로아메리카 협력실(Secretariat of State for Ibero-America : 스페인에서는 라틴아메리카(Latin America)라는 용어는 부정확하다면서 이베로아메리카(Ibero-America) 용어 사용) 설치
 - EU 가입 후 소원해진 대중남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페인의 EU-중남미 간 교량 역할을 자임하여, 중남미 민주주의와 경제부흥을 위한 EU의 원조 및 EU-메르코수르(Mercosur) 간 FTA 추진의 중심 역할
- 1992년 콜럼버스의 미주대륙 발견 500주년을 맞아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창설(2005.10월 살라망카 개최 제15차 회의 시 상설 사무국 마드리드에 설립)을 통해 중남미 지역과의 결속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
 - 스페인의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통신·금융 분야에 특히 집중
-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차원에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을 주도하고, 중남미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태평양동맹 국가들과의 관계 심화 및 EU-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협상 진전을 촉진함으로써 유럽-중남미 간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

- 2018년 11월 제26차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과테말라)에서 산체스 총리는 스페인이 대중남미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표명하였고, 함께 참석한 펠리페 6세 국왕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의 노력을 평가하고 스페인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
- 스페인은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 외에도 미주기구(OAS),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중미통합체제(SICA), 안데스공동체(CAN) 등 중남미 지역 내 다자기구에서 옵서버 국가로서 활발히 활동

아. 對아랍 관계

- 유엔안보리 결의안 242호 및 338호에 입각, 이스라엘의 아랍 영토로부터의 철수, 팔레스타인의 권리 인정 등을 주장(1977.5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승인)하여 아랍권과 원만한 관계 유지
- 1986년 1월 이스라엘과 수교함으로써 한때 아랍과의 관계에 동요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외교 노력(1986.8월 스페인 주재 PLO 대표부 격상 조치, 대아랍권 원조 확대 등)으로 안정세 회복
- 역사, 문화 및 지정학적으로 아랍 제국과의 관계가 긴밀한 스페인은 걸프전쟁 중 아랍권, 특히 마그레브 국가들로부터 다국적 연합군에 가담하여 함대를 파견한 데 대해 비난을 받는 등 미묘한 입장에 처했으나, 오르도네스(Ordonez) 외교장관이 전쟁 중 마그레브 5국을 순방, 자국의 입장 설명 및 각국에 대한 경험 제공 등 쌍무 우호협력 증진을 다짐하는 등 외교적 노력으로 무마
- 지정학적 위치 및 스페인과 아랍 제국과의 역사적 관계가 고려되어 제1차 중동평화회의(1991.10월) 개최지로 마드리드 선정
- 스페인은 이스라엘-PLO 간 평화협정 체결 후 EU 공동 외교안보 지침에 따라, 1993년 10월 21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일반대표부(Palestine General Delegation) 관계 수립
- 1977년 설치된 PLO 대표부도 1993년 10월 21일자로 일반대표부로 승격되었으며, 동 대표부 및 직원은 외교 특권, 면제 등 여타 외교관과 동등한 지위 향유
- 1993년 9월 중동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1994년 2월 라빈(Rabin)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1994년 11월 라빈 총리와 아라파트 PLO 의장이 스페인을 방문했는데, 이는 스페인이 중동의 평화정착 문제를 중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입장에 있음을 입증
- 아스나르(Aznar) 정부의 스페인이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에 영국과 함께 적극 참여함으로써 아랍권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소원해진 바 있었으나, 2004년 4월

출범한 사파테로(Zapatero) 총리의 사회노동당 정부가 이라크에서의 조기철군, 중동 평화협상의 적극적인 중재 시도, 서구-아랍권과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바르셀로나 프로세스(Barcelona Process) 및 문명 간 연대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계를 상당 부분 복원

- 아프가니스탄 및 리비아 파병 등을 통해 아랍 지역의 평화 유지 및 민주화에도 기여
- 2017년 11월 리블린(Rivlin) 이스라엘 총리(11.6)와 압바스(Abbas) 팔레스타인 대통령(11.20)이 2주 간격을 두고 각각 스페인을 방문하였는데, 이때 스페인은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며 중재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
- 스페인은 경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사우디의 3대 도시(메디나·젯다·메카)를 잇는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를 주도하였으며, 외교적으로도 2017년 1월 펠리페 6세 국왕이 사우디를, 2018년 4월 모하메드 빈 살만(Mohamed Bin Salman) 왕자가 스페인을 방문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 지속

자. 對아프리카 관계

- 과거 서부사하라에 대한 식민지 국가로서 마그레브 제국과의 우호선린 관계 추구
- 스페인의 대모로코 관계는 세우타와 멜리야 지역 반환 영토분쟁 문제, 서부사하라 분쟁(모로코-알제리, Polisario 간)에 대한 입장 문제 등 갈등의 소지가 있으나, 모로코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농수산물을 스페인을 경유하는 육로 수송에 의존하고 있고, 스페인 수산업은 모로코 수역에 대한 안정적 입어(入漁)에 사활이 걸려 있는 등 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는 추세
- 1989년 9월 모로코 국왕 하산(Hassan) 2세의 스페인 방문은 과거 13세기 동안의 상호 개방과 대결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 수립 의지의 상징
- 아스나르 총리는 1996년 5월 모로코를 공식 방문, 하산 2세 모로코 국왕 및 필라리(Filali) 총리와의 회담 시 양국 간 주요 현안인 세우타와 멜리야 지역 반환 문제 및 서부 사하라 문제 등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모로코의 대스페인 채무(약 20억 달러 규모) 경감, 12억 달러 규모의 신규 용자 계획 처리 문제, 양국 간 경험 확대 등에 대해 협의
- 최근 스페인으로 유입되는 난민 행렬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로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모로코 정부가 스페인으로의 이민자 불법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련 협력 확대

※ 2018년 중 육·해상 경로로 스페인에 도착한 난민의 90% 이상이 모로코 출신

- 산체스 총리는 2018년 11월 모로코를 방문, 사드에딘 엘 오토마니(Saadedin El Othmani)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모로코에도 지원된 효과적인 국경통제를 위한 EU 아프리카 신탁기금 추가 예산 확보(1억 4천만 유로)에서의 스페인 역할을 강조하고, 동 예산이 고정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로코의 EU 내 주요 동맹국으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
- 스페인은 마그레브 지역의 안정이 스페인의 안보·사회안정과 직결되어 있다고 판단, 서부사하라 문제 해결을 위해 모로코-알제리 간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
- 식민지였던 중앙아프리카의 적도기니(Ginea Ecuatorial : 아프리카 유일의 스페인어 사용국)와는 계속 긴밀한 우호 관계 유지

차. 스페인 주재 외국 상주 공관 및 국제기구

- 외국 상주공관 : 121개 (2018)
 - ※ 참고 : 스페인 재외공관 수 218개 (대사관 118개, (총)영사관 90개, 대표부 10개)
- 스페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 : 36개
 - 세계관광기구(UNWTO)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국제올리브이사회(IOC)
 - 이베로아메리카 사회보장기구(IOSS)
 - 이베로아메리카 교육·과학·문화기구(OISESC)
 - 이베로아메리카 정상회의 사무국(IAS Secretariat)
 - 이베로아메리카 법무장관협의회(COMJIB)
 - 이베로아메리카 청년기구(OIJ)
 - 지중해연합(UfM) 등

PART 6

국 방

1. 국방 정책
2. 국방 조직
3. 군사력 현황(2018)
4. 국방 예산



가. 위협 인식

- 위협 : 무력분쟁, 테러, 조직범죄, 대량살상무기 확산, 스파이, 중요 기반시설, 공동 공간 (사이버·해양·공중 등)의 취약성
- 잠재적 위협 : 경제·금융 불안정, 에너지, 불법이민, 비상사태/재난, 전염병, 기후변화 영향

나. 국방 목표

- 공동안보체제 하 자국의 영토와 국민의 안전 보장
- 위기관리를 비롯한 세계 평화 유지, 인도적 지원 임무 분담
- 국방문화를 통해 국민에게 국가안보 의식 장려

다. 국방 정책 기조

- 국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강한 스페인 구현
- 다양한 부처 간에 긴밀한 협력 관계 발전
- 믿을 만하고 충분한 역지력을 보유한 국가 수준 유지
- 스페인군에 필요한 국방개혁 완수
- 국가안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전략대화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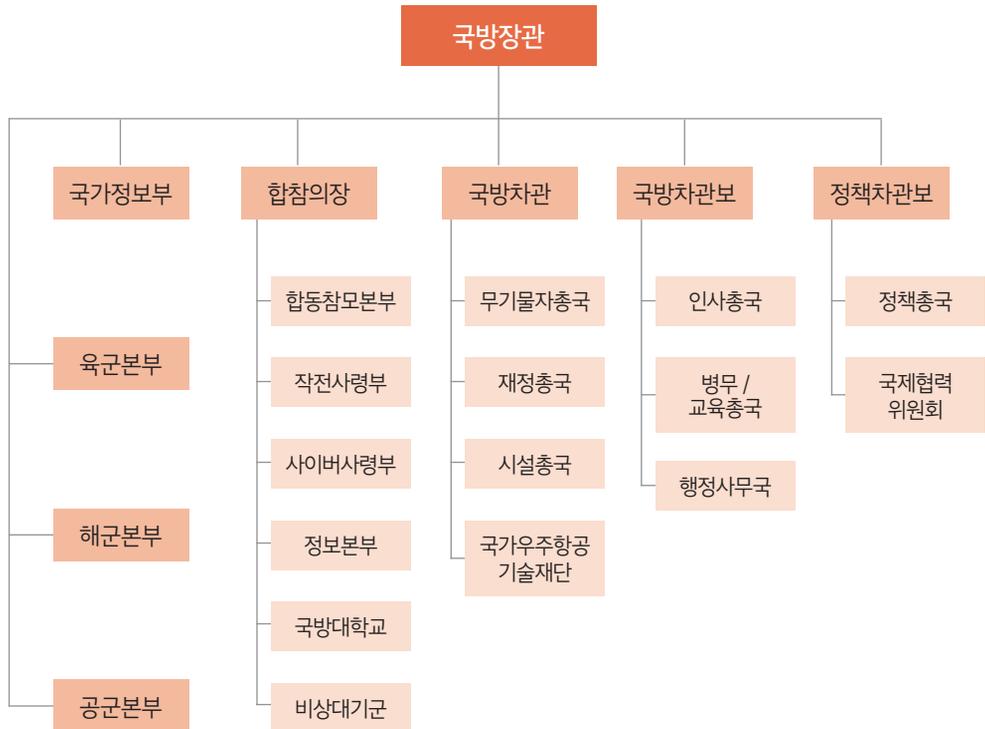
라. 국방 정책 추진 중점

- EU와 국가안보정책 공동 추진 및 스페인-미국 간의 관계 개선
- EU軍 창설에 적극 동참, EU軍에서의 지도적 위치 확보
- 중남미 등 라틴아메리카와 긴밀한 협력 관계 지속 유지

- 적극적인 국제평화 유지 및 치안·재건 활동 참여
- 군 조직 개편
 - ※ EU / NATO軍의 범주 내에서 국방개혁 추진, 신속대응군 형태로 발전
- 국가안보 의식 장려
 - ※ 국민에게 국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국방문화를 장려

2 국방 조직

가. 국방부



나. 임무

- 국방장관
 - 국군통수권에 대해 국왕 및 총리 보좌
 - 군정 및 군령권 행사
 - 군수물자 생산·관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책임
- 국방차관
 - 국방재정정책, 무기/물자정책, 시설정책에 관한 준비·지시·발전에 있어 장관을 보좌
 - 재정자원의 획득 및 행정의 지시와 협력, 그리고 국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관한 과학·기술의 연구 및 발전의 협조
 - 외교부와 협조해 외국 및 국제기구와 관련된 무기, 물자 및 시설에 관한 정책을 지시
 - 장기, 중기 및 단기에 따른 식량 가용 계획을 세우고, 국방총국장과 함께 군사장비 및 시설 계획을 장관에게 건의
- 합참의장
 - 국방위원회 위원, 총장위원회 위원장
 - 국방정책에 대해 총리 및 장관 보좌
 - 각 군의 작전부대 지휘 및 감독
 - 주요 지휘통제 내용
 - 3군 연합/합동훈련 계획 수립/통제, 작전지휘권 행사
 - 해외 파병부대 편성 및 통제
 - 비상대기군, 상시 작전부대 작전통제
- 육·해·공군 본부
 - 합동전략계획 수립 및 각종 지침 작성 시 합참의장에게 협조
 - 합동부대에 소속된 자군 부대의 조직·훈련·장비·행정 및 군수지원
 - 합동부대에 속하지 않는 자군 부대의 병력 운용 계획 수립
 - 각 군의 조직·교육·훈련·군수 임무 수행(계획 시행 및 감사)
 - 각 군이 최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반 자원 관리 유지
 - 각 군의 군사 교리 발전, 군기 및 사기 유지
- 국가정보부(Centro Nacional de Inteligencia)
 -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수집(대정부 전복, 대간첩, 대테러, 방첩 등)
 - 중요 군사시설 보호
 - ※ 과거 국가최고정보본부(CESID, 1977)를 모체로 2002년 창설

3 군사력 현황 (2018)

가. 병력 : 116,752명

(단위 : 명)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공통군
계	116,752	74,174	19,930	19,896	2,752
장 교	14,944	7,526	2,764	2,494	2,160
부사관	27,929	15,941	4,662	6,734	592
병	73,879	50,707	12,504	10,668	-

※ 제외 : 예비군 약 2만 명, 공무원/근무원 약 1.7만 명

- 병역 제도 : 모병제 (2002년 이후)
- 평균 연령 : 장교 및 부사관 43.7세, 병 33.7세
- 병 복무기간 비율 : 단기 16%, 중기 69%, 장기 15%
- 여군 현황 : 15,073명(12.9%) / 장교·부사관 2,502명, 병 12,571명

나. 주요 전력

- 육군 : 전차 450여 대, 장갑차 2,100여 대, 야포 1,800여 문, 헬기 120여 대 등
- 해군 : 경항공모함 1척, 이지스함 5척, 프리깃함 6척, 잠수함 4척, 상륙함 24척 등
- 공군 : 전투기 170여 대, 공중급유기 7대, 수송기 100여 대, 헬기 44대, 정찰기 9대, 훈련기 140대 등

다. 해외 파병 : 16개 지역 약 3천 명

계	레바논	이라크	지중해(2)	지부티	말리	기타(10)
3,025	620	575	468	387	293	1,302

라. 미군 주둔 현황 : 약 2,100명 (소속 : 미 유럽사령부)

- 장소 : 모론 공군기지, 로타 해군기지

4 국방 예산

가. 최근 5년간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정부 예산	423,231	440,076	436,370	443,133	449,785
국방 예산	5,654	5,711	5,734	7,575	8,400
비율 (%)	1.33	1.29	1.31	1.71	1.86

- 2009년 경제위기로 이후 감소하였다가 2015년부터 증가 추세
- 2018년 기준 정부 예산 대비 1.86% 차지
- 인건비는 전체 국방 예산의 약 80% 차지

나. 진행 중인 주요 전력화 사업

- 육군 : 차륜형 장갑차(8x8), CH-47 헬기
- 해군 : F-110 프리깃함 , NH-90 헬기, S-80 잠수함
- 공군 : MRTT, 기본 훈련기, 통신위성
- 공통 : 지휘통제체계, 무인기 시스템

PART 7

경제

1. 경제 개요
2. 주요 산업
3. 교역 및 해외투자
4. 최근 경제 동향



1 경제 개요

- 주요 경제 지표 (2018, IMF)
 - 국내총생산(GDP) : 1조 4,258억 달러 (세계 14위)
 - 1인당 GDP : 30,697달러 (구매력 기준 약 4만 달러)
 - 교역 규모 : 7,133억 달러 (수출 : 3,368억 달러, 수입 : 3,766억 달러)
 - 경제성장률 : 2.6%
 - 실업률 : 15.3%
 - 관광수입 : 900억 유로 (약 1,000억 달러, 세계 2위)
 - 외국인 관광객 수 : 약 8,200만 명 (세계 2위)
 - 산업구조 : 서비스업 64.8%, 제조업 16.0%, 건설업 5.9%, 농수산업 2.6%
 - 최저임금(2019) : 월 900 유로
 - 신용평가등급(무디스, 2018) : Baa1
 - UN인적개발지수(HDI, 2018) : 26위
 - 비즈니스 환경평가(Doing Business) : 30위
- 스페인은 2018년 기준 세계 14위의 경제대국이자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EU 5대 경제권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보유
- 관광업·자동차 제조업·건설업 등이 주요 산업이며, 전체 교역의 60% 가량이 EU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對EU 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
- 대표적 계절산업인 관광업·건설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실업률, 고용 불안정성이라는 구조적 약점으로 작용
- 역사·문화·언어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들과 긴밀한 상호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중남미 진출을 위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 국가
 - 유럽~남미 항공노선의 35%가 마드리드에 집중
 - 다수의 다국적 기업 중남미 본부가 스페인에 위치
 - 중남미 17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 19개국과 투자보장협정 체결
- 1975년 30년 넘게 독재를 펼쳤던 프랑코 총통 사망 이후, 스페인은 1977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하며 개방경제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이후 유럽 공동체의 일원으로 경제개방과 시장 자유화를 수용하고 EU 보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며 산업 발전 달성

- 2000년대 초반 ▲이민법 완화로 인한 남미·아프리카 이민자 대거 유입 ▲유로존 가입 이후 낮아진 금융 비용 등으로 인해 부동산 붐이 발생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며 극심한 경기침체 발생
-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추진, 2014년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2015~2017년 3년간 3%대 성장률(EU 평균 2배 수준) 기록

스페인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

부문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농축수산업	2.5	2.5	2.5	2.6	2.6
제조업	13.2	12.9	12.9	16.4	16.0
건설업	5.6	5.1	5.1	5.2	5.9
서비스	67.8	66.8	66.9	66.4	64.8
- 상업/교통/숙박업	21.9	21.2	21.4	21.4	21.6
- 정보통신업	18.6	3.8	3.8	3.8	3.8
- 금융보험	3.6	3.6	3.6	3.6	3.6
- 부동산업	11.1	10.2	10.0	9.8	9.5
- 전문서비스	6.7	7.2	7.5	7.6	7.6
- 공공행정/보건/교육	16.9	17.1	17.0	16.6	16.3
- 예술/오락/기타서비스	3.9	3.7	3.6	3.6	3.5
기타	8.8	9.3	9.3	9.3	9.5
합 계	100	100	100	100	100

출처 : 스페인 통계청

업종별 고용 비중

(단위 : %)

부문/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농축수산업	4.3	4.3	3.0	3.0	3.8
제조업	13.7	13.6	13.2	14.2	12.1
건설업	5.7	5.9	6.3	6.0	6.1
서비스	76.3	76.2	77.5	76.9	77.9

출처 : 스페인 통계청

2 주요 산업

가. 관광산업

- 스페인은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2018년 해외 관광객 유치 세계 2위(약 8,200만명), 해외 관광수입 세계 2위(약 1,000억 달러) 기록
- 2017년 세계관광여행협회(WTTC) 발표 기준 스페인 관광산업 규모는 1,780억 유로로 전체 GDP의 약 14% 수준
- 유관 산업인 MICE(컨벤션·비즈니스 관광) 산업 역시 발달, 스페인은 2018 국제컨벤션 콩그레스협회(ICCA) 국제회의 및 컨벤션 개최 랭킹에서 3위 기록(595회)
 - ※ 도시별 순위는 마드리드 3위(165회), 바르셀로나 4위(163회)
 - 마드리드는 2018 월드 트래블 어워즈(World Travel Awards) 유럽회의 컨퍼런스 부문 수상
 - 매년 2월 말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 Mobile World Congress)가 대표적
- 관광업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스페인 경제 회복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전체 교역 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

- 최근 지중해 주변국(모로코·이집트 등)들의 정세안정에 따른 관광 수요 분산으로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방문객 증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스페인 정부는 상품 다양화 및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 중
- 주요 국가별 방문객 현황 (2018년 기준)

순위	방문객 수
영국	1,850만 명
독일	1,140만 명
프랑스	1,130만 명
북유럽	570만 명
이탈리아	440만 명
한국	49만 명

나. 자동차 산업

- 자동차 산업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제조업이자 제1의 수출 업종(전체 수출의 약 18%)으로 9개 브랜드 17개 제조 공장 운영
 - 자체 완성 브랜드는 없으나 관련 부품산업 등 탄탄한 제조 클러스터 보유
- 2018년 기준 유럽 2위, 세계 9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총 281만 대의 차량 생산
- 아프리카·유럽·미주 대륙을 잇는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생산된 차량의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 중이며, 자동차 산업의 규모는 전체 GDP의 10% 수준
- 동구권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일부 생산 설비의 이전이 이뤄지며 유럽 내 조립생산 기지로서의 위상이 다소 흔들리고 있으나 관련 설비 및 R&D 투자 지속
- 2040년 이후 화석연료 소비형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정부 정책이 2018년 11월 발표됨에 따라, 친환경 차량 생산 체제 구축이 중대 과제로 부상
 - 스페인 자동차 시장의 전기차 비중은 0.22%로, 2%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독일·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에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
- 이와 더불어 스페인은 철도차량 제조업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초고속 열차(AVE)를 세계에서 4번째로 개통하였으며, 고속철 총연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 스페인 초고속열차(AVE) 사우디에 수출 (2018.10월 운행 개시)

다. 건설업

- 스페인은 전 세계 해외 건설 수주 시장에서 수위(2013년 1위, 2014년 이후 중국에 이어 2위)를 다투는 건설 강국으로, 특히 언어·문화적 토대가 유사한 중남미 지역 및 중동 지역에서 강세
 - 항공·항구·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정유·수처리 등 플랜트 수출에서 두각
- 2018년 미국 건설 전문지 <ENR> 선정 세계 100대 시공사(해외건설 매출 기준)에 총 7개의 스페인 기업 포진

<ENR> top 100 건설사 내 스페인 기업 현황

2018	2017	기업명
7	7	ACS
22	25	FERROVIAL
50	48	FCC
55	63	TECNICAS REUNIDAS
66	87	ACCIONA INFRAESTRUCTURAS
90	95	SACYR
91	75	O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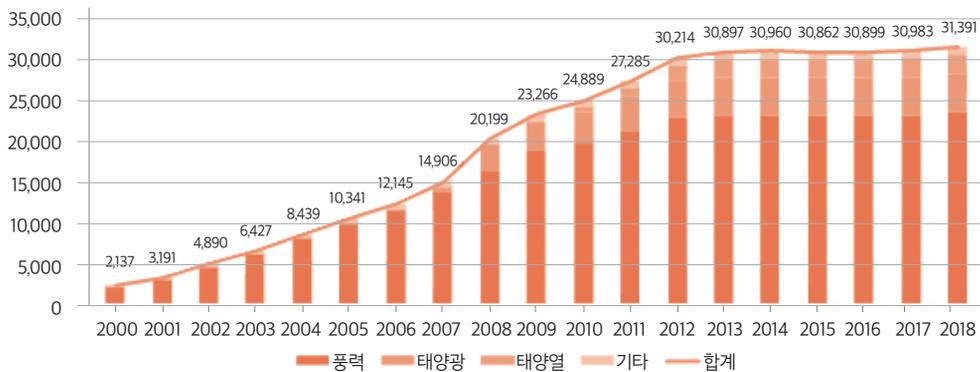
출처 : ENR

- 스페인 건설사들은 사업 발굴, 기본 설계, O&M(운영 및 유지보수)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주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 유지
- 2000년대 부동산 건설 붐 시기에는 전체 신규 고용의 20%가 건설업 종사자였으나,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관련 일자리가 일시에 사라지며 오히려 실업률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

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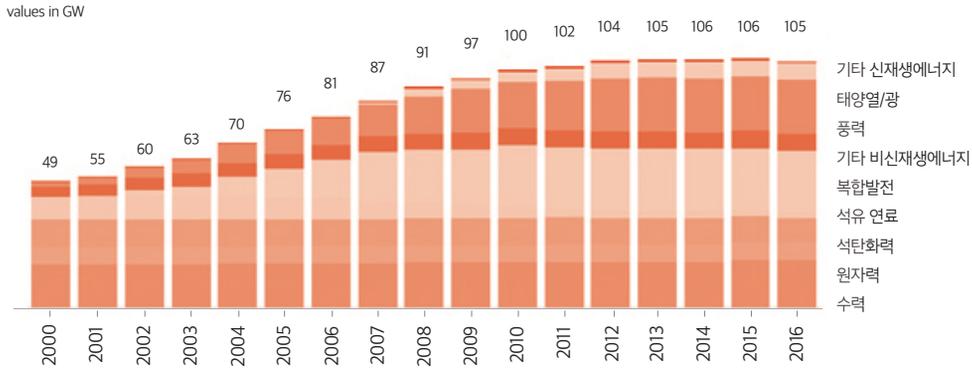
-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기준 풍력발전 세계 5위, 태양열발전 세계 1위, 태양광발전 세계 10위 등 기록
- 가메사(Gamesa), 악시오나(Acciona), 아벤고아(Abengoa), 이베르드롤라(Iberdrola) 등 전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남미·아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 2018년 6월 집권한 산체스 정부가 친환경 경제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함에 따라 동 분야의 신규 설비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30년까지 최종 소비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5%로 확대
 -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0% 감축
 -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 2030년까지 매년 50,000~60,000MW 상당의 신규 발전설비 수요가 존재함에 따라 해당 분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추이(MW)



출처 : 스페인 전력거래소(REE)

스페인 전력발전구조 변화 추이 (2000 ~ 2016)



출처 : 스페인 전력거래소(REE)

마. 제약산업

- 2018년 기준 유럽 내 5위 판매시장(매출액 195억 유로)으로 다국적 제약회사 유치 및 정부 주도 의약품 개발 정책에 힘입어 제약산업 규모 지속 확대
- 제약산업 종사자는 약 4만 명으로 유럽 내 6위권이며, 제약산업의 R&D 투자는 전체 R&D 투자의 20%로 매우 높은 수준
- 2018 세계의약품전시회(CPhI) 선정 제약 품질 랭킹에서 스페인은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4위 기록

바. 항공우주/방위산업

- 스페인은 독일·프랑스·이탈리아와 함께 EU 주요 우주항공산업 국가로, 2018년 기준 매출 규모는 118억 유로이며 5만 4,000여 명이 종사
- EU의 다국적 항공우주 및 방위사업 기업인 에어버스(Airbus)의 군용기 및 수송기 사업 본부(Airbus Defence and Space)가 스페인 헤타페(Getafe) 및 세비야(Sevilla)에 위치
 - 우리나라는 2018~2019년간 Airbus Defence and Space로부터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헤타페 공장에서 제작)
- 이와 더불어 스페인 인드라(Indra) 사가 개발한 항공관제시스템의 시장점유율은 30%에 육박하며, 현재 인천공항을 비롯한 국내 주요 공항들도 인드라 시스템을 사용 중
- 또한 300년의 역사를 가진 스페인 국영 조선소인 나반티아(Navantia, 유럽 5위 규모)는 군 함정·잠수함 등 방산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평

사. 기타 산업

- **(금융업)** 자산 규모 기준 세계 50대 은행 중 2개를 보유
 - 산탄데르(Santander) 14위, BBVA 40위(2018.5월 Bankers Almanac)
- **(통신업)** 텔레포니카(Telefonica)는 스페인 및 중남미 최대 통신사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무선 통신망을 보유한 회사이자, 차이나 모바일, 보다폰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고객 보유
 - 2004년 미국 벨사우스 남미 사업부를 전격 인수하며 남미 공략을 본격화한 이후 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칠레·콜롬비아 등에서 1위 통신사업자로 등극
- **(포도주)** 스페인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세계 최대 와인 수출국(2018년 2,500만 헥토티터) 위치에 올라 있으나, 수출 금액은 33억 달러(2018년 기준)로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3위
 - 스페인 주요 와인 생산 기업으로는 미겔 토레스(Miguel Torres), 펠릭스 솔리스(Félix Solís) 등 유명
- **(의류)** 스페인을 대표하는 의류 기업인 인디텍스(Inditex)는 8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자라(Zara)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패션 브랜드 중 하나

3 교역 및 해외투자

가. 교역

- 스페인은 2018년 기준 세계 15위 교역국(수출 16위, 수입 15위)으로 스페인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총 교역액은 7,134억 달러(수출 3,368억 달러, 수입 3,766억 달러)
-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달러 대비 유로 가치 하락 ▲임금 억제에 따른 수출품 가격 인하 효과 등에 기인하여 스페인의 대외 수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러한 수출 증대는 내수 위주의 경제에서 대내외 균형을 갖춘 경제로의 체질 개선에 일조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철강류, 의류, 식음료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에너지, 화학제품 등

2018년 주요 품목별 수출입 비율

(단위 : %)

지역	수출	수입
자본재	20.0	20.6
화학제품	14.3	15.3
자동차	15.6	12.6
식료품	16.1	11.0
소비재	10.0	11.5
에너지	7.9	15.0

출처 : 스페인 경제부

스페인 대외 교역액(2014~2018)

(단위 : 억 유로)

교역액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2,405	2,497	2,563	2,771	2,850
수입	2,655	2,747	2,737	3,018	3,188

출처 : 스페인 투자진흥청

- 2018년 9월 기준 전체 수출의 65.8%, 수입의 53.9%가 EU 회원국과의 교역에서 발생

지역별 수출입 비율(2018년 기준)

(단위 : %)

지역	수출	수입
EU	65.6	53.8
유럽 비EU국가	5.7	5.8
북미	5.1	4.7
남미	5.4	5.7
아시아	9.2	20.7
아프리카	6.5	8.7

지역	수출	수입
오세아니아	0.7	0.3
기타	1.6	0.0

출처 : 스페인 경제부

나. 해외투자

- EU 및 유로존 가입은 스페인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스페인은 해외직접투자 유입(9위, 440억 달러), 투자(12위, 320억 달러)에서 각각 세계 9위, 12위를 기록 중

2018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순위

(단위 : 10억 달러)

순위	유 입		투 자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미국	252	일본	143
2	중국	139	중국	130
3	홍콩	116	프랑스	102
4	싱가포르	78	홍콩	85
5	네덜란드	70	독일	77
6	영국	64	네덜란드	59
7	브라질	61	캐나다	50
8	호주	60	영국	50
9	스페인	44	한국	39
10	인도	40	싱가포르	37
11	독일	35	러시아	36
12	멕시코	30	스페인	32

출처 : UNCTAD 2019 세계투자보고서

- 對스페인 최대 해외투자국은 미국이며, 이 밖에 영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 등이 주요 투자국
- 1990년대 남미 시장에 집중되었던 스페인의 對해외투자는 최근 북미(미국·캐나다) 시장으로 확대는 추세
 - 스페인의 최대 해외투자 목적지는 영국이며, 브라질·미국·캐나다·칠레·멕시코 등이 주요 투자처

4 최근 경제 동향

가. 경제위기 극복

- 2008년 금융위기로 스페인 부동산 버블이 붕괴된 후, 2013년까지 5년간 마이너스 성장
- 2011년 집권한 보수 성향의 라호이 총리(국민당, PP)는 집권 기간(2011~2018)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통해 위기 극복 및 경제체질 개선에 성공
 - 많은 대내외 전문가들도 라호이 총리 집권 이후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점, 유사한 시기에 경제위기를 겪었던 여타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 1년 만에 구제금융을 탈출했다는 점을 들어 모범적 위기 극복 사례로 평가
- 관광산업의 호황과 가격경쟁력을 회복한 스페인 제품들의 대외수출 확대가 경제 회복을 주도
-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고용창출 노력 결과 2013년 26.1%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 14.5%까지 하락
-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사회노동당(PSOE, 현 집권당) 및 노동계에서는 생산성 증대를 이유로 노동자 계층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이유로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만든 라호이 정권의 노동정책 때문에 실제 민생 경제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주장
 - 전반적인 반등에도 빈부격차 확대, 고용안정성 악화 등과 같은 부작용은 확대되었으며, 재정적자도 계속해서 EU 합의안을 초과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성장률	-1.0%	-2.9%	-1.7%	1.4%	3.4%	3.3%	3.1%	2.6%
유로존 성장률	1.6%	-0.9%	0.3%	1.3%	2.1%	1.8%	2.4%	1.8%
실업률	21.4%	24.8%	26.1%	24.4%	22.1%	19.6%	17.2%	14.45%
수출 (백만 유로)	2,202	2,298	2,393	2,442	2,545	2,620	2,837	2,850
수입 (백만 유로)	2,705	2,625	2,564	2,701	2,812	2,810	3,103	3,188
재정적자	-9.6%	-10.5%	-7.0%	-6.0%	-5.3%	-4.5%	-3.1%	-2.6%
공공부채	69.5%	85.7%	95.5%	100.4%	99.4%	99.0%	98.1%	97.1%

나. 라호이 총리 주요 경제개혁 내용

- 긴축재정 정책
 - 공공부문 지출 억제(공공투자 14% 축소, 공무원 임금 5% 삭감, 연금 동결 및 정년연장, 출산장려금 폐지 등), 부가가치세 2% 인상, 자본이득세 1% 인상, 세금환급 폐지 등 실시
- 금융개혁
 - 2008년 부동산 버블 붕괴와 함께 주택 구매에 무차별 대출을 시행해 온 은행들 또한 부실화되었고, 스페인 정부는 동 부실 금융기관들의 자본 확충을 위해 2012년 EU에 구제금융(413억 유로) 신청(이후 1년 반 만에 구제금융 졸업)
 - 구제금융 지원 조건 이행 차원에서 스페인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실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자본 확충 및 부실자산 정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45개에 달하던 저축은행이 2개로 축소
 - 이후 금융 부문의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이 나아졌으나 부실채권 및 높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 등의 문제점은 잔존
- 노동개혁
 - 과거 스페인 노동시장은 단체교섭이 산업별·지역별로 이뤄져 개별 회사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상승률을 일괄 적용해 왔다는 점과 정규직의 경우 해고 절차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
 - 스페인 정부는 2012년 초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제고를 위해 ▲기업의 해고 비용 부담 축소 및 절차 간소화 ▲단체교섭 협상 단위 조절 ▲기업 고용유연성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동개혁 실시

※ 주요 노동개혁안

- 1) 해고 비용 및 절차 조정: 1) 해고 정당화 기준 완화(예를 들어 회사 매출 및 손익이 3분기 연속 하락할 시 해고 정당화), 2) 해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 수준 완화(퇴직수당 계산 기준 일수를 45일치에서 33일치로 낮추고 최대 42개월분 급여 지급에서 24개월분 지급으로 한도 조정), 3) 집단해고의 경우 관련 행정적 요구 절차 제거
- 2) 단체교섭 단위 조절: 기초임금, 보조임금, 시간외수당, 근무시간 분배 등 다수의 분야에서 회사 수준의 단체교섭 허용
- 3) 기업의 유연성 증대: 단체협약을 통해 합의된 근로조건 이외의 부분에 대해 사측의 근로조건 수정을 가능토록 변경
- 4) 상호 재협상 촉진: 유효기간이 지난 단체협약 사항의 효력을 1년까지만 유효하도록 제한(기존 무제한)

• 조세개혁

- 개인소득세·부가가치세·특별세 인상 및 세금감면 혜택 폐지 등 세금 인상 정책 추진
※ 부가가치세 인상(기본 세율 18%→21%, 할인세율 8%→10% 등)
※ 환경세·유류세 등 특별세 인상,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중단

• 연금개혁

- 2012년 65세였던 퇴직 정년을 2013년부터 매년 1~2개월씩 점진적으로 연장하여 2027년부터 67세로 유지
- 연금 수령액 산정 기준도 매해 1년씩 증가, 기존의 정년 이전 15년에서 2022년부터 정년 이전 25년으로 변경

다. 산체스 신정부 출범 및 주요 경제 과제

- 2018년 6월 라호이 총리 불신임안 통과로 중도진보 성향의 사회노동당(PSOE) 정부가 들어서며 경제정책 기조에 큰 변화
 - 새로 집권한 사회노동당 정부는 국민당(PP)의 긴축재정 및 노동개혁 등의 구조조정 정책에 부정적 입장 견지
 - 긴축 대신 일부 확장적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 개선,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사회보장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
- 산체스 정부의 주요 경제 과제는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 실업률(2018.8월 기준 15.2%) 해소 ▲국민연금 개혁 ▲경제생산성 향상 등
 - 경제위기 이후 스페인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100% 수준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는 자금조달 및 공공 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2018년 스페인 정부 예상 재정적자는 2.7%로 경제위기 이후 처음으로 3% 이내로 떨어질 전망이나 다시 악화될 가능성 상존

- 실업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EU 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청년 실업 ▲높은 비정규직 비율 ▲저숙련 인력의 장기실업 등 고질적 문제 지속
- 연금 인상률을 억제해 왔던 지난 정부와 달리 산체스 정부는 물가상승률(IPC)과 연금 인상률을 연동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확립 시급

라. 산체스 총리 개혁 이행 상황

- 산체스 총리는 취임 6개월 만인 2018년 12월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청년실업 대책, 2019년 국민연금 및 최저임금 인상, 교육예산 삭감 법안 폐지 등을 발표
 - 다만 국민당(PP) 정부가 제정한 노동법(2012) 및 시민안전법(2015) 개정, 연금 및 조세 제도 개편 등은 소수 여당의 한계와 각 이익집단의 반발 등으로 인해 난관 예상
 - 또한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 축소 목표도 신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및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 유입 불충분으로 인해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변환 로드맵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현 시점 대비 37%)
 - 2050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 2040년 이후 화석연료(휘발유·디젤 등) 차량 판매 금지, 2050년부터 전면 주행 금지
 -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새로운 환경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 진행)
- 청년실업 대책
 - 2019~2021년간 신규 일자리 창출 통한 청년실업률 10% 감축을 위해 20억 유로 투입
 - 청년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 조건을 엄격히 제한
- 2019년 국민연금 및 최저임금
 - 국민연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인 1.7%에 연동
 - 최저임금 22% 인상 및 2019년 1월 1일 일부 적용(예산안 통과 여부와 관계 없이 총리령 시행)
- 교육예산 삭감 법안 폐지 및 대체 법안 입법
 - 학급별 학생수 및 교사당 최대 수업시간 등을 제한

마. 향후 전망

- 경제회복의 성숙 단계 진입 및 중기적 위험 변수 출현 등으로 2019년 들어 경기둔화가 가시화되기 시작

- 그간 호조를 보여왔던 대외부문(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핵심 서비스 산업인 관광업 상승세도 둔화
- 2015~2017년 3년 연속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18년 2.6% 성장하며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스페인 정부는 2019년 2.2%, 2020년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양적완화, 저유가 등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대외 환경 요인들 역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률 제고 정책이 필요한 상황
-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강행 여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독일 경제 침체 등이 대외 위험변수

스페인 경제 전망 지표(2018.12월 기준)

(단위 : %)

주요 지표	2017	2018	2019	2020	2021
GDP	3.0	2.5	2.2	1.9	1.7
실업률	17.2	15.3	14.3	13.3	12.4
민간소비	2.5	2.4	1.9	1.5	1.3
공공소비	1.9	2.1	1.6	1.2	1.2
고정자본 형성	4.8	6.2	4.7	3.6	2.7
- 설비투자	5.7	7.8	5.9	3.8	3.0
- 건설투자	4.6	6.1	4.5	3.7	2.8
수출	5.2	1.8	3.4	4.0	3.8
수입	5.6	3.8	4.1	4.1	3.8
내부기여	2.9	3.1	2.4	1.9	1.6
대외기여	0.1	-0.6	-0.2	0.0	0.1
재정적자	-3.1	-2.7	-2.4	-2.0	-1.8
공공부채	99.0	97.6	95.4	92.5	

출처 : 스페인 중앙은행(단, 공공부채는 재무부)

PART 8

사회·문화

1. 주요 지표 및 특징
2. 각종 사회정책 기조
3. 언론 개관



1 주요 지표 및 특징

가. 주요 사회 지표

- 인구 : 4,693만 명 (2019.1월)
 - 연령별 구성 : 0~14세(15%), 15~64세(66%), 65세 이상(19%)
 - 인구성장률 : 0.59%
 - 평균수명 : 83.2세(전체,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2위), 80.5세(남), 85.8세(여)
 - 출산율 : 1.25명 (여성 1인당 평균 출산 수, 2009년 이후 최소 수치)
 -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총인구는 2016년에 이어 3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순유입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2018년 총 유입 인구는 64.3만 명으로, 그중 약 55.9만 명(86.9%)이 외국 이민자)
- 종교 : 가톨릭 66.3%, 무신론 28.5%, 기타 5.2%
- 언어 : 스페인어 90% (카스티야 지방어가 공식 언어)
(지방 언어 : 카탈란어 11%, 갈리시아어 5%, 바스크어 2%, 기타 3%)

나. 사회적 특징

- 스페인은 다민족사회로 지역주의가 강하며, 일부 자치도(바스크·카탈루냐·발렌시아 등)에서는 스페인어와 확연히 구분되는 고유 언어도 통용
 - 1975년 프랑코 총통의 권위주의 체제 종식 이후, 민주화 전환기를 거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바탕한 현재의 통합 스페인 건설
- 사회연구센터(CIS)가 2019년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현대 스페인 국민들은 실업(61.8%), 정세(38.1%), 경제문제(25.7%), 부정부패(25.1%), 보건 및 건강(15.8%), 고용의 질 문제(14.9%), 카탈루냐 정세 불안(11%), 이민(11.8%) 등을 주요 사회문제로 지적(중복투표 허용)
 - 특히 실업을 근 10년째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 또한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된 이후 중앙 정부 및 카탈루냐 주정부 간 정치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새로운 불안 요소로 부상

다. 문화적 특성

- 라틴계 스페인인이 주를 이루며, 원주민인 이베리아인·로마인·게르만인·아랍인 등 다양한 종족이 혼혈된 민족 구성은 스페인의 문화적 다양성 및 독창성의 근원
- 플라멩코를 비롯한 많은 민속무용이 발달했으며, 프랑스·이탈리아·아랍풍의 다양한 양식의 건축술이 발달했고 가우디와 같은 세계적인 건축가도 배출
 - 그 외에도 피카소·달리 등 현대 미술계의 거장들을 배출한 국가
 - 세계 3대 테너 중 2명(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이 스페인 출신일 정도로 음악 강국
- 역사적으로 로마·아랍 지배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를 융합·발전시키는 독특한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711년부터 1492년까지 아랍의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다수 존재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유적지만 무려 47개로,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나라

라. 기타

- 스페인은 뜨거운 태양, 지중해성 기후와 미식 문화, 세계적으로 약 6억 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스페인어의 본고장, 문명 간 연대(유럽-아프리카, 유럽-중남미)의 교차점 등으로 유명
- 수도 마드리드의 상징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콤투로 토레스(Cuatro Torres, '4개의 탑'이라는 의미)라고 불리는 4개의 고층 빌딩, 스페인 국토 정중앙에 위치한 솔(Sol) 광장 등
- 스페인 국민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열정적이며 쾌활한 성격이며, 개방적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무적함대를 기반으로 한때 전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과거 제국 시절에 대한 자긍심을 보유

마. 기후

- 스페인에 대해서 더운 '남쪽 나라'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우나 실제로는 상당히 위도가 높은 '북쪽 나라'로, 겨울도 있고 눈이 내리는 곳도 많으므로 겨울철 의복도 필요
 - 봄 : 3월 초순부터 5월 말까지로 기온은 15~25℃까지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며, 우기철에 해당. 특히 4월 중순~5월 초순경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우박까지 내리는 경우도 있어 6월 초순까지 두꺼운 옷 필요

- 여름 :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로 고온·건조하며, 특히 7~8월은 혹서기로 기온이 40~45℃까지 올라가나 습도가 낮아 체감 기온은 실제 온도보다는 낮은 편
- 가을 : 9월 중순~11월 초까지로 기온은 20~30℃ 정도로, 비가 내리기도 하는 편
- 겨울 : 11월 중순~2월 말까지로 우리나라의 초봄에 해당하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나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0~10℃ 안팎을 유지하며, 마드리드 시내에는 거의 눈이 내리지 않는 편

2 각종 사회정책 기초

가. 사회보장·의료보험

- 스페인 사회보장제도는 1978년 설립된 ▲국립사회보장청(INSS) ▲국립보건청(INS) ▲국립사회서비스청(INSS) 등 여러 관련 기구가 각 분야를 담당
- 사회보장 분야 개혁을 위한 협약(Acuerdo Sobre Medidas en Materia de Seguridad Social, 2006)
 - 스페인 정부, 노동조합 및 기업연합단체가 수년간의 협상을 통해 2006년 7월 타결한 역사적인 협약으로, 오늘날 스페인 사회보장제도의 기틀로서 방향성 제시
 - 상기 협약은 스페인이 당면한 ▲인구 노령화 ▲여성인구 근로시장 진출 확대 ▲이민 증가 등의 새로운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수립에 초점
 - 주요 내용은 ①사회보장기금의 세입-세출 간 균형 확보 ②비공여 보장성 활동 개선 ②퇴직연금, 영구장애 연금, 미망인 연금, 고아 연금, 일시장애 보조금 등의 혜택 시기 및 금액 조정 등
- 성별, 신분 및 직업에 관계없이 스페인에 거주하는 스페인 국민 및 모든 합법적 신분의 외국인인은 가입 가능하며, 기본보장(의료보험, 연금 등 비공여기금, 가정보호 등)과 공여 및 직업상의 보장(의료 혜택, 출산보조금, 연금, 실직기금) 등 크게 2가지로 구분
 -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진료비가 없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진료 거부 불가(산체스 정부는 2018.7월 과거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당 정권이 축소된 의료보험 혜택의 적용 범위를 다시 보편적 수준으로 확대)
- 산체스 정부는 소비자가지수(IPC)에 따라 연금액을 재조정하는 등 집권 기간에 각종 연금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공표

나. 사회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자녀 지원 확대
 - 사회노동당은 라호이 정권 당시 빈곤 가정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을 지속 비판해 왔으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필수영양소 공급 ▲여름 휴가철 보육기관 혜택 등을 골자로 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공언
- 최하 소득층 주거 지원
 -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최하 소득층에 대해 ▲대출 혜택 ▲연간 주거비 일정 한도 내 지원 등 제공
- 한부모 가정 지원
 - 2017년 기준 스페인에는 미성년자의 총 14.6%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과부수당 ▲취업정보 제공 ▲고아 수당 등을 지원

다.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권익 확대

- 양성평등
 - 스페인은 2000년대 초반까지 유럽에서 양성평등 제도화가 가장 더딘 국가 중 하나였으나, 2005년 남녀간 성차별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담은 ‘양성평등 시행령’ 채택 이후, 사회 전반의 성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평가(현재 스페인 남녀평등지수는 세계 약 20위권 수준)
 - 2007년 ‘실질적 남녀평등을 위한 국왕령’이 공포되면서 직장 및 가정 등 사회 일상에 남아 있는 양성평등 방해 요소들을 상당 부분 제거
 - 2018년 6월 집권한 산체스 정부는 지난 2008년 만들어졌다가 2010년 보건부와 합쳐진 양성평등부를 부활시켰으며, 취업 및 사회보장제도에 양성평등을 위한 장치를 포함할 것임을 천명
-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
 - 현 집권당(PSOE) 산체스 총리는 직전 라호이 국민당 정부 당시 정부 주요 직위 여성 고용률이 3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고위직 고용률이 낮았다는 사실을 비판하며, 2018년 6월 집권과 동시에 내각의 64.7%(총 17개 장관직 중 11개)에 여성 장관을 임명
 - 스페인은 현재 세계에서 여성 장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 가정폭력 방지 대책

- 1990년대부터 가정 내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담 법원 설치, 관련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1995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현 산체스 정부는 2018년 6월 가정 내 폭력 피해 여성이 사회적 지원을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동 법률 개정

라. 난민 관련 정책

- 스페인은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중해를 통해 유럽으로 건너오는 3대 루트 중 하나(서부루트)로서, EU 28개 회원국 중 난민 보호 신청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
 - 난민 보호 신청자들에 대해서 개별적·국가적 상황 등을 고려해 내무부 산하 '망명·난민청'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하며, 보호 신청을 허가한 난민 수는 5,952명(2014)→14,887명(2015)→16,544명(2016)→31,738명(2017)→26,111명(2018년 상반기)으로 점차 증가
 - 난민 신청부터 수용 여부 결정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인 최장 24개월 동안 난민 수용 시설에서 체류 가능하며, 노약자·장애인·여성·폭력 피해자 등이 우선 수용 가능 대상(난민수용센터 거주자들은 기초생활비, 출산비용, 의료비, 의류비, 미성년자 학비, 여가생활비 및 직업훈련 지원)
- 현 산체스 정부는 전임 라호이 정부와 달리 인도주의 차원에 입각하여 온건한 난민 수용 정책 유지
 - 2018년 6월 출범 직후 이탈리아·몰타가 입항을 거부한 난민구조선 아쿠아리우스(Aquarius)호(난민 629명 탑승)의 발렌시아 항구 입항을 허가함으로써, 난민 문제에 대한 유럽 차원의 관심 환기
 - 신정부 구성 시 기존의 고용사회보장부를 노동이민사회보장부로 개편, 난민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 및 해결 의지 표명
 - 특히 보편적 공공의료제도 재정립을 통해 스페인 국민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자들에게 공공의료를 보장하는 입법 추진
- 한편으로 현 정부의 난민 포용 정책이 지속될 경우 난민 수용력이 조만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며, 지방정부 간 난민 수용 배분에 대한 갈등 표출 및 일부 야당의 비판 등 부정적 여론도 존재

마. 동성혼 합법화

- 스페인은 2005년 6월 민법 개정을 통해 세계에서 4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하였으며, 합법화 13년째를 맞은 2018년 기준 스페인에서 공식적인 동성 부부 또는 동성 커플은 7만 8,900쌍(전체 인구의 0.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2017년 동성간 혼인신고 건수는 총 4606건)
 - 스페인 성소수자연합(FELGTB)은 여전히 동성 부부의 자녀들이 학교에서의 '가족관계 조사' 등의 제도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

바.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

- 스페인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나, 전통적으로 가톨릭 교회의 특별한 지위 인정
 - 다만, 현 산체스 정부는 가톨릭 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스페인 내 4만여 개의 역사적 유적 및 성당 등을 교회 소유로 등록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누려온 점을 비판하면서, 동 유적들을 공공의 소유로 환원시키려고 시도 중

사. 교육 정책

- 6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은 국가 의무교육 대상
- 학제
 - 영유아 과정(0~6세) : 선택 교육으로, 1단계(0~3세) 및 2단계(3~6세)로 나뉘며, 2단계는 무상교육(현재 실질적으로 3~6세 유아의 100%가 유치원 보육 수혜 중)
 - 초등(6~12세) 및 중등(12~16세) 과정 : 무상 의무교육으로 본인 및 보호자 희망 시 18세 까지 최대 2년 연장 가능
 - 중등과정 졸업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고등학교 입학)에 진학하거나 ▲직업 교육 과정에 진학하거나 ▲취업 중에서 선택
 - 고등(16~18세) 과정 : 대학 진학 준비 과정으로 비의무교육

아. 교통·통신·우편 제도

- 교통은 여타 유럽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시내 및 간선 도로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4번째로 2008년에 마드리드~바르셀로나 간 초고속철 개통(고속철 총연장 세계 2위)
 - 공항 : 국영공항 49개 운영(2019)
 - 철도 총연장 : 15,327km(2017)
 - 육상 도로 : 총연장 166,274km(2017)

- 통신산업은 민영화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불편은 없으나 한국에 비해 장비 수준 및 시스템은 다소 뒤떨어진 편
- 우체국은 지역별로 단위 우체국(Sucursal de Correos)이 산재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초록색 우체통이 설치되어 있으나 배달 기간이 다소 느린 편이어서 사설 우편 서비스 회사(DHL, MRS, SEUR 등)가 성업 중

3 언론 개관

가. 일반

- 스페인에는 세계 5대 통신사 중 하나인 EFE 통신사와 군소 4개 통신사 존재
 - EFE는 중도 성향의 국영 통신사로 스페인 및 전 세계 80여 개국에 스페인어·영어·아랍어로 기사 송부(약 2,000여 계약사)
 - 군소 통신사 : 에우로파 프레스(Europa Press), 콜피사(Colpisa, Vo cento 그룹), 세르비메디아(Servimedia), ATLAS 등
- 스페인 언론 산업은 국영 통신사와 소수 언론 그룹(PRISA SER 등)이 중앙과 지방 언론을 보유하는 특성 보유

나. 주요 방송사

방송국명	특 성
텔레비시온 에스파놀라 (Televisión Española, RT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 방송국, 중도 성향 • 전국 네트워크 보유(스페인어, 카탈란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 발렌시아어 등 지역 언어 방송도 실시) • TV 2개 채널, 국제위성방송
텔레 싱코 (Tele Cin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 성향 • 전국 네트워크 민영방송 • 방송권 : 스페인, 유럽, 중남미

방송국명	특 성
안테나 3 (Antena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 성향 • 전국 네트워크 민영방송(국영 텔레포니카(Telefónica) 통신사) • 방송권 : 스페인, 유럽, 중남미, 미국
텔레마드리드 (Telemadri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 성향 • 마드리드 주립 방송사 • 방송권 : 마드리드 일원 • 교양·스포츠 프로그램 위주 편성
카날 플러스 (Ca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 성향 • 유료 케이블 TV 민영방송(엘파이스(El País) 소유주인 프리사(Prisa) 그룹) • 방송권 : 스페인 전역 • 위성 디지털 TV로 Digital + 운영 • CNN과 제휴, 스페인어 CNN 운영

다. 주요 일간지

사명	부 수(2019)	특 성
El País (3대 일간지)	121,403부 (최대 일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이나 최근에는 중도 성향이며, 현 정권(사회노동당)에 우호적 • 스페인 전역 및 중남미 배포 • 독자층이 일반대중으로 넓음
ABC (3대 일간지)	73,9303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적 성향 • 우익 장년, 중산층이 독자 • 국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룸
El Mundo (3대 일간지)	89,517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 성향이며, 전통적으로 정부 비판적 • 청년층이 주 독자
La Vanguardia (카탈루냐 지방지)	90,116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건 보수 성향이며, 카탈루냐에 본사 소재 • 바르셀로나 지방지이나 전국적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스페인 전역에 영향력 • 78%가 카탈루냐 구독자
El Periódico (카탈루냐 지방지)	60,833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건 진보 성향으로, 현 정권(사회노동당)에 우호적 • 중산층이 주 독자층 • 카탈루냐 2대 일간지로 경제 분야에 영향력 보유
La Razón	94,620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주요 일간지 중 가장 보수적 성향 • 우익 장년층이 주 독자

라. 주요 라디오

방송국명	특 성
Sociedad Española de Radiodifusión (S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사(PRISA) 그룹이 운영하는 민영 라디오, 중도 성향 • 스페인 전역에 4개 채널, 175개 지역국 보유
Cadena C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톨릭 재단이 소유한 민영 라디오, 보수적 성향 • 2개 채널(마드리드 전용, 전국) 보유
Onda Cer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tres Media 그룹이 운영하는 민영 라디오
Radio Nacional de España (R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영 라디오, 중도 성향 • 스페인 전역에 22개 지역국 및 국제방송 채널 운영
RAC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탈루냐 지방 라디오, 청취자 수는 약 100만 명
Es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dena COPE에서 2009년 분리된 신생 민영 라디오 • 스페인 전역에 1개 채널 보유

PART 9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외교 관계
2. 통상·경제협력
3. 동포 현황
4. 명예영사 현황
5. 친한단체
6. 인적·문화교류 현황
7. 주요 인사 교류



1 외교 관계

가. 역사적 관계

- 스페인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로 원래 일본에서 활동하던 세스페데스(Céspedes) 신부가 임진왜란 발발 시 1593년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조선에 와서 1년 정도 체재
 - 세스페데스 신부는 로마 교황청에 일본군의 학살과 약탈을 비난하고 조선 국민의 저항 정신과 뛰어난 문화를 기술한 서한을 송부하는 한편, 일본군에 잡혀간 우리나라 민간인 2천여 명에게 영세를 주기도 하는 등 조선에 호의적
 - 스페인 카스티야 라 만차(Castilla la Mancha) 주정부는 1991년 11월 9일 세스페데스 신부의 발자취를 통한 한-스페인 간의 유대 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그의 아버지 고향인 비야누에바 데 알카르데테 시(市)에 기념문화센터를 건립
 - 세스페데스 신부가 최초로 상륙한 진해(창원시)와는 1996년 자매도시 결연 체결
 - 2015년 진해(창원시)에 세스페데스 공원이 건립되었으며, 비야누에바 데 알카르데테 시와 같은 기념 조형물을 함께 설치
-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은 1946년 바르셀로나에 초청받아 연주회를 열었는데, 그때 로리타 탈라베라라는 스페인 여성을 만나서 결혼
 - 이후 1965년 사망할 때까지 지중해 마요르카 섬에서 오케스트라 창단 등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다가 여생을 마쳤으며, 현재 마요르카 시내에 ‘안익태 거리’와 ‘안익태 기념비’(2006.4월 경기도, 안익태기념재단이 건립) 설치

나. 스페인의 對한국 정책

- 對한국 관계
 - 1950년 수교 이래 우리나라의 전통 우방국 중 하나로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
 - 2000년대 들어 스페인 정부는 대아시아·태평양 외교강화 정책(Plan Asia)의 일환으로 일본, 중국 및 인도 등과 함께 한국과의 실질협력 관계 증진에 주목
 - 특히 2010년 이후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래 스페인은 EU·유럽 중심의 협력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된 아시아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더욱 절감

- 2018년 4월 발표한 「2018-2022 스페인의 대아시아 전략적 비전」에 따르면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과학기술·혁신 및 교육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고, 한국을 인적교류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큰 아시아의 주요 협력 대상 국가로 인식
- 민주주의, 인권, 자유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유사입장국가(like-minded country)로 인식
- **對북한 정책**
 - 1982년 펠리페 곤살레스 사회노동당(PSOE) 정부 출범 이후에도 스페인 정부의 한국과의 단독 수교 원칙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주요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의 한국 지지 정책을 지속 견지
 - KAL기 피격 시 이베리아(Iberia) 항공 소련 취항 중단
 - 미얀마 아웅산 사건 시 대북한 제재 조치 등
 - ※ 1983년 펠리페 곤살레스(Felipe González) 사회노동당 정부는 각의에서 종래 한국과의 단독수교 정책을 재확인하고 대북한 관계 수립의 전제조건으로 ① 남북한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 남북한 UN 동시 가입 ③ 남북한 상호 승인의 3개 조건을 제시
 - 스페인 정부는 냉전 종식 후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 추진 등 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2001년 2월 7일 북한과 수교하였으나,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제법 준수, 인권 중시, WMD 비확산 등 자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기본 입장에 따라 한반도 관련 주요 사안에서 한국 입장 지지
 - 북한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비난해 왔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실현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근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

다. 정상외교 현황

- 1995년 9월 김영삼 대통령, UN 총회 계기 펠리페 곤살레스(Felipe González) 총리와 정상회담
- 1996년 10월 후안 카를로스(Juan Carlos) 1세 국왕 국빈방한,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
- 2000년 10월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José Maria Aznar) 총리, 서울 제3차 ASEM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계기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
-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스페인 국빈방문, 사파테로(Zapatero) 총리와 정상회담
- 2010년 11월 사파테로 총리 방한 (G20 서울 정상회의)
- 2011년 1월 김황식 총리 스페인 방문, 사파테로 총리와 회담

- 2011년 4월 김황식 총리, 중국 보아오포럼 참석 계기 사파테로 총리와 회담
- 2012년 3월 라호이 총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계기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 2014년 9월 박근혜 대통령, UN 총회 참석 계기 펠리페 6세 국왕과 정상회담

라. 주요 외교 일지

- 1950년 3월 외교 관계 수립 (양국의 주미대사관에서 각서 교환)
- 1962년 1월 겸임대사 교환 합의
- 1962년 6월 돈 루이스 가르시아 데 예라(Don Luis García de Llera) 주일대사 겸임 신임장 제정
- 1962년 11월 백선엽 주프랑스대사 겸임 신임장 제정
- 1966년 1월 이수영 주프랑스대사 겸임 신임장 제정
- 1967년 3월 주마드리드 명예총영사(루이스데세르나이에스피나(Luis de Serna Y Espina)) 임명
- 1969년 10월 주마드리드 명예총영사(페드로 크레스포 데 라라(Pedro Crespo de Lara)) 임명
- 1970년 4월 주스페인 상주대사관 개설
- 1970년 7월 최완복 대사 신임장 제정 (초대 상주대사)
- 1970년 11월 알폰소 메리 델 발(Alfonso Merry del Val) 주일대사 겸임 신임장 제정
- 1972년 3월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개설
- 1972년 10월 심홍선 대사 신임장 제정 (2대 상주대사)
- 1973년 10월 호세 마리아 아구아도 사라레기(José María Aguado Saralegui)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초대 상주대사)
- 1973년 12월 주라스팔마스 영사관 개설 (영사: 하유식)
- 1974년 4월 신상철 대사 신임장 제정 (3대 상주대사)
- 1974년 10월 바르셀로나 주재 명예영사 (하비에르 바스케스 에레로(Javier Vazquez Herrero)) 임명
- 1976년 6월 주라스팔마스 영사관, 총영사관으로 승격 (초대 총영사: 박찬극)
- 1978년 9월 루이스 쿠에르보 파브레가스(Luis Cuervo Fábregas) 대사 신임장 제정 (2대 상주대사)

- 1979년 7월 장재용 대사 신임장 제정 (4대 상주대사)
- 1981년 9월 연하구 대사 신임장 제정 (5대 상주대사)
- 1982년 4월 라비로 페레스-마우라 데 에레라(Ramiro Pérez - Maura de Herrera) 대사 신임장 제정 (3대 상주대사)
- 1983년 5월 탁나현 대사 신임장 제정 (6대 상주대사)
- 1986년 5월 페르민 프리에토-카스트로 루미에르(Fermín Prieto-Castro Roumier) 대사 신임장 제정 (4대 상주대사)
- 1986년 6월 윤찬 대사 신임장 제정 (7대 상주대사)
- 1987년 12월 주바르셀로나 총영사관 개설 (초대 총영사 : 명인세)
- 1988년 6월 장명관 대사 신임장 제정 (8대 상주대사)
- 1989년 4월 바스케스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 해임,
최원철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 임명
- 1989년 12월 조갑동 주바르셀로나 총영사 부임
- 1991년 10월 권태웅 대사 신임장 제정 (9대 상주대사)
- 1991년 11월 안토니오 코사노 페레스(Antonio Cosano Pérez) 대사 신임장 제정 (5대 상주대사)
- 1993년 6월 주바르셀로나 총영사관 폐쇄
- 1994년 3월 조광제 대사 신임장 제정 (10대 상주대사)
- 1996년 4월 현희강 대사 신임장 제정 (11대 상주대사)
- 1999년 3월 홍장희 대사 신임장 제정 (12대 상주대사)
- 1999년 3월 주라스팔마스 총영사관 폐쇄 및 분관 설치
- 2000년 5월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라몬 마시아 마르티(Ramon Masià Martí)) 임명
- 2001년 10월 이원영 대사 신임장 제정 (13대 상주대사)
- 2001년 12월 엔리케 파네스(Enrique Panes) 대사 신임장 제정
- 2003년 9월 장동철 대사 신임장 제정 (14대 상주대사)
- 2005년 7월 델핀 콜로메(Delfin Colomé) 대사 신임장 제정
- 2005년 11월 이춘선 대사 신임장 제정 (15대 상주대사)
- 2008년 9월 조태열 대사 신임장 제정 (16대 상주대사)

- 2008년 11월 후안 레냐 카사스(Juan Leña Casas) 대사 신임장 제정
- 2011년 6월 주스페인 한국문화원 개원
- 2011년 5월 오대성 대사 신임장 제정 (17대 상주대사)
- 2011년 5월 루이스 아리아스-로메로(Luis Arias-Romero) 대사 신임장 제정
- 2014년 7월 박희권 대사 신임장 제정 (18대 상주대사)
- 2014년 10월 곤살로 오르티스(Gonzalo Ortiz) 대사 신임장 제정
- 2018년 6월 전홍조 대사 신임장 제정 (19대 상주대사)
- 2018년 11월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Juan Ignacio Morro) 대사 부임
- 2019년 1월 주마르셀로나 총영사관 재개설 (허태완 총영사)

마. 협정 체결

-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일 1994.1.17, 발효일 1994.7.19)
- 범죄인인도조약 (서명일 1994.1.17, 발효일 1995.2.15)
-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일 1994.1.17, 발효일 1994.7.19)
- 항공운수협정 (서명일 1989.6.21, 발효일 1991.1.14)
- 선원 수첩 공인에 관한 각서 교환 (서명일 1975.4.18, 발효일 1975.5.18)
- 수산협력협정 (서명일 1974.2.28, 발효일 1974.2.28)
- 공업소유권에 관한 각서 교환 (서명일 1975.7.31, 발효일 1975.8.15)
-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서명일 1975.7.14, 발효일 1976.3.17)
-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 교환 (서명일 1971.3.8, 발효일 1972.4.8)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서명일 1994.1.17, 발효일 1994.11.21)
- 문화협력협정 (서명일 1994.1.17, 발효일 1994.4.28)
-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일 2009.3.23., 발효일 2012.12.1)
- 사회보장협정 (서명일 2011.7.14., 발효일 2013.4.1)
- 워킹홀리데이협정 (서명일 2017.12.18, 발효일 2018.10.24)
- 항공운수협정 전면 개정 (서명일 2018.12.20)

바. 정부간 협의체

1) 한·스페인 고위정책협의회

회수	일자	개최지	수석대표	
			한국측	스페인측
1차	1988년 5월	마드리드	민형기 구주국장	미라페익스(Mirapeix) 아주국장
2차	1990년 2월	서울	유종하 차관	페르피나(Perpina) 정무차관
3차	1995년 6월	마드리드	이시영 차관	비아르(Villar) 정무차관
4차	2004년 5월	마드리드	최영진 차관	베르나르도 레온(Bernardo Leon) 차관
5차	2006년 3월	서울	유명환 차관	베르나르도 레온(Bernardo Leon) 차관
6차	2007년 6월	마드리드	조종표 차관	베르나르도 레온(Bernardo Leon) 차관
7차	2009년 2월	마드리드	이용준 차관보	앙헬 로사다(Angel Lossada) 차관
8차	2010년 3월	마드리드	신각수 차관	앙헬 로사다(Angel Lossada) 차관
9차	2014년 4월	서울	조태용 차관	곤살로 데 베니토(Gonzalo de Benito) 차관
10차	2015년 6월	마드리드	조태용 차관	이그나시오 이바녜스(Ignacio Ibañez) 차관
11차	2016년 7월	서울	임성남 차관	이그나시오 이바녜스(Ignacio Ibañez) 차관

2) 한·스페인 전략대화

회수	일자	개최지	수석대표	
			한국측	스페인측
1차	2019년 4월	서울	조현 차관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Fernando Valenzuela) 차관

3) 문화공동위원회

- 양국 외교부 문화국장을 수석대표로 5차례 회의 개최 이후 중단
 - 2009년 6월 마드리드에서 제5차 회의 개최

4) 한-스페인 포럼

- 양국 정부 및 민간 분야 인사가 참여하여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3년 11월 설립
 - 우리측 한국국제교류재단, 스페인측 카사 아시아(Casa Asia) 주관
- 회의 개최 실적
 - 2003년 11월 13~14일 제1차 회의 (서울)
 - 2004년 6월 30일~7월 1일 제2차 회의 (바르셀로나)
 - 2006년 9월 19~20일 제3차 회의 (제주)
 - 2007년 7월 5~6일 제4차 회의 (마드리드)
 - 2008년 7월 2~4일 제5차 회의 (서울)
 - 2010년 1월 21~22일 제6차 회의 (꼬르도바)
 - 2012년 7월 26~27일 제7차 회의 (서울)
 - 2013년 11월 6~8일 제8차 회의 (말라가)
 - 2014년 9월 30일~10월 2일 제9차 회의 (서울)
 - 2015년 10월 27~28일 제10차 회의 (말라가)
 - 2017년 6월 14~16일 제11차 회의 (서울)
 - 2019년 1월 24~25일 제12차 회의 (바르셀로나)

5)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

- 2017년 10월 마드리드에서 양국 간 대중남미 협력 방안, 중남미 정세 등 논의를 위해 제3차 한-스페인 중남미국장회의 개최
 - 제1차 2014년 4월 마드리드 개최, 제2차 2015년 5월 서울 개최

6)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 2008년 9월 제1차 공동위 (마드리드)
- 2010년 9월 제2차 공동위 (서울)

- 2012년 3월 제3차 공동위 (마드리드)
- 2014년 9월 제4차 공동위 (서울)
- 2016년 10월 제5차 공동위 (마드리드)
- 2018년 11월 제6차 공동위 (서울)

7) 과학기술공동위원회(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로부터 분리)

- 2017년 10월 제1차 공동위 (마드리드)

8) 민간경협위원회

- 1973년 3월 설립
 - 우리측 회장 : 두산인프라 박용만 회장
 - 스페인측 회장 : 김 파우라(Kim Faura) 텔레포니카 카탈루냐 사장
- 2008년 4월 제19차 회의를 마요르카에서 개최
- 2010년 대한상의 주관 ‘중남미 진출을 위한 한-스페인 협력 포럼’ 등 개최
- 2019년 10월 민간경협위원회 재가동 추진 중

사. 한-스페인 군사 관계

1) 상주 무관부 개설

- 1973년 10월 주스페인 한국 무관부
- 1990년 11월 주한 스페인 무관부

2) 협정 체결 현황

- 2003년 2월 방산품질보증협정
- 2006년 12월 국방협력협정서
- 2009년 3월 군사비밀보호협정

- 2012년 12월 상호군수지원협정 MOU
- 2019년 5월 방산협력 MOU 개정
- 2019년 8월 군 감항당국 간 상호인정증서 교환

3) 고위인사 교류

- 2011년 3월 멘데스(Mendez) 국방차관
- 2012년 7월 이용걸 국방차관
- 2018년 1월 코스페달(Cospedal) 국방장관

4) 양국 간 주요 회의

- 국방정책 실무회의 : 4차(2010, 마드리드), 5차(2018, 서울)
-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 5차(2004, 서울), 6차(2018, 마드리드)

5) 군사교육 교류협력

- 한국 : 현재까지 100여 명 교육 (스페인 육사, 고군반, 합참대 등)
- 스페인 : 언어 문제, 경제 사정(최근) 등으로 미과건

6) 주요 방산 수출입 품목

- 수출 : 탄약류 등
- 수입 : A330 MRTT 공중급유기(2018년 1대, 2019년 3대로 총 4대), CN-235 수송기(12대), 부품 정비 등

2 통상·경제협력

가. 양국 교역 동향

- 2009년 스페인 경제위기로 인해 다소 정체되어 있던 양국 교역은 스페인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2014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2018년 기준 양국 교역 규모는 55억 달러를 기록(스페인인 대한민국의 31위 교역국이며, EU 내 8위)

한-스페인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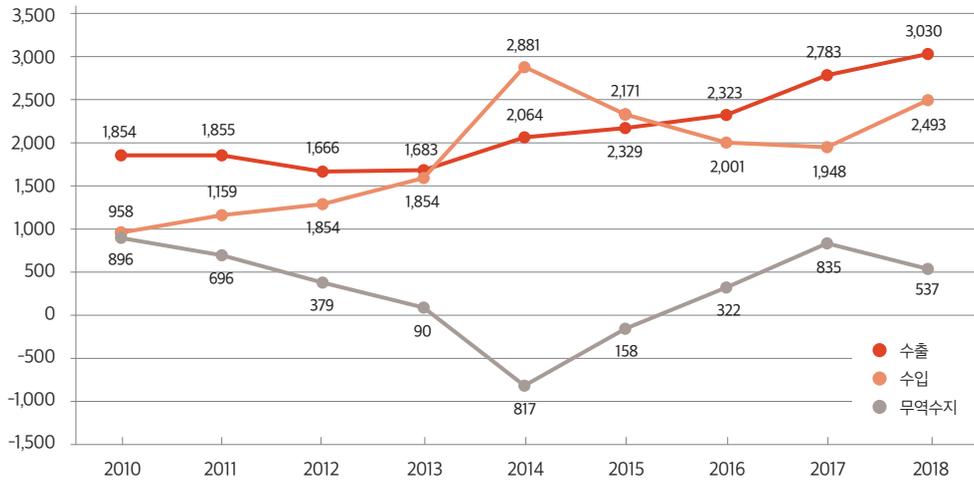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	1,857	1,668	1,682	2,068	2,171	2,329	2,812	3,027
수입	1,162	1,293	1,597	2,888	2,335	2,005	1,952	2,504
교역 규모	3,019	2,962	3,279	4,956	4,506	4,333	4,765	5,531

출처: KITA

- 한국의 對스페인 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전자전기, 석유화학, 철강금속, 기계류, 섬유류, 고무(타이어) 등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부품, 식품, 정밀화학(의약품·화장품 등), 광물, 석유화학, 기계류 등
 - 수출 품목 중에는 자동차/부품 및 철강금속 제품류가, 수입 품목 중에서는 자동차/부품 및 식품류(돼지고기·올리브·와인) 등의 성장세가 높은 상황
 -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전자전기, 자동차 등의 제품은 해외 공장에서 직접 스페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 통계에 반영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 내 실제 판매액은 수출 통계치보다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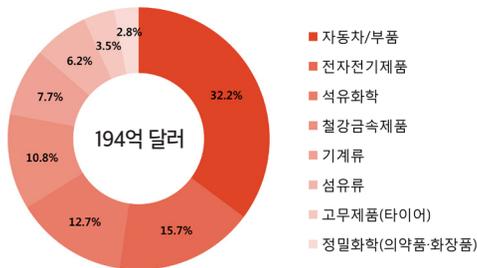
한-스페인 교역 동향(2010~2018)

(단위 :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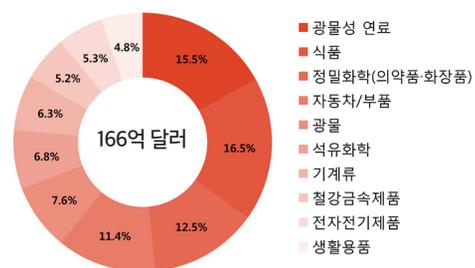


출처 : KITA

한국의 對스페인 수출(2010~2018)



스페인의 對한국 수출(201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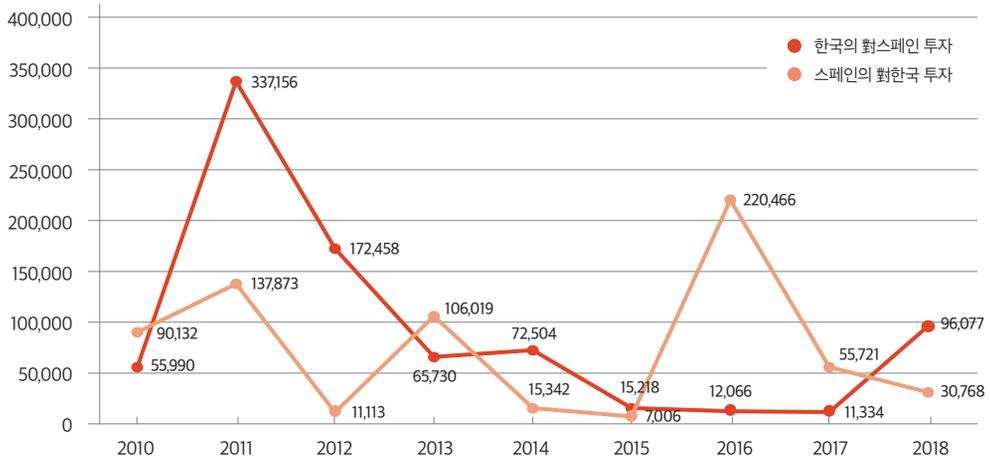
나. 양국 투자 동향(2010년 이후)

- 2010~2018년간 한국의 對스페인 누적 투자액은 총 7.4억 달러(對스페인 투자 아시아 국가 중 4위)이며, 같은 기간 스페인의 對한국 누적 투자액은 약 20.6억 달러
 - 스페인의 對한국 투자에서 세계 부자 순위 6위(<포브스> 선정 2018년 기준)이자 스페인 최대 의류기업 인디텍스의 회장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개인 자산운용사를 통해 2015년 이후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잇따라 건물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부문이 對한국 스페인 투자에서 가장 높은 비중 차지
 - 2018년 GM 본사가 스페인GM을 통해 한국GM으로 투자(약 13억 달러) 실시

- 과거 우리 기업의 진출이 주력 수출품의 판매법인 설립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010년을 전후하여 제조(수처리 플랜트, 에너지, 자동차 부품, 화학 등)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가 이뤄졌고 법인 설치도 물류, 광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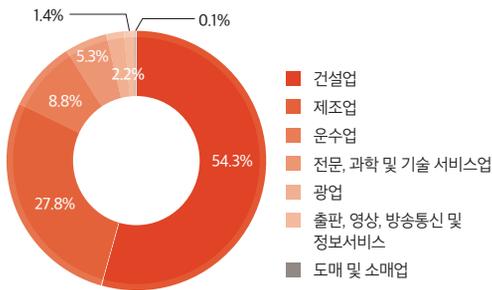
한-스페인 양국 투자 동향(2010~2018)

(단위 :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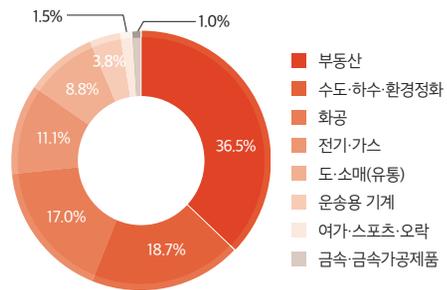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부

한국의 스페인 투자



스페인의 대한민국 투자



스페인 진출 국내 기업 현황(2019)

한국 기업	현지 회사명	형태	분야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판매	가전, 통신기기
LG전자	LG Electronics	판매	가전, 통신기기
위니아대우전자	Winia Daewoo	판매	가전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판매	자동차
기아자동차	Kia Motors	판매	자동차
현대모비스	Hyundai Mobis	판매	자동차 부품
금호타이어	Kumho Tires	판매	타이어
한국타이어	Hankook Tire	판매	타이어
SK 종합화학	SK Primacor Europe	생산	석유화학
SK 루브리컨츠	Iberian Lube Base Oils Company(ILBOC)	생산	석유화학
미원	Miwon Spain	생산	화학제품
한화에너지	Hanwha Energy	생산	재생에너지
동국실업	KDK Automotive	생산	자동차 부품
서울금속	Industrias Gol	생산	자동차 부품
나노	Nano Automotive	생산	자동차 부품
대한항공	Korean Air	물류	항공운송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물류	항공운송
판토스	Pantos	물류	해상운송
현대상선	Hyundai Merchant Marine	물류	해상운송
현대상선	Total Terminal International Algeciras(TTIA)	물류	항만 터미널
한국선급	Korean Register of Shipping	물류	선박 검사·인증
포스코 대우	Posco Daewoo	무역	무역
(주)효성	Hyosung	무역	무역
GS건설	GS Inima	플랜트	수처리
삼성전자	Zhilabs	서비스	네트워크 분석
현대이노션	Innocean	서비스	광고
TmaxSoft	TmaxSoft	서비스	소프트웨어

한국 진출 스페인 기업 현황 (2019)

기업명	형태	분야
Acerinox	판매	철강
Airbus	판매	방산
Proinelca	판매	기계류
Fagor Automation	판매	기계류
Amadeus	판매	항공·여행 솔루션
Inditex	판매	의류·부동산
Sociedad Textilonia	판매	의류
Werfenlife	판매	의약품
Codorniu	판매	와인
Iberko	판매	육류(돼지고기)
Equivalenza	판매	화장품·향수
Befesa	생산	금속 가공
Premo	생산	자동차 부품
Gestamp	생산	자동차 부품
Lantek	생산	자동차 부품
Galol	생산	자동차 부품
Univergy	생산	신재생에너지(태양열)
Solarig	생산	신재생에너지(태양열)
Lamaignere	물류	해상운송
Opera Business Dreams	서비스	경영 컨설팅
CKIPM Marine	서비스	리조트 개발
Sener	서비스	엔지니어링
Applus	서비스	엔지니어링
Ticketbis	서비스	온라인 티켓팅

- 최근 양국 기업 간 협력 및 상호 진출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은 스페인을 유럽·중남미·북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스페인은 한국을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하는 전략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

※ 한국 기업 사례

- GS INIMA : 유럽 및 중남미 수처리 시장 진출을 위한 스페인 수처리 기업 INIMA 인수
- ILBOC : 유럽 유탄유 시장 진출을 위해 SK유탄유-REPSOL 간 조인트 벤처 설립
- TTIA : 유럽·아프리카·중남미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스페인 알헤시라스에 물류 터미널 건설

※ 스페인 기업 사례

- Gestamp : 한국 자동차 생산 기업에 부품 제공을 통해 아시아 진출
- Lamaignere : 전 세계적 물류 운송망 연결을 위해 한국(서울)에 아시아 거점 사무소 개설

※ 기타 양국 기업 협력 사례

- 기아 & Repsol 카셰어링 JV : 2018년 6월 마드리드에 카셰어링(Car Sharing : 차량공유) 서비스 Wible 런칭(기아차 NIRO 이용)
- 삼성전자, 스페인 Zhilabs 인수 : 5G 비즈니스 강화를 위해 시를 활용해 네트워크 트래픽과 품질을 분석하는 스페인 스타트업 Zhilabs 인수

다. 양국 주요 분야별 경제협력

1) 건설 및 인프라

- 양국 기업 간 장점(분야 및 지역)을 살려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확대 중
 - 양국 협력 실적 : 63건, 약 180억 달러(2018년 누계 기준)
 - 주요 협력 사업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메트로 건설, 호주 웨스트 커넥트 도로공사, 카타르 도하 메트로 건설, 바레인 정유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오만 정유공장 프로젝트 등
- 2017년 3월 국토부 장관 스페인 방문 계기 ‘인프라·교통협력 MOU’ 체결
- 2019년 1월 국토부 장관 스페인 방문 계기 ‘건설·인프라 네트워킹 포럼’ 개최
 - 향후 양국 건설·인프라 분야 경험 및 정보 공유, 교류 확대 기대
- KOTRA와 스페인 건설협회(SEOPAN) 간 협력 하에 한-스페인 건설협력포럼을 연례 개최하여 양국 건설기업 간 협력 확대 방안 모색
 - 2014년 9월 제1차 한-스페인 건설협력 포럼 (마드리드)
 - 2016년 6월 제2차 한-스페인 건설협력 포럼 (마드리드)
 - 2017년 4월 제3차 한-스페인 건설협력 포럼 (서울)
 - 2018년 6월 제4차 한-스페인 건설협력 포럼 (마드리드)

2) 신재생에너지

- 스페인은 2016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량(수력 포함)이 전체의 40.1%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선도국(태양열 세계 1위, 풍력 5위, 태양광 10위)
- 2018년 5월 ‘한-스페인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기회 확대 추진 중
-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Univergy, Solarig, EDPR 등은 한국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진행을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
- 한화에너지는 2019년 초 세비야 지역의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인수하며 스페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

3) ICT

- 2015년 10월 양국 정부 간 과학기술협력 MOU 체결
- 2017년 2월 바르셀로나 MWC 계기 미래창조과학부-스페인 에너지관광디지털부 간 ICT 협력 MOU 체결
- 2017년 10월 제1차 한-스페인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등을 통해 양국 간 ICT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및 기술 사업화 등 논의

4) R&D

- 유레카(EUREKA)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 R&D 협력 활발히 진행
 - * 유레카 프로그램 : 1985년 시장지향적 기술개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설립된 범유럽 R&D 네트워크
 - 한국은 2009년 동 프로그램에 준회원국으로 가입, 2018년 비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파트너국으로 승격되었으며, 그간 총 62개 과제에 약 449억 원 지원
-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KETEP(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CDTI(스페인 산업기술개발원)와 협력 MOU를 체결하고 과학기술(풍력·농업·항공 기술 등) 및 에너지 분야에서 공동 R&D 시행 중

라. 한-스페인 상공회의소

- 한-스페인 기업 간 통상·투자 등 경제협력 확대 및 강화를 위해 2012년 6월 설립
 - 크레미데스(Cremades) 소장 : 스페인 유력 로펌 대표 변호사
 - 명예회장 : 주스페인 대사 및 조셉 피케(Josep Pique) 전 외교장관
- 주요 기업 회원
 - 스페인 : Repsol, El Corte Inglés, Banco Santander 등
 - 한 국 : LG전자, 기아자동차, GS INIMA

3 동포 현황

가. 한인 이주 역사

- 한국인의 첫 스페인 이주는 작곡가 겸 지휘자인 안익태 선생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946년 스페인 여성과 결혼하여 마요르카에 정착, 마요르카 교향악단 초대 상임지휘자로 취임, 활동
- 이후 1960년대 중반부터 주로 태권도 사범, 병아리 감별사 등으로 스페인에 진출하여 태권도와 함께 한국을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면서 동포사회가 형성, 발전
- 스페인 남서부 카나리아 제도 라스팔마스의 경우는 1960년대부터 우리 원양어선 진출로 한때 1만 명 정도의 동포사회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원양산업 쇠퇴로 현재는 700여 명의 동포 거주

나. 재스페인 동포 현황

- 동포 및 체류자 수 (2019)

(단위 : 명)

지 역	재외국민		시민권자	계
	장기체류자	일시체류자		
스페인 본토	1,794	1,870	669	4,333
카나리아 제도	357	46	289	692
총 계	2,151	1,916	958	5,025

※ 스페인 방문 한국 관광객 수: 약 49만 명(2018, 스페인 통계청)

- 동포사회 특징
 - 태권도 사범 등으로 진출한 1세대 원로들과 그 자녀 및 이후 스페인에 건너온 교민들이 함께 동포사회 구성
 - 현재도 활동 중인 태권도 사범이 있으며 일부 스페인 지역태권도협회장을 맡으면서 스페인 태권도 발전에 계속 기여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침술원 및 자영업 등으로 업종 변경
 - 최근에는 우리 여행객 급증으로 관광산업 종사자(여행업, 통역가이드 등)가 지속 증가 추세

다. 재스페인 주요 한인단체

- 한인회
 - 재스페인한인총연합회(회장: 김영기)
 - 마드리드 한인회(회장: 강영구)
 - 카탈루냐 한인회(회장: 박천욱)
 - 라스팔마스 한인회, 안달루시아 한인회 등 기타 13개 지역 한인회
- 한글학교

학교명	교장	개교일	학생수
마드리드 한글학교	오인숙	1981년 1월	100여 명
바르셀로나 한글학교	신정아	1991년 3월	100여 명
발렌시아 투리아 한글학교	이현진	2015년 1월	40여 명
라스팔마스 한글학교	엄준현	1976년 9월	80여 명

- 민주평화통일 스페인 지역협의회
 - 현재 22년 임기의 제19기(2019.9월-2021.8월) 자문위원 19명(스페인(대) 10명, 바르셀로나 (총) 5명, 라스팔마스(분) 4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스페인 지회
 - 2009년 7월 스페인 지회가 개설된 이래 매년 재스페인 여성 동포 권익 신장 및 스페인과의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
 - 현재 9기 지역회장(이인자)을 중심으로 총 47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
- 기타
 - 재스페인대한체육회, 재스페인한인태권도협회, 지역별 한인청년회, 종교단체 등

4 명예영사 현황

- 주세비아 명예영사 (2007.8.7 최초 임명, 2017.8.7 2차 연임)
 - 성명 : 프란시스코 에레로 말도나도(Francisco Herrero Maldonado)
- 주빌바오 명예영사 (2007.8.7 최초 임명, 2017.8.7 2차 연임)
 - 성명 : 후안 마누엘 아라나 아레차발라(Juan Manuel Arana Arechabala)
- 주발렌시아 명예영사 (2013.10.16 임명, 2018.10.16 1차 연임)
 - 성명 : 호르헤 하비에르 알론소 보나폰트(Jorge Javier Alonso Bonafont)
- 주안도라 명예영사 (2015.8.31 최초 임명)
 - 성명 : 조르디 나달 벤타데(Jordi Nadal Bentadé)

5 친한단체

가.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 목 적 : 양국 의회 간 친선 도모 및 협력 증진
- 설립일 : 2005년 8월 27일 (서울)
 - 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IPSS) 스페인 대표단 방한 계기
- 현 황
 - 우리측 : 2009년 5월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구성
 - ※ 2014년 12월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방문(단장 : 이진복 의원), 하원의장 및 하원 외교위원장 면담
 - ※ 2018년 3월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방문(단장 : 이진복 의원), 상원 외교위원장 면담
 - ※ 20대 국회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 이진복 의원(회장, 자유한국당), 이인영 의원(부회장,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의원(부회장, 자유한국당),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진태·이종명·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 스페인측 : 경제 사정 악화에 따라 2009년 하원의장 지시로 의원친선협회 구성이 전면 중단된 상태

나. 한국학연구협회(CEIC)

- 목 적 : 스페인 내 한국학 보급을 통한 양국 간 상호 이해 및 협력 증진
- 설립 연도 : 2000년
- 주요 멤버
 - 명예회장 : 알폰소 오헤다(Alfonso Ojeda) 콤플루덴세 대학 교수
 - 회 장 : 알바로 이달고(Alvaro Hidalgo) 카스티아 라 만차 대학 교수
- 주요 활동
 - 한국 관련 학술 심포지엄 총 13회 개최
 - 한국 관련 서적 14권 및 관련 논문 30여 편 집필
 - 한-스페인 포럼 등 양국 간 개최 각종 행사 참석

6 인적·문화교류 현황

- 우리나라 여러 방송 프로그램(<꽃보다 할배> 스페인편(2014), <푸른 바다의 전설>(2016), <윤식당 2>(2017),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2018) 등)을 통해서 스페인의 다양한 문화와 음식이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2018년 기준 스페인 방문 한국 관광객 수는 약 49만 명(스페인 통계청 기준)
 - 특히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은 한국인 수는 5,665명(2018)으로 전체 9위(스페인 제외)이자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미국(3위), 브라질(8위) 다음으로 3위 기록
- 한국 방문객 증가에 따라 2018년 8월 이래 한국과 스페인을 잇는 직항이 주 12회 운행 중(인천 ↔ 마드리드 대한항공 주 4회, 인천 ↔ 바르셀로나 대한항공, 아시아나 각 주 4회)
 - 2018년 10월 워킹홀리데이 협정 발효에 따라 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개원한 주스페인한국문화원(마드리드 소재)을 중심으로 연중 각종 공연, 전시, 한국문화주간 등의 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기 뜨거움
 - 2018년 7월 개최된 K-POP 페스티벌 스페인 지역 예선에 약 80개 그룹이 참가하였고, 최종 예선일에는 약 1,000명의 K-POP 팬들이 참여

7 주요 인사 교류

가. 방문

- 1972년 5월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
- 1973년 5월 김종필 국무총리
- 1974년 9월 최형섭 과기처장관
- 1974년 11월 한신 합참의장

- 1975년 5월 심흥선 총무처장관 (대통령 특사)
- 1975년 11월 심흥선 총무처장관 (프랑코 총통 장례식 조문사절)
- 1976년 9월 박준규 의원회 (IPU 총회)
- 1977년 9월 최형섭 과기처장관
- 1977년 11월 노재현 합참의장
- 1978년 4월 백두진 유정회 의장
- 1978년 6월 민복기 대법원장
- 1980년 4월 박동진 외무부장관 (구주 지역 공관장회의 주재)
- 1980년 6월 윤자중 공군참모총장
- 1981년 8월 박동진 국회 외무위원장
- 1981년 11월 노태우 정무 제2장관
- 1982년 6월 김동휘 상공부장관
- 1982년 8월 전두환 대통령, 라스팔마스 기착 (아프리카 방문 계기)
- 1983년 4월 최규하 국정자문위 의장
- 1983년 8월 노태우 올림픽조직위원장
- 1983년 8월 강영식 수산청장
- 1984년 11월 이기백 합참의장
- 1985년 1월 신현확 전 총리 (전직 정부수반협의회)
- 1986년 9월 국회 외무위 사절단 (봉두완 위원장 외 4인)
- 1986년 9월 주재황 헌법위원회 위원장
- 1987년 1월 노신영 국무총리
- 1987년 5월 차규현 교통부장관
- 1987년 9월 박세직 올림픽조직위원장
- 1988년 5월 민형기 외무부 구주국장 (제1차 정책협의회)
- 1988년 6월 김용식 대통령특사
- 1988년 11월 조상호 체육부장관
- 1989년 2월 조순 부총리

- 1989년 9월 이회창 대법관
- 1990년 8월 유학성 의원 등 참전국 순방 의원단
- 1992년 2월 이진삼 체육·청소년장관
- 1992년 3월 권영해 국방차관 (방산·군수 양해각서 서명)
- 1992년 4월 김영준 감사원장
- 1992년 5월 강영훈 적십자사 총재
- 1992년 6월 최각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 1995년 2월 김종필 총리
- 1995년 3월 제93차 IPU 총회 대표단 (박정수 의원 외)
- 1996년 6월 박재운 산업자원부장관
- 2000년 6월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 2000년 8월 국회 홍사덕 부의장 일행
- 2000년 10월 국회 국정감사단 (문희상 의원 외)
- 2001년 10월 김광웅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2001년 10월 이홍구 전 국무총리 (Madrid Club 회의)
- 2002년 4월 한승수 UN 총회 의장 (세계고령화총회)
- 2002년 6월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 (제4차 ASEM 외무장관회의)
- 2002년 10월 김태현 정보통신부장관
- 2002년 11월 전윤철 경제부총리
- 2003년 12월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2003년 10월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이라크 원조공여국 국제회의)
- 2004년 2월 이윤구 대한적십자사 총재
- 2004년 2월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 2004년 3월 최영진 외교차관 (제4차 정책협의회)
- 2004년 10월 국회 국정감사단 (박계동 의원 외)
- 2004년 12월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세계관광기구 방문)
- 2005년 1월 국회 개혁특위 대표단 (이윤성 위원장 외)

- 2005년 1월 국회 정무위 대표단 (김희선 의원 외)
- 2005년 1월 국회 운영위 대표단 (이종걸 의원 외)
- 2005년 1월 국회 예결특위 (박병석 의원 외)
- 2005년 1월 도영심 관광대사 (FITUR/관광박람회)
- 2005년 1월 박희태 국회 부의장 외 대표단
- 2005년 3월 국회 문화관광위 대표단 (이미경 의원 외)
- 2005년 5월 김희상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 2005년 5월 국회 행정자치위 대표단 (이용희 의원 외)
- 2005년 6월 권인혁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제2차 한-스페인 포럼)
- 2005년 8월 국회 재경위 대표단 (박종근 의원 외)
- 2005년 8월 김덕규 국회부의장 외 대표단
- 2005년 10월 한승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 2005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 대표단 (강기정 의원 외)
- 2005년 11월 임의근 경상북도지사
- 2005년 11월 김태환 제주도지사
- 2005년 11월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 2006년 1월 국회 지방행정개편특위 대표단 (허태열 의원 외)
- 2006년 5월 조창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 2006년 6월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공식방문
- 2006년 6월 국회 정보통신위 대표단 (김덕규 의원 외)
- 2006년 8월 국회 예결위 대표단 (이강래 의원 외)
- 2006년 8월 박상길 대전고검장
- 2006년 9월 도영심 관광스포츠 대사 (세계관광기구회의)
- 2006년 10월 박성효 대전시장
- 2006년 10월 송철호 국민고충위원회 위원장
- 2006년 10월 박종구 감사위원
- 2006년 11월 김유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스페인 국민방문)
- 2008년 1월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 (제1차 문명간연대포럼)
- 2008년 11월 김형오 국회의장
- 2009년 11월 한승수 대통령 특사
- 2011년 1월 김황식 총리
- 2013년 3월 이병석 국회의장
- 2015년 6월 조태용 외교차관
- 2016년 6월 조태열 2차관
- 2017년 3월 윤병세 외교장관
- 2017년 5월 심재철 국회부의장
- 2017년 11월 안창호 헌법재판관
- 2018년 1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2018년 2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2018년 2월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2018년 2월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위원장
- 2018년 2월 김성식 국회 제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
- 2018년 3월 국회 외통위 (김경협 의원 외)
- 2018년 3월 이낙연 국무총리 (경유)
- 2018년 4월 김명수 대법원장
- 2018년 5월 김신 대법관
- 2018년 5월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2018년 9월 박원순 서울시장
- 2018년 9월 국회 대표단 (오신환 의원 외)
- 2018년 12월 박정식 서울고검장
- 2018년 12월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2019년 1월 김현미 국토부장관
- 2019년 2월 유명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 방한

- 1972년 5월 페르난데스 마르시라츠 구아소(Fernandez Marcitllach Guazo) 상무성 수산총국장 (수산청장 방한 초청)
- 1972년 10월 군사사절단 (국군의 날 행사)
- 1973년 5월 호세 루이스 세론(José Luis Cerón) 외무성 경제협력총국장 일행 (한-스페인 어업회담)
- 1973년 10월 경협사절단 (상공부 초청)
- 1974년 10월 군사사절단 (국군의 날 행사)
- 1974년 10월 IPU 대표단 (단장 : 마알데(Mayalde) 국회부의장)
- 1975년 3월 <고메스 테요 아리바(Gómez Tello Arriba)>지(정부 기관지) 부사장 ※ 대한항공(KAL) 파리 취항 기념 행사
- 1975년 10월 군사사절단 (국군의 날 행사)
- 1976년 4월 <고메스 테요 아리바(Gómez Tello Arriba)>지 부사장 (세계반공연맹 제9차 총회)
- 1976년 5월 바스케스(Vazquez) 주바르셀로나 명예영사 (KAL 초청)
- 1976년 12월 헤수스 올리바레스 보케(Jesus Olivares Boque) 원자력위원장
- 1977년 7월 고 안익태 선생 미망인 및 유자녀 (유해 이장)
- 1977년 10월 군사사절단 (국군의 날 행사)
- 1977년 12월 프란시스코 히메네스 알레만(Francisco Gimenez Alemán) <ABC>지 편집국장 (외교부 초청)
- 1978년 6월 갈라르사 산체스(Galarza Sanchez) 합참의장
- 1978년 6월 두란 로리가(Durán Loriga) 외교부 북미태평양총국장
- 1979년 2월 바르셀로나시 상공회의소 통상사절단
- 1979년 5월 상공부 통상사절단
- 1979년 7월 페르난데스 알바레스(Fernández Álvarez) 라스팔마스 주지사 (수산청장 초청)
- 1979년 10월 루이스 푸유스(Luis Pulluz) 해군참모총장
- 1982년 10월 민관 통상사절단 (제5차 한-스페인 경제협력위원회 참석, SITRA 참관)

- 1983년 10월 에밀리오 세냐(Emilio Cénal) 공군참모총장
- 1984년 6월 안토니오 에르난데스 힐(Antonio Hernández Gil) 국정자문회의 의장
- 1984년 6월 펠리페 세그네이로스(Felipe Segneiros) 공군대학교장
- 1984년 9월 후안 카노 에비아(Juan Cano Hevia) 국방대학원장
- 1984년 10월 호세 마누엘 아엔데살라사르(Jose Manuel Allendesalazar) 외무성 아태국장
- 1986년 11월 카르바할(Carvajal) 상원의장 외 상원의원단
- 1987년 2월 발베르데(Valverde) 철도청장
- 1988년 4월 고메스-나바로(Gómez-Navarro) 체육청장
- 1988년 9월 소피아(Sofía) 왕비, 펠리페(Felipe) 왕세자, 크리스티나(Cristina) 공주(요트 선수), 세라(Serra) 국방장관, 솔라나(Solana) 문교장관, 고메스-나바로(Gómez-Navarro) 체육청장, 아리아스(Arias) 외무차관 (서울올림픽 참관)
- 1989년 11월 곤살로 푸이그세르베르 로마(Gonzalo Puigserver Romá) 국방참모총장(공군 중장)
- 1990년 2월 페르피나(Perpina) 외교부 정무차관
- 1992년 2월 아란사디(Aranzadi) 상공관광장관
- 1992년 3월 무역사절단
- 1994년 1월 하비에스 솔라나(Javier Solana) 외교장관
- 1996년 6월 피케(Pique) 산업자원장관
- 1999년 2월 펠리페 곤살레스(Felipe González) 전 총리
- 1996년 10월 후안 카를로스(Juan Carlos) 1세 국왕 국빈방한
- 2000년 5월 안토니오 롬보(Antonio Lombo) 공군참모총장
- 2000년 10월 아스나르(Aznar) 총리, 서울 제3차 ASEM 정상회의 계기 방한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
- 2001년 6월 미겔 나달(Miguel Nadal) 외무차관 (남북한 동시 방문)
- 2002년 6월 루카스(Lucas) 상원의장 (서울 민주주의공동체 회의 참석)
- 2005년 1월 하원 국방위 대표단 (셀레스티노 수아레스(Celestino Suarez) 의원 외)

- 2005년 8월 비야호아나(Villajoana) 하원 부의장
(국제사회봉사의원연맹 / IPSS 2차 총회)
- 2006년 3월 베르나르도 레온(Bernardo León) 외교차관 (제5차 정책협의회)
- 2009년 3월 미겔 모라티노스(Miguel Moratinos) 외교장관
- 2010년 11월 사파테로(Zapatero) 총리 (G20 서울 정상회의)
- 2011년 3월 콘스탄티노 멘데스(Constantino Méndez) 국방차관
- 2011년 7월 히메네스(Jiménez) 외교장관
- 2012년 3월 라호이(Rajoy) 총리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2014년 4월 베니토(Benito) 외교차관 (한-스페인 포럼)
- 2016년 4월 가르시아-레가스(García-Legaz) 경제경쟁력부 통상차관
- 2016년 7월 이바녜스(Ybáñez) 외교차관 (한-스페인 정책협의회)
- 2017년 6월 카스트로(Castro) 외교차관 (한-스페인 포럼)
- 2018년 1월 코스페달(Cospedal) 국방장관
- 2018년 9월 구티에레스(Gutiérrez)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헌재 창립 30주년 국제회의)
- 2018년 11월 멘데스(Méndez) 통상차관 (제6차 경제공동위)
- 2019년 4월 발렌수엘라(Valenzuela) 외교차관 (제1차 한-스페인 전략대화)

PART 10

북한과의 관계

1. 주요 관계 일지
2. 통상 관계
3. 친북단체 현황
4. 주요 인사 교류



1 주요 관계 일지

- 2001년 2월 북한과 수교했으나 당시 상주공관 미설치(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에서 겸임)
※ 북한은 마드리드 소재 세계관광기구(WTO) 사무국에 1990년 12월 상주대표부를 설치한 바 있으나, 재정 사정으로 1996년 12월 철수
- 2001~2003년 중(2002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임 기간 포함) 양자 및 EU 차원에서 외교차관 · 아태국장 등이 수차례 방북, 북한에 대해 남북대화·경제개혁 및 북핵 관계 다자회담 수용 촉구
- 2002년 3월 주중 스페인대사관 진입 탈북자 25명이 조기에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
- 2003년 12월 북한 스커드미사일 운반 선박(서산호) 해상 나포, 미군에 인계
- 2013년 10월 주스페인 상주공관 개설, 동 계기 공석용 외무차관 방문(스페인 외교차관 면담)
- 김혁철 초대 대사 부임
- 2017년 9월 북한 제6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김혁철 북한대사 추방
- 2017년 8월에는 미사일 발사 도발로 2등서기관 추방
- 대사 추방 이래 1인 공관(3등서기관) 유지
- 스페인 정부의 대북한 정책 기조
 - EU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한국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대북한 접근 지양
 - 북한 체제의 경직성, 지도부의 개혁 의지 및 변화 전망에 비판적 시각
 - 양자 차원의 대북한 지원은 지양한다는 기본 방침 견지(용천 열차 폭발사고 시 지원 안 함)
 - 북한에 대한 EU 및 적십자를 통한 인도적 지원에 참여
 - 최근 남북 정상회담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 스페인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시각
 - 스페인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자체도 우려하지만, 북한의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차단에 주안점
 - ※ 스페인 정부는 북한 핵실험 때마다 대북 비난 성명 발표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중동·마그레브 지역으로 유입될 시 스페인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스페인이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처음부터 적극 참여해 온 동기 중 하나
-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입장

2 통상 관계

(단위 : 유로)

구 분	2017	주요 품목
대북 수출	833,540	화학제품, 의약품, 식품, 기계설비
대북 수입	1,365,000	전자부품, 의류, 연장

3 친북단체 현황

- 북한 친선협회(KFA : Korean Friendship Association)
 - 설립 : 2002년 11월
 - 회장 : Alejandro Cao de Benós (1974년생, 북한 이름 조선일)
 - 회원 : 전 세계 60개국 약 1만 명
 - ※ 북한-스페인 친선협회 회원은 약 60명이나 KFA에 등록된 수준이며, 친북 활동은 미미
 - 주요 활동
 - ※ 홈페이지 개설(www.korea-dpr.com), 주로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 선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방북단 모집 활동도 수행

- 최근 동향

- 알레한드로 카오(Alejandro Cao) 회장은 연간 4~5차례 방북하는 친북 인물로, 북한 대외문화관계위원회로부터 특별대표(Delegado Especial)로 임명받아 활동하였으나, 2016년 7월 불법무기 소지로 체포, 출국금지되면서 최근 활동 위축

4 주요 인사 교류

가. 방문

- 1980년 4월 주UNESCO 대표부 사절단 (북한 공사 외 3명)
- 1981년 3월 정용진 주포르투갈 대사
- 1981년 4월 박영시 적십자사 총재
- 1981년 7월 김영남 노동당 국제부장(공산당 전당대회)
- 1983년 11월 김영남 노동당 국제부장
- 1984년 12월 황장엽 일행 (사회노동당 전당대회)
- 1985년 7월 남대환 북한 UNESCO위원회 (바르셀로나 개최 세계청소년대회)
- 1986년 8월 김유순 NOC 위원장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유치위원회의의 각국 NOC 위원장 초청)
- 1992년 5월 김홍림 외교부 구주국장
- 2000년 6월 김영재 북한 무역성 부상
- 2001년 12월 최수현 북한 외무성 부상
- 2002년 2월 북한 창광무역 대표단 5명 (화물자동차 구입 상담)
- 2003년 7월 북한 수영선수단 9명 (바르셀로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 2003년 9월 북한 보험대표단 2명 (세비아 국제보험회의)
- 2003년 9월 북한 적십자사 대표단 2명 (IFRC 주관 워크숍)
- 2004년 9월~ 2005년 5월 3일 평양 외국어대 교수 2명 (바르셀로나대학 단기연수)

- 2005년 11월 북한 관광총국 대표단 3명 (세네갈 개최 WTO 총회)
- 2006년 9월 장재언 북한적십자사 총재 일행 3명
- 2008년 8월 김동명 무역성 부상 일행 10명 (사라고사 박람회)
- 2011년 12월 평양 교예단 일행 10명 (발렌시아 공연)
- 2013년 10월 궁석웅 외무차관
- 2013년 12월 평양 교예단 일행 10명 (발렌시아 공연)
- 2015년 9월 북한 노동당 대표단
- 2017년 6월 북한 관광대표단 (레반티나 해안 관광지 시찰)
- 2018년 2월 평양 교예단 일행 20명 (헤로나시 공연)

나. 방북

- 1977년 12월 루이스 야네스(Luis Yañez) 하원의원(사회노동당 대외담당) 외 3명
- 1979년 호세 미겔 부에노 비센테(José Miguel Bueno Vicente) 하원의원
- 1980년 8월 엔리케 데 라 마타(Enrique de la Mata) 적십자사 총재
- 1980년 10월 카리오(Carillo) 공산당 서기장 (1984년까지 3회 추가 방북)
- 1985년 6월 엔리케 데 라 마타(Enrique de la Mata) 적십자사 총재
- 1986년 9월 루이아 페레스(Luía Perez) 서·조 친선우호협회장 (한반도 비핵 세미나)
- 2000년 5월 브레골라(Bregola) 주중국 대사,
네그레(Negre)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 회장 일행
- 2000년 6월 나달(Nadal) 외무성 차관 (남북한 동시 방문)
- 2001년 10월 콘테 데 사로(Conde de Saro) 외교부 아태국장 (EU 대표단 일원)
- 2002년 7월 나르시스 세라(Narcís Serra) 전 국방장관 일행 3명
- 2003년 3월 부가요(Bugallo) 아·태국장 (남·북한, 중국 순방 일행)
- 2008년 9월 헤수스 산스(Jesús Sanz) 카사 아시아(Casa Asia) 원장 일행 3명
- 2009년 9월 후안 레냐(Juan Leña) 주한대사
- 2011년 10월 루이스 아리아스(Luis Arias) 주한대사

- 2014년 5월 에르네스토 데 줄루에타(Ernesto de Zulueta) 외교부 북미아태국장
및 루이스 아리아스(Luis Arias) 주한대사
- 2015년 5월 곤살로 오르티스(Gonzalo Ortiz) 주한대사
- 2017년 3월 곤살로 오르티스(Gonzalo Ortiz) 주한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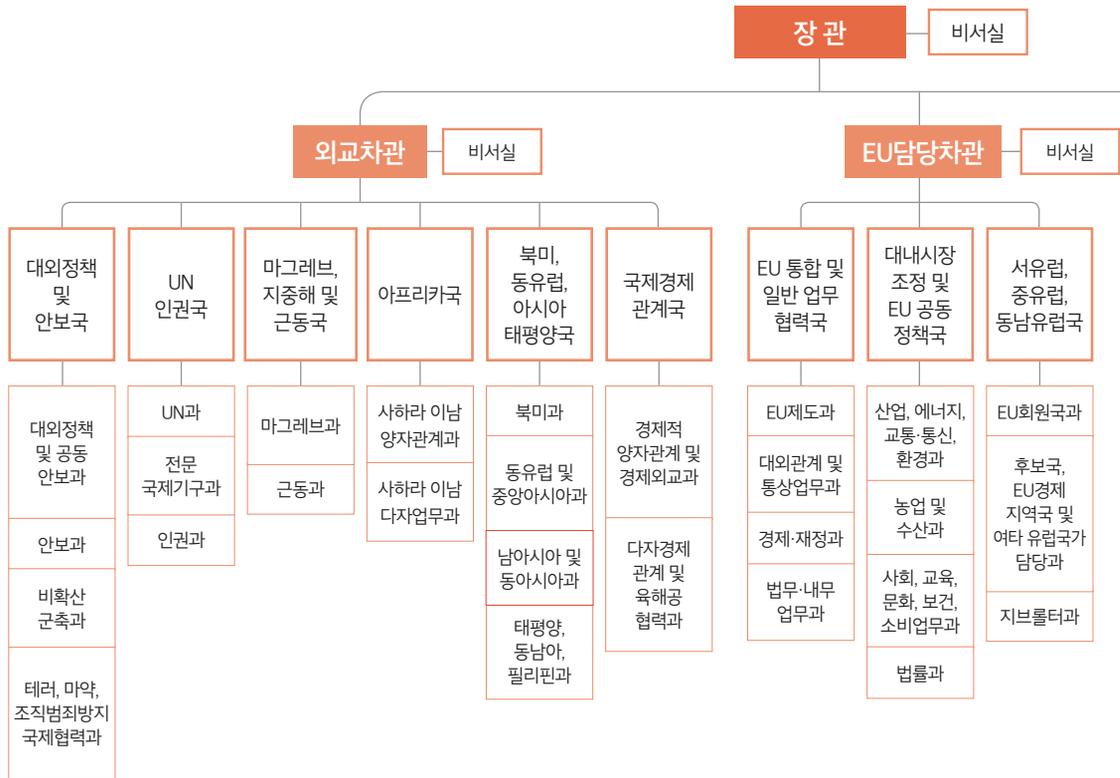
PART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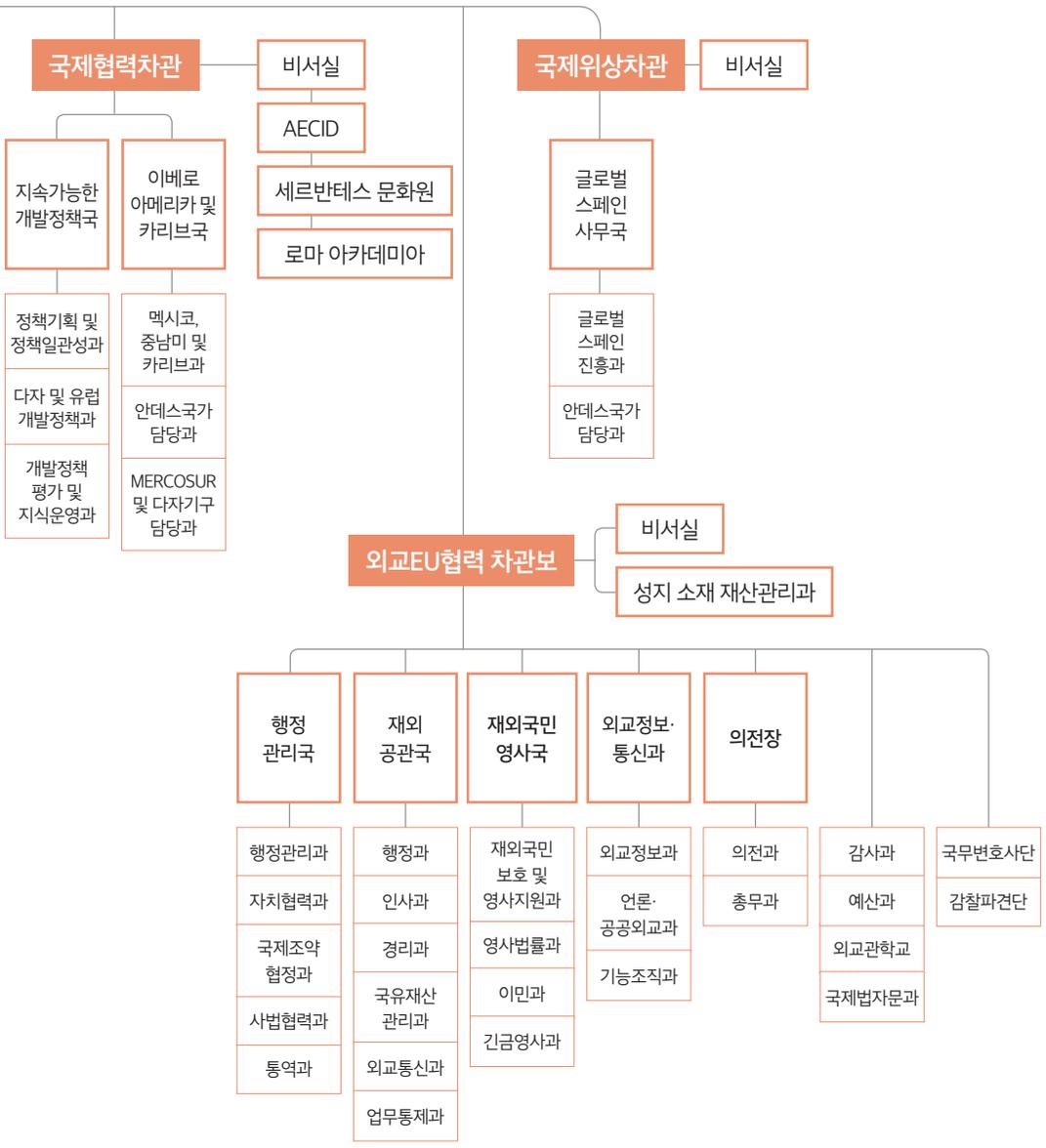
부 록

1. 외교부 기구표
2. 정부 각료 명단
3. 주요 인사 약력
4. 카나리아 제도 현황
5. 역대 주스페인대사 명단
6. 역대 주한스페인대사 명단
7. 스페인 주요 유적 및 관광 안내



1 외교부 기구표





2 정부 각료 명단 (2018.6월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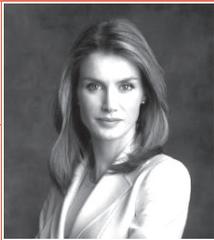
- 부총리 겸 평등부 장관 : 마리아 델 카르멘 칼보 포야토(María del Carmen Calvo Poyato)
- 외교EU협력부 장관 : 조셉 보렐 폰텔스(Josep Borrell Fontelles)
- 법무부 장관 : 돌로레스 텔가도 가르시아(Dolores Delgado García)
- 국방부 장관 :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페르난데스(Margarita Robles Fernández)
- 재무부 장관 : 마리아 헤수스 몬테로 쿠아드라도(María Jesús Montero Cuadrado)
- 내무부 장관 : 페르난도 그란데-마를라스카 고메스(Fernando Grande- Marlaska Gómez)
- 건설부 장관 : 호세 루이스 아발로스 메코(José Luis Ábalos Meco)
- 교육직업훈련부 장관(정부 대변인) : 마리아 이사벨 셀라아 디에게스
(María Isabel Celaá Diéguez)
- 노동이민사회보장부 장관 : 막달레나 발레리오 코르데로(Magdalena Valerio Coredero)
-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 레예스 마로토 이예라(Reyes Maroto Illera)
- 농수산식품부 장관 : 루이스 플라나스 푸차데스(Luis Planas Puchades)
- 지방자치 및 공공기능부 장관 : 메리첼 바텟 라마냐(Meritxell Batet Lamaña)
- 에너지전환부 장관 : 테레사 리베라 로드리게스(Teresa Ribera Rodríguez)
- 문화체육부 장관 : 호세 기라오 카브레라(José Guirao Cabrera)
- 경제기업부 장관 : 나디아 칼비뇨 산타마리아(Nadia Calviño Santamaría)
- 보건소비사회복지부 장관 : 마리아 루이사 카르세도(María Luisa Carcedo)
- 과학혁신대학부 장관 : 페드로 프란시스코 두케 두케(Pedro Francisco Duque Duque)

3 주요 인사 약력

가. 펠리페 6세 국왕

성 명	펠리페 6세 국왕 (His Majesty King Felipe VI)	
생년월일	1968년 1월 30일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수학 • 스페인 마드리드 자치대학 법학 학사 • 美 조지타운대 에드먼드월시 국제관계학 석사 	
가족 관계	2004년 5월 22일 현 레티시아 왕비와 결혼, 2녀 (레오노르 공주, 소피아 공주)	
특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언어 : 스페인어, 영어, 프랑스어, 카탈루냐어 • 스포츠 애호가로서 스쿼시, 스키, 요트 등 취미 -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요트 국가대표 출전(6위 기록) • 아스투리아스 왕자(Príncipe de Asturias) 재단(1980년 설립), 히로나 왕자(Príncipe de Girona) 재단(2009년 설립) 대표 •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누나 크리스티나 공주의 요트 경기 참관차 모친 소피아 왕비와 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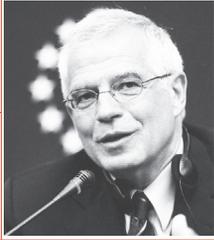
나. 레티시아 왕비

성명	레티시아 왕비 (Her Majesty Queen Letizia)	
생년월일	1972년 9월 15일	
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 언론정보학 학사 • 스페인 오디오비주얼 언론연구소(IEPA) 오디오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과 EFE통신, ABC, La Nueva España 신문사 인턴기자 활동 병행 • 1999년 블룸버그 TV, CNN 스페인 리포터·앵커 활동 • 2000년 TVE(스페인 국영방송) 입사, 주간 및 조간 뉴스 진행 • 2003년 TVE 일간 뉴스 앵커 ※ 9.11 테러, 프레스티지호 침몰 사고 취재, 이라크전 특파원 • 2004년 5월 펠리페 왕세자와 결혼 • 2014년 6월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즉위로 왕비 즉위 	
가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녀(레오노르 공주, 소피아 공주) 	
특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암협회 명예회장(2010~현재)으로 희귀병 및 암퇴치를 위한 과학 연구 촉진 및 지원 주도 • 6~16세 어린이 교육 및 직업교육 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 분야에서 활발한 공식 활동 수행 	

다. 산체스 총리

성 명	페드로 산체스 페레스-카스테혼 (Pedro Sánchez Pérez-Castejón)	
생년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2월 29일 • 마드리드 출생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드리드 콤폴루텐세 대학교 경영경제학 학사 • 벨기에 국립 브뤼셀 자유 대학교 EU 경제정책 석사 • 오르테가 이 가세트 대학원 유럽 경제 · 금융 통합 석사 • IESE 비즈니스 스쿨 공공리더십 석사 • 카밀로 호세 셀라 대학교 경영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3년 사회노동당(PSOE) 입당 • 2000년~2004년 사회노동당 지도부 경제자문관 • 2004년~2009년 마드리드 시의회 의원 • 2009년~2011년 하원 의원 • 2013년~2016년 하원 의원 • 2014년~현재 사회노동당 대표 • 2018년 6월 총리 취임 	
특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7월 최초로 당원 투표를 통해 사회노동당 대표로 선출 • 2015년 12월 총선 패배, 2016년 6월 재총선 패배 및 당내 분열로 2016년 10월 의원직 및 대표직에서 사퇴하였으나, 2017년 6월 당원 투표에서 당대표로 재선출 • 21세까지 농구 선수로 활약(Club Baloncesto Estudiantes팀) • 구사 언어 :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라. 보렐 외교장관

성 명	조셉 보렐 폰텔스 (Josep Borrell Fontelles)	
생년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년 4월 24일 • 카탈루냐 예이다 출생 	
학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드리드 폴리테크닉 대학교 항공엔지니어과 학사 •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Operations Research 석사 • 프랑스 석유연구소 에너지경제학 석사 •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 경제학 박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년 사회노동당(PSOE) 입당 • 1979년~1982년 마드리드주 마하다온다 시의회 의원 • 1982년~1984년 재정부 예산·공공지출 차관보 • 1984년~1991년 재정부 재정차관 • 1991년~1996년 건설교통환경부 장관 • 1999년~2003년 상하원 EU 합동위원회 의장 • 2004년~2007년 유럽의회 의장 • 2007년~2009년 유럽의회 개발원조위원회 의장 • 2018년 6월 외교EU협력부장관 취임 • 2019년 7월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로 지명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티나 나르보나(Cristina Narbona) 사회노동당 대표와 2018년 7월 재혼 ※ 사회노동당 실질적 당수는 사무총장(Secretario General)인 산체스 총리 • 1998년 경선에서 사회노동당 총리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당내 지지율 열세와 주변 세력의 부패 연루로 후보직 사퇴 • 2009년 정계 은퇴 후 Abengoa 이사 겸 국제자문위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10~2012년간 피렌체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총장 역임 • 강경한 카탈루냐 반분리독립파 	

4 카나리아 제도 현황

가. 일반 개황

- 위치 : 스페인 본토 서남단으로부터 1,050km, 아프리카 서안으로부터 115km 떨어진 대서양에 위치
- 도서 구성 : 2개 도(Provincia), 7개 도서
 - 라스팔마스 도(3개 도서)
 - 그란카나리아(Gran Canaria, Las Palmas 시 군청 소재)
 - 란사로테(Lanzarote)
 - 푸에르테벤투라(Fuerteventura)
 - 산타 크루스 데 테네리페 도(4개 도서)
 - 테네리페(Tenerife, Santa Cruz 시 군청 소재)
 - 라팔마(La Palma)
 - 라고메라(La Gomera)
 - 엘이에로(EI Hierro)
- 도서 총면적 : 7,447km²
 - 라스팔마스 도 : 4,066km²
 - 산타 크루스 데 테네리페 도 : 3,381km²
 - ※ 스페인 전체 면적의 1.5%
- 도서 총인구 : 215만 명(2019)
 - 라스팔마스 도 : 113만 명(2019)
 - 그란카나리아 섬 : 86.5만 명 (라스팔마스 시 : 37.8만 명)
 - 테네리페 도 : 106만 명(2019)
 - 테네리페 섬 : 94.9만 명 (산타크루스 시 : 20.4만 명)
- 기후 : 해양성 아열대 기후로 연중 온난 건조
 - 하계 : 25℃~32℃ / 동계 14℃~20℃

나. 경제 현황

1) 개황

- 면적 : 7,447km² (17개 광역자치 지역 중 13위, 스페인 전체 면적의 1.5%)
- 국내총생산(GDP) : 460억 유로 (2018년 잠정, 전체 3.8% 차지)
- 부문별 GDP 구성
 - 서비스업(76.7%), 제조업(7.0%), 건설업(5.6%), 농·축·수산업(1.2%)

2) 주요 산업 : 관광 등 서비스업, 수산업, 농업, 무역

- 카나리아 제도는 EU에서 최남단 주변 지역으로 분류되며 무역, 금융, 기술이전, 남북간 서비스 교환의 최적지. 특히, 3억 명의 서아프리카 시장에 접근하려는 각국 회사의 이상적인 기지
- 서비스 부문, 특히 관광산업은 직·간접적으로 카나리아 제도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역 및 운송 부문 또한 중요한 역할 담당
 - 산업 활동은 주로 에너지와 용수, 식량 생산, 담배 제조, 제지 제품 등 관련 경공업·건설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카나리아 제도에는 두 개의 국립대학과 다양한 연구센터가 있어 각 회사의 필요한 연구 수요 충족
- 영국,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유럽인들의 피한 휴양지로서 연간 1,375만 명(2018년 기준)의 관광객이 입국, 관련 산업이 현지 경제의 중심

3) 무역 현황 (2018년 잠정, 경제부 datacomex 집계 기준)

- 수출 : 32.7억 달러 (토마토, 바나나 등 농산물)
- 수입 : 46.7억 달러 (기계류, 자동차, 석유제품 등 2차 상품)
- 특징 : 지역적 특성으로 2차 산업이 취약,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하고 바나나·토마토 등 농산물은 유럽 지역으로 수출
 - ※ 카나리아 제도 對한국 수출입 현황(2018)
 - 수출 : 7.4백만 달러
 - 수입 : 45.4백만 달러

4) 카나리아 경제재정법(REF : Régimen Económico Y Fiscal)

- 스페인은 본토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며 도서 지역인 카나리아 제도의 경제·사회 부문 발전 진흥을 위해 전통적으로 스페인 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경제조세 제도를 적용
- 카나리아 경제재정법 Ley 30/1972으로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Ley 20/1991 법으로 EU 재정 부문과의 조화를 꾀하고 Ley 19/1994 법으로 경제 방안, 직접과세 특별사항, 카나리아특구(ZEC) 등을 규정
- 동 특별법은 스페인 헌법, 지방자치정부 헌법, 유럽연합 운영조약(TFUE) 등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의 법적 체계 내에서도 보장
- 경제 부문 : 법 Ley 19/1994은 카나리아 경제재정법(REF)의 경제 방안을 수정하여 카나리아 제도의 지리적 단점 보완
 - 현재 동 법은 교통, 전신, 에너지, 상업, 관광, 고용, 투자, 직업교육 등의 분야에 적용 (군도와 스페인 본토 간의 도서 주민 교통비 지원이나 화물 이동 시 추가 운임에 대한 직접 보조금 등)
 - 최근 폐기물 재활용 및 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경제 활동이 중요해지며 REF의 재정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조세 부문 : 법령 Real Decreto-ley 15/2014를 통해 조세 혜택 등 개정
 - RIC(Reserva para Inversiones en Canarias, 카나리아 투자준비금) : 관련법(19/1994 제27조)에 따라 RIC은 카나리아 제도의 기업 생산 투자, 공공 기반시설 및 고용 창출 진흥을 위해 조세 혜택 도입
 - 법인세 과세표준 감면(소득세 IRPF 경우 공제) 등을 통해 회계연도 내 비배당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투자 준비금으로 형성할 수 있으며, 동 준비금은 최대 3년 안에 사용
 -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동 준비금은 투자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일자리 창출이나 초기 투자로 볼 수 없는 고정자산 취득, 지분참여증서 등록, 공적부채 취득 등에 사용
 - 조세 혜택 : 선박 및 선사의 특별 등기
 - 선사나 등록된 선박(어선 제외)에 적용할 수 있는 면세나 공제 등 일련의 조세 혜택을 통해 해운회사와 카나리아 항만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상 등기
 - 관세 체제 : 카나리아 제도는 EU 공동관세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리적 원거리와 섬이라는 특수성 인정
 - 장편영화 및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픽션 영상 시리즈물 제작 투자 공제
 - 해외 제작사가 카나리아 제도에서 제작 시 35% 공제 (스페인 본토 15%)

- 서아프리카 지역 투자 및 광고·홍보 비용에 대한 공제
 -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감비아,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지역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 국제박람회·전시회 등 해외시장을 지향하는 제품의 광고 및 홍보 비용에 대한 공제
- 카나리아 간접일반세(IGIC) : 최종 소비세인 IVA를 대체하여 카나리아 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간접세로, IVA와 아주 유사하나 더 낮은 세율 적용
- 카나리아특구(ZEC) : 2000년 EU에서 승인한 조세특구는 카나리아 제도의 경제·사회 발전을 장려하고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특정 분야 기업에 낮은 조세 적용

5) 라스팔마스 항만 개요

■ 위치 및 항만 여건

- 위치
 - 대서양 중부 그란카나리아 섬 북단에 위치하며 서부 아프리카 연안국과 유럽 대륙 및 미주 대륙을 연결하는 해상 거점
- 항만 여건
 - 어선 및 상선의 제반 물자 하역, 보급품 공급, 선박 수리 및 서부 아프리카 연안에서 조업하는 선박과의 교신 용이
 - 전 세계 180개 항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매년 150만 톤의 연료 보급 기지로 이용되며, 매년 40만 톤의 냉동어류 가공처리
 - ※ 연간 1.2백만 TEU 처리

■ 항구 시설 상세

- 수심 및 폭
 - 내항 : 수심 14m, 폭 700m
 - 외항 : 수심 30m, 폭 500m
- 부두 총길이 : 15km
- 항만 해상 면적 2,350ha (약 700만 평)
- 육상 면적 : 3,657,828m² (약 110만 평)
 - 저장 창고 : 448,376m², 도로 : 758,322m²
 - 기타 용도 : 667,890m²

■ 특징

-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중남미를 연계하는 물류기지

- 1) 라스팔마스 항만은 World Food Programme(WFP),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적십자, UNICEF 등의 아프리카 식량원조 항만(세계 6개 항만 중 하나)으로 지정
- 2) 항만청은 본격적인 아프리카 개발 협력을 위해 전담 부서인 '항만재단'을 설치, 운영하여 서부아프리카 국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3) 아프리카 국가와의 직항 해운 노선(모로코·모리타니아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 중

■ 발전 방향

- 라스팔마스 항만의 주요 발전 방향은 1)카나리아 제도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크루즈 유치, 2) 파나마 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 물류 유치, 3) 선박 유류 공급(벙커링) 사업 확대, 4) 해양플랜트 서비스(수리 및 인력공급 등) 산업 육성, 5) 아프리카 진출 다국적 기업 유치(비즈니스센터), 6)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아프리카 또는 유럽 환적 화물 유치 등

다. 한국과의 관계

- 라스팔마스는 우리 경제발전 초기인 1960~1970년대 우리 원양어업 전진기지로 외화 획득에 기여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철수한 상태
 - ※ 1966년 한국수산개발공사의 라스팔마스 기지 개설을 효시로, 대림·동원·남양사 등 진출, 1970년대 총 34개사, 210척의 대규모 어선단이 형성, 약 8억 700만 달러 외화 획득
- 원양어업 전성기 때는 교민 수도 1만 명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700명 정도로 대폭 감소
 - 이에 따라 1993년 주라스팔마스 총영사관(1973년 영사관 개설, 1976년 총영사관으로 격상)이 폐쇄되고 이후 현재까지 주라스팔마스 분관 유지
- 현대·기아를 포함한 한국산 자동차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리아 제도의 한국산 승용차 점유 비율은 7%(2015년 기준) 수준
- TV·모니터·냉장고 등 삼성·LG 가전제품도 판매 중
- 한국산 의류의 판매 상황은 중국산·인도산 의류의 대거 진출에 따라 수입상들이 수입원을 교체하고 있으며, 현재는 교민 수입상 위주로 판매되어 실적이 저조한 편

5 역대 주스페인대사 명단

역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프랑스 상주)	백 선 업	1961년 7월~1965년 7월
2대(프랑스 상주)	이 수 영	1965년 7월~1972년 4월
초대 대사	최 완 복	1970년 7월 ~1972년 10월
2대 대사	심 흥 선	1972년 10월~1973년 12월
3대 대사	신 상 철	1974년 1월~1979년 5월
4대 대사	장 재 용	1979년 5월~198년 4월
5대 대사	연 하 구	1981년 7월~1983년 1월
6대 대사	탁 나 현	1983년 1월~1986년 3월
7대 대사	윤 찬	1986년 3월~1988년 4월
8대 대사	장 명 관	1988년 4월~1991년 7월
9대 대사	권 태 응	1991년 10월~1994년 2월
10대 대사	조 광 제	1994년 3월~1996년 4월
11대 대사	현 희 강	1996년 5월~1999년 3월
12대 대사	홍 장 희	1999년 3월~2001년 8월
13대 대사	이 원 영	2001년 9월~2003년 6월
14대 대사	장 동 철	2003년 6월~2005년 9월
15대 대사	이 춘 선	2005년 9월~2008년 5월
16대 대사	조 태 열	2008년 6월~2011년 3월
17대 대사	오 대 성	2011년 4월~2014년 4월
18대 대사	박 희 권	2014년 4월~2017년 2월
19대 대사	전 흥 조	2017년 2월~현재

6 역대 주한스페인대사 명단

역 대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일본 상주)	돈 루이스 가르시아 데 예라 (Don Luis Garcia de Llera)	1962년 6월~1970년 11월
2대(일본 상주)	알폰소 메리 델 발 (Alfonso Merry del Val)	1970년 11월~1973년 10월
1대 대사	호세 마리아 아구아도 사라레기 (Jose Maria Aguado Saralegui)	1973년 10월~1978년 9월
2대 대사	루이스 쿠에르포 파브레가스 (Luis Cuerpo Fábregas)	1978년 8월~1982년 2월
3대 대사	라미로 페레스-마우라 데 에레라 (Ramiro Pérez-Maura de Herrera)	1982년 4월~1985년 11월
4대 대사	페르민 프리에토-카스트로 (Fermín Prieto-Castro)	1986년 5월~1991년 10월
5대 대사	안토니오 코사노 페레스 (Antonio Cosano Perez)	1991년 10월~1994년 6월
6대 대사	카를로스 알론소 살디바르 (Carlos Alonzo Zaldivar)	1994년 8월~1997년
7대 대사	엔리케 로메우 라모스 (Enrique Romeu Ramos)	1997년 ~2001년
8대 대사	엔리케 파네스 칼페 (Enrique Panes Calpe)	2001년 12월~2005년 6월
9대 대사	델핀 콜로메 푸홀 (Delfín Colomé Pujol)	2005년 7월~2008년 8월
10대 대사	후안 레냐 카사스 (Juan Leña Casas)	2008년 9월~2011년 1월
11대 대사	루이스 아리아스-로메로 (Luis Arias-Romero)	2011년 2월~2014년 9월
12대 대사	곤살로 오르티스 (Gonzalo Ortiz)	2014년 10월~2018년 10월
13대 대사	후안 이그나시오 모로 (Juan Ignacio Morro)	2018년 11월~현재

7 스페인 주요 유적 및 관광 안내

가. 마드리드

■ 마드리드시

- 이베리아 반도 중앙부 해발 650m에 위치한 도시로서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 1561년 펠리페 2세가 수도를 톨레도에서 마드리드로 천도한 이래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구시가는 주로 17~18세기에 건설됨. 특히 18세기 후반 카를로스 3세 때 많은 건물과 도로 등을 건설(프라도 박물관, 왕궁 등)하면서 수도로서의 면모 형성

■ 왕궁(Palacio Real)

- 개방시간 : 월~일 · 휴일 10:00~20:00
(10.1~3.31 동계/월~일·휴일 10:00~18:00), (1.1/1.6/5.1/12.24/12.25/12.31 휴관)
- 일명 동쪽 궁전(Palacio de Oriente)으로, 유럽의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식 왕궁 중 하나
- 9세기경 아랍인들이 지배할 당시 요새화된 왕궁을 개조하여 오스트리아 왕가의 성으로 사용, 1734년 화재로 전소된 곳에 부르봉가 왕가의 시조이며 베르사이유궁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펠리페 5세가 베르사이유 궁전을 모델로 하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돌과 화강암으로만 건축, 1764년 완공
- 1764년 펠리페 5세의 아들인 카를로스 3세 때부터 살기 시작하여 후안 카를로스 현 국왕의 조부인 알폰소(Alfonso) 13세가 왕정의 문을 내린 1931년까지 역대 스페인 국왕들의 공식 거처로 사용
- 한 면의 길이가 140m에 이르는 장방형 건축물로, 왕궁 안의 방은 크고 작은 것을 합하여 2,800여 개에 달함. 19세기식 내부 장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왕궁은 초기 안달루시아로부터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거장에 이르는 그림과 타пет화 등 비치
- 1931년까지 국왕의 거처였으며, 현재는 박물관·영빈관으로 사용되며 국빈 리셉션 등 국왕 공식 행사를 왕궁에서 거행

■ 프라도 미술관

- 개방시간 : 월~토 10:00~20:00, 일·휴일 10:00~19:00
(12.24/12.31/1.6 10:00~14:00, 1.1/5.1/12.25 휴관)
- 18세기 카를로스 3세가 자연사 박물관으로 건축
- 1819년 페르난도 7세에 의해 왕실미술관으로 개관하여 현재 세계 4대 미술관의 하나
- 주요 소장품
 - 스페인 고전(17세기까지)
 - 초기 무명 화가로부터 안달루시아 플라멩코 화가·왕족의 초상화가 등
 - 16세기 엘 그레코(El Greco, 1541~1614)
 - 17세기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Velázquez, 1599~1660)
 - 고야(Francisco Goya, 1746~1828)와 18세기
 - 스페인의 18세기는 미술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시기였으나 고야의 부상으로 초현실주의 및 인상주의로 이어지는 근대미술 태동
 - 궁정화가의 여동생과 결혼함으로써 왕실 화가로 1785년 임명
 - 왕실 내 특별 지위를 얻어 활동한 결과, 주요 작품들을 프라도가 소장
 - 72세의 늙고 귀 먹고 고독한 고야가 인간의 무용성(無用性), 비관적인 면들을 그린 <암흑의 그림들(Black Painting)> 소장
 - 특히 <옷 입은 마야>, <옷 벗은 마야>, <카를로스 4세 가족 초상화> 및 <5월 2일 총살형>이 유명
 - 18세기 이후
 - 기타 18세기 낭만주의 작품은 부속 건물에 보관
 - 엄청난 수에 이르는 19세기 작품들도 대부분 그 밖의 미술관 등에 분산 보관 중
 - 외국 작품
 -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및 영국 화가 다수 작품 소장

■ 소피아 미술관

- 개방시간 : 월·수~토 10:00~21:00, 일 10:00~19:00, 화 휴관
(1.1/1.6/5.1/5.15/11.9/12.24/12.25/12.31 휴관)
- 연 혁
 - 산 카를로스(San Carlos) 종합병원으로 프란시스코 살바티니(Francisco Sabatini)가 1776년 설계한 건물에 새 시대 마드리드의 이상을 나타내는 건물을 복합하여 건축 (1965년까지 병원 역할, 1978년 국가문화재(Patrimonio Nacional)로 지정)

- 1986년 현대미술 소장관으로 전 왕비의 이름을 따서 명명

- 주요 소장품 : 피카소의 <게르니카>,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í), 호안 미로(Joan Miró) 작품 등 20세기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현대 미술품 소장

■ 대광장(Plaza Mayor)

- 1619년 펠리페 3세 시대에 건설, 100×200m의 장방형 광장
- 역사적으로 마드리드시의 중심 광장으로 국왕 취임식, 종교 의식, 투우와 교수형에 이르기까지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이곳에서 거행
- 광장 주위에 136개의 방을 가진 4층 건물을 사각형으로 건축
 - 광장 중앙의 말을 탄 동상은 펠리페 3세의 동상
- 광장 주변 역에 18세기 이후 형성된 식당, 카페, 선물집들이 모여 있고, 이 중 1725년 시작된 보틴(Botín)은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헤밍웨이가 방문하던 곳으로 유명

■ 푸에르타 델 솔(Puerta del Sol)

- 마드리드시의 중심지로 스페인 도로 거리 측정의 기점이며, 이곳으로부터 10개의 도로가 전국으로 뻗어나감
- ‘푸에르타 델 솔’은 태양의 문이라는 의미
 - 16세기까지 태양이 새겨진 문이 있었으며, 20세기 초 그란 비아(Gran Vía)가 형성될 때까지 쇼핑의 중심지

■ 스페인 광장(Plaza de España)

- 1930년 건립된 광장으로 마드리드 최고 변화가인 그란 비아가 시작하는 곳에 위치
- 스페인의 대표적인 작가 세르반테스(1547~1616) 서거 3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와 동상, 그리고 돈키호테와 산초 동상이 위치

나. 마드리드 근교 주요 사적지

■ 톨레도(Toledo)

- 마드리드 남쪽 72km 소재, 인구 약 8만 명의 고도로서 타호강에 에워싸이듯이 위치한 천혜의 요새 지형
 - 역사적으로 로마의 지배 후 6세기경 서고트족이 들어오면서 톨레도는 서고트 왕국의 수도로 번성
 - 711년부터 1492년까지 370여 년간 회교도 지배를 받았고 1085년 알폰소 6세의 탈환 이후 1560년까지 스페인 수도로서 정치·문화 산업의 중심지
 - 1986년 12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 성 당
 - 프랑스 고딕 양식으로 1226년 착공, 1493년 완공
 - 22군데의 예배당과 신약 성경, 성도를 주제로 한 스테인드 글라스, 보물실 등으로 구성
 - 금·보석 세공 가톨릭 장식품(2.5m 높이, 200kg 중량), 라파엘, 엘 그레코 등 거장의 미술 작품 등 소장
 - 개방시간 : 월~토 10:00~18:30, 일·휴일 14:00~18:30 (종교 행사 시 개방시간 제한)
- 톨레도 성
 - 옛 왕궁 터에 건설된 성
 - 1939년 내전 시 격전지로 유명
 - 개방시간 : 월~일 10:00~17:00
- 산토 토메 교회
 - 화가 엘 그레코의 작품 <오르가스 백작의 장례식> 전시
- 엘 그레코(EI Greco) 박물관
 - 화가 엘 그레코가 30년간 거주했던 자택 부근을 사들여 스페인 국립관광국장이던 베가일클란 후작이 1906년 개관
 - 2층에 <십자가의 그리스도>, <12사도 시리즈>, <톨레도의 경관과 지도> 등 다수의 작품 전시
 - ※ 그리스인인 엘 그레코는 펠리페 2세 왕실 전속화가가 되기 위해 1577년 스페인으로 이주하였으나, 당시 스페인 왕실의 화풍과 맞지 않았고 톨레도에 매혹되어 정착, 작품 활동

■ 엘 에스코리알(EI Escorial)

- 마드리드 서북 49km 위치
- 펠리페 2세가 프랑스에 승전한 기념으로 1563년 착공, 1584년 완공
- 여름별궁, 사원, 수도원, 도서관, 미술관을 포함한 건축물
- 역대 국왕들의 유해를 안치한 판테온
- 개방시간 : 화~일 10:00~20:00 (4월~9월), 10:00~18:00 (10월~3월)

■ 전몰자 계곡(Valle de los Caídos)

- 마드리드 서북 54km 위치
- 1936~1939년 스페인 내전 중 사망한 전몰자 5만 명을 위해 국가기념물로 만들자는 제안에 따라 건축(바위산을 뚫어 건설)
- 프랑코 총통의 지시에 따라 1940년 착공, 1958년 완공
- 프랑코 총통 묘소
- 세계 최대의 초대형 십자가(세로 150m, 가로 46m)
- 개방시간 : 화~일 10:00~19:00 (10.1~3.31 동계/화~일 10:00~18:00)
- 주요 시설물
 - 지하성당의 외관
 - 산책길 3만m², 화강암 계단은 폭 100m
 - 십계명을 상징하는 두 전사가 그 위를 안내
 - 정면 입구에는 검은 대리석(높이 5m, 길이 12m)으로 조각된 커다란 피에타 위치
 - 지하성당
 - 첫번째 부분은 3개 구역(현관, 아트리움, 중간 연결 부분)으로 구분된 접근 지역이고, 두 번째 부분은 높이 22m의 교회의 신랑(神廟)을 만듬으로써 각 측면 3개 작은 바실리카 성당 건축
 - 지하성당의 총길이는 262m
 - 십자가 뒤편에는 수도원과 사회연구센터 위치

■ 세고비아(Segovia)

- 카스티야 레온 주 소속
- 고대 로마 시대에 이미 도시로서 번영했던 곳으로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수도교에서 그 흔적 확인 가능
 - 아랍 시대에는 직물이 성행하는 도시로 알려졌고, 15세기는 세고비아의 황금시대로 가톨릭 이사벨 여왕(Isabel la Católica)이 대관식을 올린 곳
- 마드리드 서북 100km에 위치한 역사 도시로 해발 1,000m의 고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녹음이 많고, 배후에는 구아다라마 산맥을 끼고 에레스마 강에서 들어간 부분은 멀리서 보면 마치 배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유명
- 수도교(Acueducto)
 - 기원전 80년경 로마 트라하노(Trajano) 황제 시대 축조한 급수시설
 - 세고비아시에서 떨어져 있는 아세베다(Acebeda) 강에서 물을 끌어올려 도시 안으로 공급해 주는 시설
 - 전장 15km, 167개 아치, 높이는 지형 관계로 가장 높은 곳이 29m
 - 세고비아 도시 위로 지나가는 길이 728m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고, 화강암만을 쌓아올린 로마의 토목 기술로도 유명
 - 유네스코에서 198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 성(Alcázar)
 - 크고 작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마을 선단에 이 성은 아름다운 실루엣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며, 디즈니는 이 성을 영화 <백설공주>의 모델로 사용
 - 12세기 처음 문헌에 기록
 - 13세기에 축조 시작, 14세기 중엽 완공
 - 1474년 이사벨 여왕이 카스티야(Castilla) 왕국 여왕으로 대관식을 갖고 절대군주제 근대국가 건설 시작
 - 펠리페 2세가 오스트리아 앤 공주와 1570년 결혼식을 올린 장소이며, 스페인 의회 전신인 '코르테'의 무대로서도 역사적 의미
 - 1862년 화재 후 1890년 복원 완성
 - 개방시간 : 월~일 10:00~18:00(11월~3월), 10:00~20:00(4월~10월)

다. 바르셀로나

1) 역사적 배경

- 기원전 페니키아인들에 의해 부락이 형성되었으며, 기원전 3세기까지 카르타고인들이 지배(당시 바르셀로나 지역 통치자의 성이 바르샤(Barça)였으며, 한니발 장군 부친)
-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가 패퇴함으로써 스페인에 대한 패권도 로마로 이관(로마인들이 이 부락을 바르샤(Barça) 씨족이 통치하던 곳이라는 의미로 이 지역을 바르치노(Barcino)로 부르기 시작)

2) 문화적 배경

- 도시의 구시가를 중심으로 한 지역은 고딕 양식이 주를 이루고, 부분적으로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복합
 - 도시의 신시가지는 19세기 말의 모더니즘 양식 건물이 배치되어 있으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명성을 떨친 건축가 가우디(Gaudí)의 건물이 많아, 바르셀로나를 ‘가우디의 도시’라고도 명명
-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지중해를 사이에 끼고 이탈리아와 마주 보고 있는 지리적 환경의 영향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서구적인 분위기의 독자적 문화 형성
- 근면한 카탈루냐인들은 무역을 중심으로 많은 부를 축적해 왔고, 그 부를 바탕으로 예술에 대한 심미안을 길러 피카소, 미로, 달리 등 특출한 예술가들 배출

3) 주요 명소

■ 구엘(Güel) 공원

- 가우디의 작품을 대표하는 시립 시민공원으로, 바르셀로나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산자락에 자연 형태와 수림을 그대로 보존한 채 설계되었으며, 1900년부터 1914년간 건립
- 인체를 본뜬 다면의 형상을 이미지화한 모자이크 장식과 화려한 타일로 만들어진 계단 위 도롱뇽이 유명
- 유네스코가 198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 성가족성당(Catedral de la Sagrada Familia)

- 1882년에 시공한 성가족성당은 가우디의 걸작품으로 그가 사망하기까지 평생 동안 건축
 - 100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완공 목표
- 성가족성당의 기본 설계와 디자인은 가우디의 작품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건축가의 참여로 여러 가지 건축 스타일이 녹아 있는 건축물
 - 첫 공사는 신고딕 양식으로 시작(건축가 : Francisco de Paula del Villar y Lozano) 되었으나 1884년 가우디가 총지휘를 맡으면서 전체적으로 수정
- 성가족 성당은 외벽의 <탄생의 파사드(La Fachada del Nacimiento)>와 함께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 대성당(Catedral de Barcelona)

- 서기 559년에 크루즈(Cruz) 성녀와 에우라리아(Eulalia) 성녀를 추모하여 세운 성당으로, 985년에 무어족 군대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1045년에서 1058년 사이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재건축
- 그 이후 14~15세기에 걸쳐 고딕 양식으로 증축되었으나 '산 이보(San Ivo)' 문과 성당의 일부는 아직도 로마네스크 양식대로 보존
 - 1929년에 국보로 지정
- 개방시간 : 월~금 12:30~19:45, 토 12:30~17:30, 일 14:00~17:30

■ 몬쥬익(Montjuïc) 성

- 몬쥬익 언덕 꼭대기에 위치하여 전망대에 서면 시내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장관
- 이 성은 1640년 농민전쟁(Segadores) 당시 30일 만에 세운 건물이 기원이 되어 왕의 소유로 넘어간 후인 1694년에 확장
- 스페인 왕위계승전쟁(1701~1704) 때에는 전투 기지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전쟁 후 펠리페 5세는 성을 부분적으로 철거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으나 군사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전체적으로 보수, 수리
- 개방시간 : 월~일 10:00~20:00 (3월~10월) / 월~일 10:00~18:00 (11월~2월)

라. 안달루시아(Andalucía)

■ 코르도바(Córdoba)

-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400km
- 옛 로마 시대(B.C. 1세기~A.D. 1세기)의 중심지이며 세네카(네로 황제의 스승)의 출생지로 다수의 로마 유적 잔존
- 711년 무어족이 안달루시아를 침입하면서 시작된 아랍 민족의 스페인 지배 시 무슬림 왕국의 수도(758년)
- 대표적 명소 : 아랍 회교사원(Mezquita-Catedral)
 - 8세기 중반 건축, 추후 증축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 850개에 이르는 기둥과 말발굽 형태의 아치를 가진 독특한 건축물
 - 개방시간 : 월~토 10:00~19:00(10월~3월) / 8:30~18:00(11월~2월)

■ 그라나다(Granada)

- 마드리드에서 남쪽으로 432km
- 1236년 스페인의 기독교 세력에 의해 코르도바가 함락당한 후 무슬림 왕국의 안달루시아 지역 수도가 되며, 1492년 이사벨 여왕의 기독교군에 의한 그라나다 함락과 함께 이베리아 반도가 통일될 때까지 번영
- 알함브라 궁전
 - 현존하는 아랍 문화 양식 건축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궁전의 하나로 전 세계적 문화유산
 - 기타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으로 유명하며 14~15세기 무슬림족의 대표적 건축물
 - 왕궁, 성(Alcazaba)과 함께 헤네랄리페(Generalife) 정원이 유명

■ 세비아(Sevilla)

- 마드리드에서 동남쪽으로 538km에 위치. 현 안달루시아 자치지역의 수도로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 톨레도 이전 로마 시대의 중심 도시였으며 비시고도(Visigodo, 서고트) 왕국의 수도
 - 11~12세기 무슬림 왕국의 대표적 도시

- 스페인의 대표적인 항구도시로, 1492년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이후 세비야는 교역의 중심지가 되어 번영
- 세비야를 끼고 있는 과달키비르(Guadalquivir) 강은 수많은 문학작품 속에 등장
- 1929년 이베로아메리카 박람회, 199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 대표적 명소
 - 대성당 : 15세기 고딕 양식의 대표적 건물로 유럽의 3대 성당 중 하나
 - 성(Alcázar) : 14세기 건물로 아랍 기술을 엿볼 수 있는 타일, 모자이크로 장식된 기둥과 천장으로 유명
 - 산타 크루스(Santa Cruz) 구역 : 15~16세기 도시 형태를 보존하고 있으며, 세비아에서 가장 오래된 플라멩코 관람 명소인 '로스 가요스(Los Gallos)'가 위치

마. 스페인 민속

■ 플라멩코(Flamenco)

1) 역 사

- 안달루시아 지방 집시에 의해 전승되어 온 춤과 노래(아랍의 영향 지대)
- 1783년 카를로스 3세의 집시 거주권 인정 후 널리 전파
- 집시의 애환을 표현

2) 관람 안내(마드리드)

- Corral de la Morería
 - 주 소 : C/ Morería, 17
 - 전 화 : 91-365-1137
 - 관람시간 : 20:00 / 22:00
 - 저녁식사와 함께 관람 가능
 - 가 격 : 50유로 (저녁식사 포함 시 약 80유로)
- Corral de la Pacheca
 - 주 소 : C/ Alcalá, 237
 - 전 화 : 640-291-842
 - 관람시간 : 19:00~20:15 / 22:00~23:15
 - 저녁식사와 함께 관람 가능
 - 가 격 : 저녁식사 포함 시 약 80유로

■ 투우(Corrída de Toros)

- 지중해 지방에서 기원전 2000년경부터 축제 기간에 소를 가지고 놀이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
- 1750년 마르틴초(Martincho)라는 투우사가 현대식 투우 창안
- 1일 경기에 500kg 정도의 소 6마리 동원, 3명의 투우사가 각각 2마리 소와 경기
- 투우의 3단계
 - 소를 창으로 찔러 힘을 빼는 단계(Picar)
 - 작은 창을 여러 개 꽂아 지치게 하는 단계(Banderillear)
 - 투우사(matador)가 칼로 급소를 찔러 절명케 하는 마지막 단계(Matar)
- 최근 동물학대 논란으로 투우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카탈루냐(2012년부터)와 카나리아 제도(1991년부터)에서는 투우 금지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245-14